

현대불교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3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1일(음력 12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보살의 마음으로 한 해 시작을…

새해를 맞는다. 올 한 해는 어떨까. 향상일로를 걷는 인류이지만 삶은 점점 힘겹기만 하다. 몹시도 시끄러운 시절이다. 조용히 눈이라도 감아야 '나'를 만날 수 있는 오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는다. 우리는 누구나 보살의 화신인 십이지신의 이름 하나 씩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 뱀왕 모짤린다가 부처님의 선정을 외호하고 귀의했던 것처럼 보살인 우리 모두가 부처님 법의 위대함을 다시 새기고, 서로를 보살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부처님의 선정처럼 평온해지지 않을까. 템플스테이 참가 대중이 밝아오는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있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임은호 기자

종단 · 군승 · 신도조직 등 역량 결집 기념사업 '봇물'

관음종 창종 60주년 맞아
태허 조사 선양 사업 집중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
군포교 내실 다지기 나서

70살 생일 맞는 중앙신도회
선명상 대중화 대회 계획 중

신중일 · 김민재 · 김가령 기자

2025년 한국불교계는 종단·군포교·신도조직·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다. 올해로 창종 60주년을 맞는 관음종은 개산조 태허 조사 선양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태허 조사는 종로 파고다 공원(현 탑골공원)에서 대중들에게 1958년부터 1960년까지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리 설법을 했다. 거리 설법을 마친 이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대중을 만나 설법·포교한 것으로 유명하다.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태허 조사의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우선 조사스님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에 들어갔다"며 "더불어 태허 조사가 저술한 가사집 〈인생탈춤〉을 작품으로 만들어보려 한다. 10월 중 중국, 일본, 베트남 불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의 황금어장, 군포교를 위해 탄생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2025년 출범 20주년의 해를 맞이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군포교 핵심 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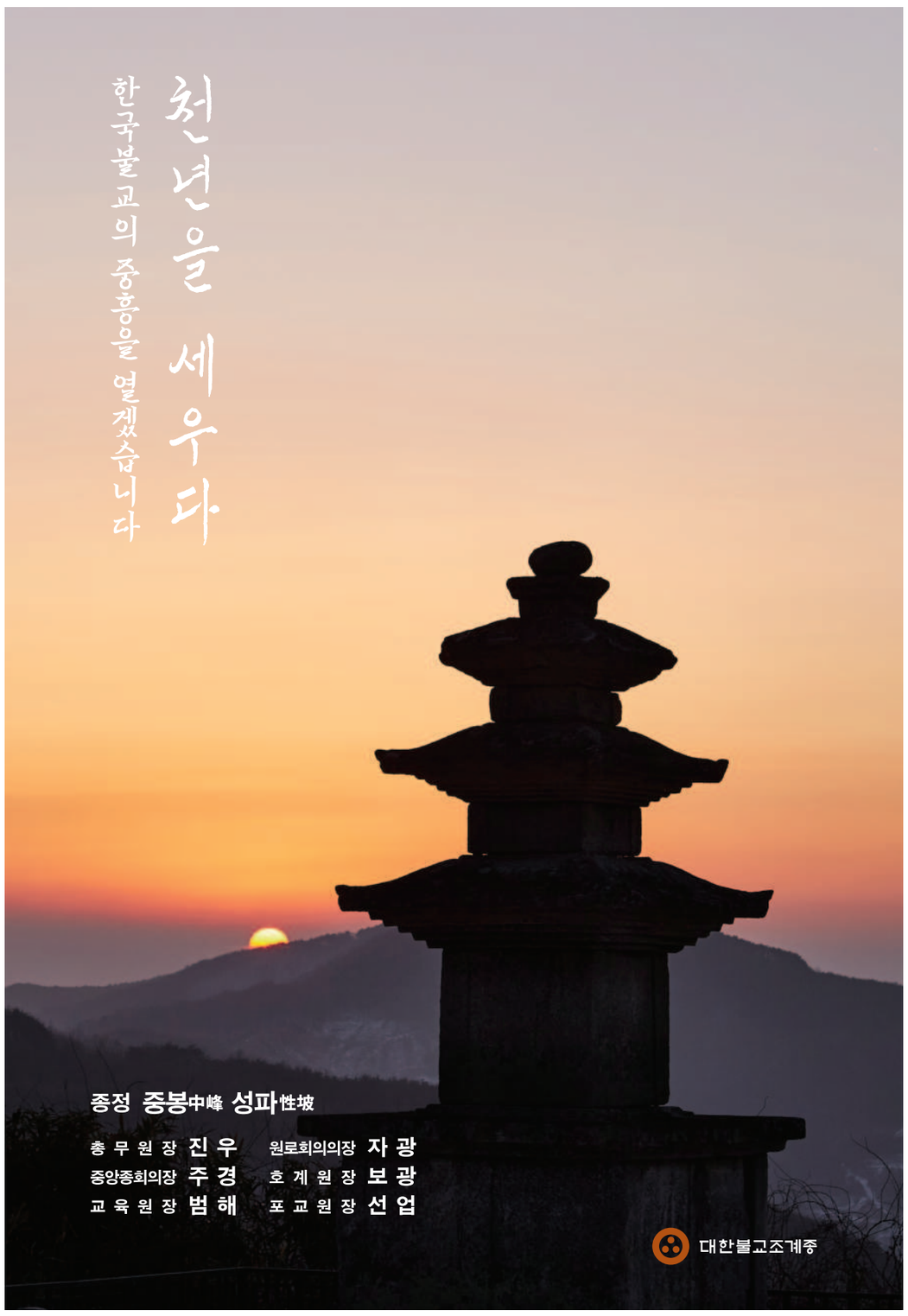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군에 선명상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격무에 지친 군장병이 선명상으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조계종 미래본부에서 개발한 '선명상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법원 스님은 "호국홍익사 주지 관묵 스님의 '통신보안' 프로그램처럼 군장병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활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순례 승가결사체인 '상월삼조회'와 함께 군장병을 위한 순례 프로그램을 기획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군불자 관리 시스템'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계를 받고 부대에서 신행생활을 하던 군장병이 전역 후 다시 불교와 멀어지는 현상을 미연에 막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수계 장병 DB(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진력, 대학과 사회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불연(佛緣)을 이어 나가는데 군종특별교구가 일익을 맡을 예정이다.

조계종 45개의 신도단체를 이끄는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올해로 70살 생일을 맞는다. 중앙신도회는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와 함께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 신도대회'를 열 계획이다.

〈A3면에 계속〉



2025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8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7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



신년특집
몸 튼튼 마음 튼튼
B1 · 2 · 4 · 5 · 8 · 9



슬기로운 불교생활
C1 · 2 · 3 · 6 · 7 · 8



불교가 알아야할 2025트렌드
A22 · 23
불교와 뱀 C19
신년법어·신년사
A13 · 14 · 16 · 17 · 18 · 19
현대불교신문 30주년 행사 현장
A4 · 5

1700년 한국불교 비구니스님 삶·수행 조명

비구니회 비구니승가연구소
〈역사 속 한국 비구니〉 발간
일본 등 고문헌 40여 종 바탕
비구니스님 활약상 등 총망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역사 속 한국 비구니〉 출판기념회에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관통하며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역할을 조명한 책 〈역사 속 한국 비구니〉가 발간됐다. 전국비구니회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5년간 연구·조사한 결과물이다.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비구니스님들의 존재와 역할,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온 활약상 등이 총망라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역사 속 한국 비구니〉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역사 속 한국 비구니〉에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비구니스님들의 문헌과 자료를 촘촘하게 담아냈다. 책은 전영숙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집필하고 감수는 본각 스님, 수경 스님, 원광 스님,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조은수 서울대 명예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하춘생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특히 부록에는 근현대까지 각 방면에서 활동한 비구니스님들의 자료를 디지털로 정리한 QR코드가 함께 실려 향후 비구니사 연구의 기반을 다졌다.

책 발간을 담당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2020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했고, 시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중국, 일본 고서에서 역사를 역추적해 순서와 상황을 정리했다"며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로 12차례나 원고 수정 과정을 거쳤다. 사실에 의거한 학술서지만, 딱딱하지 않고 대중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술회했다. 스님은 이어 "지면의 한계로 근현대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조명은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며 "향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보완해 개정판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급변하는 시대에 정보도 빠르게 흘러가지만, 책은 언제 어디서나 늘 손 가까이에서 많은 스님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기본 토대"라고 인사했다.

흩어진 방대한 자료를 엮어 비구니사의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이뤄낸 만큼, 뜻깊은 책 출판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활동 사실을 발굴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출간한 이번 책 역시 한국 비구니스님들이 노력과 정진으로 이룬 뜻깊은 성과"라고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한국 비구니승가는 17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지만 긴 역사에 비해 그간 알려지고 조명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발간은 모든 승가에 훌륭한 거울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을 맡아 책 발간 사업의 토대를 닦았던 본각 스님은 사업의 시초가 된 1999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한 언론사에서 근대 100년 각 종교 여성 지도자를 조명하는 기획을 추진했는데, 중앙승가대 교수로 재직하던 스님이 이를 담당하게 된 것. 스님은 중앙승가대 내 한국비구니연구소를 운영하며 비구니스님 자료 연구에 매진했지만,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97학번 비구니 학인스님들과 전국을 돌며 원로 비구니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정리했다. 틈틈이 신문 기사를 오려 자료를 모으기도 했다. 어렵게 모아 엮은 자료집은 본각 스님이 전국비구니회장 소임을 맡고 한국비구니연구소를 합병하면서 〈역사 속 한국비구니〉 발간의 기초자료로 인계됐다.

전국비구니회는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 전영숙 책임연구원에게 책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관련기사 B15면〉

조계종 인천·강화 전법단 출범…"지역불교 중흥"

12월 17일, 인천 경원재 앰버서더서
70여 명 참석해 "전법 활성화" 다짐



인천·강화지역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펼칠 전법 연합체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인천·강화지역 사부대중은 지난해 12월 17일 인천 경원재 앰버서더 영빈관에서 '조계종 인천·강화 연합 전법단(가칭)' 출범식을 갖고 지역불교 중흥과 전법 활성화를 다짐했다.〈사진〉

'조계종 인천·강화 연합 전법단(가칭)' 창단은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인천·강화지역을 포교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부단장에는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과 백련사 주지 혜성 스님이, 사무국장에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과 법왕사 주지 홍연 스님이 선임됐다. 향후 전법단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강화지역 포교역량 결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이 넘고, 곧 350만명을 앞둔 중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오늘 전법단 출범을 디딤돌 삼아 포교·전법에 다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불교 발전의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격려했다.

지역 사찰 스님과 불자들은 전법단 출범에 맞춰 적극적인 협력과 전법 실천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사암연합회장 소임을 맡아 인천·강화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개개인의 마음을 모으기엔 구심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법단 출범으로 구심점이 생긴 만큼, 각자 마음 내서 어떻게 포교하고 전법할 것인지 여러 스님이 의견을 나누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순심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도 "현재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에는 446명이 불법을 수호하며 사찰 봉사, 군포교, 사찰문화해설, 탈북민법회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찰 스님들을 외호하며, 함께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강화지역 포교현황과 사례발표를 통해 향후 전법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33개 사찰을 대표해 인천지역을 발표한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은 군부대 포교 지원이 개개인의 보시에 치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운영지원 사찰'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운영 토대 구축을 제안했다. 인천=김내영 기자

선명상 대중화 본격화…51 지도법사 탄생

"대중화 위해 힘 모아주기를"


선명상 지도법사 위촉식

'선명상' 대중화를 견인할 51명의 선명상 지도법사 스님들이 탄생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선명상 지도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 선명상 지도법사를 위촉하고 그 방안을 발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총 51명의 선명상 지도법사는 지난 9월 12~1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특별과정'을 통해 배출됐다. 이들은 당시 월암 스님, 미산 스님, 금강 스님을 교수사로 선명상에 대한 이론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 기획 홍보, 실기 능력 등 심도 깊은 교육과 면접을 통과해 지도법사로 거듭났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지우 스님,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이 지도법사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선명상 공식팀을 꾸려 선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법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양성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법사스님들은 선(禪)과 명상에 깊은 이해를 갖추고 특별과정 연수를 통과한 전문가들이다. 앞으로 선명상 보급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2025년도 선명상 대중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도법사들이 선명상 대중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명상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이어졌다. 문사수명상연구원장 일중 스님은 '청년 세대를 위한 8주 선명상 코스'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재 기자

태고종, 2025년 '해동율맥' 세계에 알린다

'국제대승보살계' 봉행할 예정
'태고세미나' 내년에도 이어져



태고종이 한국의 해동율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대승보살계'를 봉행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2회 정기중앙종회를 열었다.〈사진〉

2025년도 추진 사업계획에 따르면 태고종은 내년 10월 중에 '국제대승보살계'를 설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회는 수진 스님을 율사로 한국 해동율맥의 중요성와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열린다. 영산문화축제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의 계율정신을 세계에 알리고자 보살계 법회에는 남방불교, 중국·대만 등 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동참한다. 또한 태고종의 중요 역사 자료를 전산화하는 '종단 기록유산 보존자료 아카이브 사업'도 실시된다. 해당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안이며,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불교와 협력해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밝히는 '제7회 태고세미나'도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개최된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도 이어졌다. 태고종은 동방불교대학을 '동방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 정부 인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어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새해에도 많은 종책사업의 개발과 시행으로 종도들의 종단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는 불기 2569년(2025)년 종단 예산액 54억 5216만원을 의결했다. 김민재 기자



총본산 조계사 삼존불 조성 20년

을사년 새해,

조계사 삼존불 개금불사가 시작됩니다.

2025년 아미타부처님
2026년 약사여래부처님
2027년 석가모니부처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A1면에 이어〉

지난해 취임한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국민 마음 건강과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천명한 '선명상'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전국신도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중앙신도회 자체 예산으로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불자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신도회는 젊은 층 포교에 진력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불제자 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찰 경내에 어린이·청년 전용 공간을 확보해 '불교 접근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불교 세계화'에도 나선다. K-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국대 및 불교 유관단체와 MOU를 체결, 선명상 세계화와 글로벌 전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신행·명상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국내외 불교 사회복지 사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재단은 30년 역사와 사업, 성과를 조명하고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소개하는 '불교사회복지 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편람에는 1995년부터 이어진 복지재단의 역사와 주요 시설, 참여 사업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다.

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가 미래에 나아갈 길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각오다. 또한 창립 30주년 대법회를 봉행해 자비나눔이 가득한 미래를 주도할 것을 다짐한다.

이어 복지재단은 2024년 한해 국제적 관심을 이끈 저출산 대책 사업 '나는 절로'를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계획이다. 이제까지 '나는 절로'가 수도권 참가자 위주였다면, 2025년에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2025년에는 전국교구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청년들을 모집해 더욱 다채로운 '나는 절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본격화'

12월 24일, 중앙종회 연석회의서
특별법 저지 대책위 구성 결의해
대책위원장 종회의장 주경 스님
위원에 부·실장스님 등 참여해
법안 저지 요구문 발송 계획도
1월 2일 상임위 회의로 내용 확정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대응조직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68(2024)년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대응조직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부의장 경암 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사회분과위원장 진각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 9명이 참석했다. 또한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대책위원회는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위원장으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총무원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대책위원진에 추천됐다.

대책위원회의 대응 실무는 상임위원회 스님들과 실무팀이 담당한다.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상임위원회에는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위 위원장, 간사 △종교평화위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사회부장 △포교부장 스님들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와 실질적인 소통을 담당할 실무팀에는 △총무차장 △기획차장 △사회차장 △포교차장 △대외협력팀장 △홍보팀장 △중앙종회사무처 팀장 등이 참여한다.

대책위원회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상정 저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대책위원회 명의로 국회에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반대 공문을 보낸 후 국회 측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곧 바로 대책위를 확대 조직할 것"이라며 "확대될 대책위는 포교사단, 신도단체 등이 포함된 '범불교 대책위원회'로 출·재가 불자 모두가 합심해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심우 스님은 "종교 행사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국민 혈세로 항구적인 지원을 한다는 법안은 종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특별법 반대 공문에는 '세계청년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이 가진 법률적 부당함과 통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회의를 열고 국회에 송달할 공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법률자문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 위헌 요소, 특별법 저지 요구 등이 포함된다. 공문은 1월 첫째주에 국회 발송 예정이다.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선출

126차 이사회서 만장일치



재단법인 불교방송 제9대 이사장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126차 회의를 열고 덕문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에 수불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선출 직후 수불 스님은 "불교와 BBS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사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덕문 스님의 이사 후임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임기가 만료된 도진 정사의 이사 후임으로 진각종 포교부장 원영 정사를 선임했다. 재가 이사인 노부호·박찬국 이사의 재선임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중일 기자

혜거 대종사 49재 엄수…"화엄세상 구현"

12월 22일, 평창 월정사 적광전
화엄경 소론찬요 22 · 23권 봉정
헌향 · 헌다로 추모…300명 동참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헌화로 혜거 대종사를 추모하고 있다.

"스님, 지금은 여여(如如)하십니까."

하얀 눈으로 온통 뒤덮인 오대산. 물소리도, 새소리도 멈춘 산사는 혜거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듯 고요 속에 잠겼고, 오직 스님과 불자들의 염불소리만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은 혜거 대종사를 이어 '화엄세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불교경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역경불사에 매진하고 강남 도심 포교를 이끌며 전법에 매진한 여산당 혜거 대종사의 49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에서 엄수됐다.

49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 월정사 회주 현해 대종사, 월정사 선덕 각수·삼보·원행 스님, 주지 정념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상좌 대표 무애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과 탄허불교문화재단, 금강선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정사 무이 스님과 혜안 스님의 집전으로 49재가 거행되는 동안 동참대중은 헌화와 헌다를 한 뒤 삼배를 올리며 혜거 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했다.

앞서 혜거 대종사의 화엄경 소론찬요 22·23권 봉정식도 봉행했다. 전 26권 발간을 목표로 했으나, 5권을 남기고 대종사는 원적에 들었다. 이에 상좌 스님들은 혜거 대종사의 49재에 맞춰 22권과 23권을 발간했고, 2025년 탄허 스님 열반일(음력 4월 24일)에 맞춰 나머지 3권도 추가 발간해, 전권 발간을 마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 지 성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30돌 현대불교 "뉴미디어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특집 화보

글=김가령 기자 ·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현대불교신문은 교계 언론 중 최초로 불교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를 개설해 선도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AI시대를 맞아 새로운 불법 홍포의 장을 여는 뉴미디어 언론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1994년 창립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불법 홍포에 앞서온 현대불교신문이 30살 청년이 됐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다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뉴미디어 불교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했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 발행인 혜도 스님)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창간 30돌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을 축하하는 동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서
총무원장 스님 등 300여 명 참석
30년 史 회고, 발전 공로자 시상도

시에 새로운 불교언론지로 재도약함을 알리는 자리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총무원 주요 소임자 스님과 각 종단 대표, 한마음선원 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모여 현대불교신문의 3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개회사와 한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환영사 △30년 역사 영상 시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치사 △축사와 축하 영상 △공로패 시상 △비전선포식과 축하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30돌을 축하하는 내빈들에 환영 인사를 전했다. 혜수 스님은 "30년 전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문을 연 현대불교신문은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든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현대불교신문 30돌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의 응원에 힘 입어 임직원과 함께 더욱 성장하는 신행·포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 미디어 포교의 중심이 되길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은 종단과 전국 사찰들의 소식, 생생한 신행·포교 현장을 독자들에 전하며 한국

▶A5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발행인 혜도 스님, 대표 한명우)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운 불교언론지로 재도약함을 알리는 자리였다. 사진은 행사 후 기념 사진 모습.


치사하는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축사하는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축사하는 법명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축사하는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방명록에 축하메시지 전하는 일면 스님(생명나눔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海耕,雲岩,知足,智巖,修庵,圓默,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玄虎,錦明,道光,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月峰,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始覺
首席副議長 法輪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導鶴
副院長 瑞虎
委員 惺應,晩愚,六和,松憲,淸虎,慧學,智峰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杲峰
委員 古潭,哲悟,蓮虛,曉門,晩松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九山
副委員長 智海
委員 法一,智勤,寶月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能解
總務部長 道惺
敎務部長 正眼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圓悟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道輝
弘報部長 呑默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心圓

宗正禮敬室長 東虛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正雲
社會福祉院長 聖海
副院長 鏡月
佛敎文藝院長 智虛
副院長 六和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淸湖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龜巖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振話
全國信徒會
靑年會長 李承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참신한 콘텐츠로 미디어 포교 선봉장 되어 달라”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서 동참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모시고 있다.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이 환영사하는 모습.



혜도 스님(현대불교신문 발행인)이 내빈에게 인사하는 모습.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가 비전선포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공로패를 받은 김영숙 현대불교신문 후원회장(우측).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OB들이 모였다.

▶A4면에서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왔다. 현대불교신문의 사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는 현재 한국불교가 지고 갈 화두”라며 “이제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이 사시를 다시 되새기며 참신한 콘텐츠를 선보여 미디어 포교의 선봉장이 돼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한명우 대표의 비전선포식이었다. 한 대표는 “바야흐로 AI시대를 맞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종이신문의 끝이 도래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새로운 미디어 언론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싶다”는 말로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AI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불교 언론에 접목시키겠다고 선포하고 ‘뉴미디어 불교 언론’ 자문위원회를 소개했다.

현대불교신문 뉴미디어 자문 위원회에는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강재원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

한명우 대표, 미래 비전 발표 진행
“뉴미디어 신행 · 포교지 거듭” 다짐
출 · 재가자 5인 자문위원단 소개도

박훈 불교언론문화상 코디네이터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대불교신문이 가진 신행·포교지라는 성격을 뉴미디어를 통해 성장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어느 시인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서른, 잔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앞으로 현대불교신문이 선보일 행보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기념식에 모인 사부대중은 비전선포를 마친 한 대표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나아갈 앞날을 응원했다.

기념식의 마무리에서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역사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신행·포교의 장이자 수행처”라며 “앞으로도 사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불교언론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로패 시상식도 진행됐다. 공로자들은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초대 사장,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초대 편집국장, 김영숙·변융태 후원자들이다. 이들은 현대불교신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운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 받았다.

총 인 덕 일

통 리 원 장 능 원
종의회의장 증 혜
현 정 원 장 대 원
교 육 원 장 정 법
총금강회장 정 명

새로이 출범하는 제32대 집행부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전화 (02)913-0751~4 | 팩스 (02)913-0755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2025 乙巳年

謹賀新年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
大韓佛教天台宗
종 정 김도용 대종사

"을사년(乙巳年)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불광이 가득하소서"

천태종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http://cheontae.org

을사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디지털 세상도 불국토로 만들어 갑시다!!

휴대폰 카메라를 연꽃에 클로즈업하면 가상세계로 이동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을사년 새해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지성 대종사 통리원장 록경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법일 정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 청 스님

사부대중 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128
전화 041)832-1188 www.miamsa.com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이 사 장 경원
명예이사장 일명
부 이 사 장 경담
상 임 이 사 오원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 정 대륜
총무원장 혜일
종정비서실장 지명

원로회의
원 로 의 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경원 승원

중앙종회
종 회 의 장 도정
종회부의장
종회사무처장
종 회 의 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 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 계 원 장 동청
교 육 원 장 지언
포 교 원 장 지명
문 화 원 장 제법
고 시 위 원 장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감 사 원 장 법광
포교부원장 덕산
문화부원장 해동
총 무 부 장 혜광
교 무 부 장 덕운
총 무 국 장 보륜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남교구 덕 운
대구교구 무상심
울산교구 현 산
전북 · 전남교구 지 명
제주교구 제 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세상은 나와 한 뿌리…보살의 삶을 사십시오”

데스크 초대석

관음종 제9세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

글=신중일 기자, 사진=김민재 기자



영산 홍파 대종사는…194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61년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멤버로 활동했으며, 1965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3대 회장을 지냈다. 청담, 성철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기도 한 스님은 1967년 대불련 군승촉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활동했으며, 198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아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종단협 사무총장 당시 북경회담, 종단협 금강산 순례, 서울 봉은사 3 · 1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평양 광법사 8 · 15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등 남북불교 교류행사의 원만 회향에 진력했다. 현재는 관음종 제9세 종정으로 후학을 제접하고 있다.

관음종은 올해로 창종 60주년을 맞는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환갑으로 다시 태어난 해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이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관음종의 중심에는 제9세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가 있다.

관음종은 태허 조사가 개산한 이래 대중교화 종단으로 현대 한국불교의 한축을 담당했다. 홍파 스님에게 태허 조사는 불연(佛緣)으로는 개산조이자 은사이며, 세연(世緣)으로는 부친이다.

한국전쟁 직후 모든 사람이 궁핍했던 시기 태허 조사는 종로 파고다 공원(현 탑골 공원)에서 대중들에게 1958년부터 1960년까지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리 설법을 했다. 거리 설법을 마친 이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대중을 만나 설법하고 포교했다. 1961년에는 동양방송 라디오에서 신행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스승 태허 조사의 원력을 홍파 스님도 제자로서 이어냈다. 홍파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61년 5월 태허 조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 63학번으로 입학한 홍파 스님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창립 멤버를 시작으로, 1965년 대불련 제3대 회장을 맡아 캠퍼스 포교 진흥을 이끌었다. 대불련 군승촉진위원회 지도간사장을 맡아 군승제도 정착을 이끈 것도 홍파 스님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홍파 스님은 학승으로서 교직에 남아 후학 양성에 매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되돌린 것이 태허 조사다. 태허 조사는 홍파 스님에게 “교수 생활하지 말고, 포교사의 삶을 살아라. 불교를 전법하고 홍포하는 일로 평생을 살아라”고 독려했다. 태허 조사의 권선은 홍파 스님의 지남(指南)이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파 스님은 1980년대 들어서 자비야학-대불련-사찰 간의 결연을 맺는 ‘대불련 사원화’ 운동을 펼쳤다. 전국 규모의 야학운동을 전개했기에 스님은 좌경세력으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200자 원고지 한 권에 자술서를 쓰라는 경찰의 말에 홍파 스님은 간략한 인생사를 적은 후 “쓸게 없다”며 ‘아리랑’ 가사를 적어내는 결기도 내보였다.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 국제 포교와 동북아 불교 연대 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맡아 한국불교 발전과 국제 포교 사업을 총괄했다. 특히 한중일불교교류협의회 출범에 있어 홍파 스님은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태허 조사 열반 직후인 1979년 관음종 종무원장을 맡은 홍파 스님은 1988년 종단 총무원장(재단 이사장 겸임)에 취임해 2022년 종정 추대 전까지 종단 수장으로서 관음종 발전을 이끌었다. 총무원장 취임 당시 75개였던 종단 사찰은 현재는 300여 개로 늘어났고, 법인 소속 사찰도 전체 사찰의 10%에 달한다.

2022년 종단 제9세 종정으로 추대된 홍파 스님은 종로 낙산묘각사에 주석하며 후학들을 제접하고, 대중교화에 여념이 없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새해, 거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바른길을 인도했던 태허 조사의 법을 이은 홍파 스님에게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다음은 홍파 스님과의 일문일답.

기후위기 등 문제, 이기심 기반해 세상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 항상 겸손하고 검박한 생활하길

권력에 빠진 정치인들 향한 조언 “영원한 것은 없으니 내려놓아라 새해엔 템플스테이라도 다녀오길”

2025년 관음종 창종 60주년 맞아 태허 조사 유훈 기리는 행사 마련 가사집 ‘인생탈춤’ 공연 제작 계획 “파고다 공원서 거리설법 설하신 태허조사 애민정신, 후학 상기해야”



Q. 종정스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A. 관음종 총무원장을 34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30년 간 지냈습니다. 종단의 성장과 발전, 한·중·일 불교 우호 사업 등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의 커다른 흐름을 함께하면서 미력하지만은 수행 행자 노릇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종단 종정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저는 늘 그랬듯이 초발심의 행자처럼 살아갑니다. 〈천수경〉 ‘도량찬’에 ‘도량청정무하예(道場淸淨無瑕濊)’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량이 청정하면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진다’는 의미죠.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도량을 윤력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잘해야 후학들도 잘하는 법이니까요.

Q. 지난해 9월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가 봉행됐습니다. ‘백화산 도인’이라고도 불리셨던 태허 조사는 어떤 선지식이셨는지 술회해 주신다면.

A. 한국의 근현대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에 이어 6·25한국전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이런 시기 태허 조사는 경북 백화산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중 서울이 수복되자 조사스님은 상경하셨고, 전쟁의 참상을 목도했습니다.

수행자로서 선방에만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조사스님은 후학들에게 “우리 수행자는 일반 신도나 속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설파하며 대중교화에 나섰습니다. 1958년부터 2년 동안 매일 오전 10시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종로3가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국 오일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전하셨습니다. 태허 조사는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신념을 수행하는 ‘행자’로서 삶을 사신 선지식이십니다.

Q. 태허 조사의 전법 원력은 지금 한국불교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클 것 같습니다. 태허 조사의 전법행에 대해 후학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A. 태허 조사께서 하신 설법의 중심에는 보국(保國)과 애민(愛民)에 있습니다. 태허 조사는 불자들에게 “나라를 위해서는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은 눈(지혜)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후학들에게는 자나깨나 부처님을 생각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사스님은 늘 “스님들은 항상 부처를 생각하고, 불법을 말하며, 이 사회와 대중을 위해 행동하라”며 사람들의 눈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행자로 살아갈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불자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하신 태허 조사의 유훈을 우리 후학들은 잊지 말고 새겨야 합니다.

Q. 관음종의 소의경전은 〈법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법화경〉을 어려운 경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이 어떤 경전인지 불자들에 소개해주신다면.

A. 팔만대장경 중에 3대 대승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입니다. 〈금강경〉의 자수(字數)는 5000여 자 정도고, 〈화엄경〉은 10조9만5048자이며, 〈법화경〉은 6만9384자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화엄경〉은 총체적인 부처님 사상을 담았고, 〈금강경〉은 반야지혜를 닦는 수행경전이죠. 〈법화경〉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팔만대장경을 한군데 모아 절구로 찧어서 채로 건져 먹기 좋게 만든 경전입니다.

〈법화경〉은 보살불교를 대중에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열어서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 〈법화경〉 방편품2에 나와있어요. 중생들에게 지혜로운 것을 보여주고 깨달음에 이르러 훗날 부처의 세계로 함께 가자는 것을 〈법화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비롯한 10대 제자들, 그밖의 제자들까지 모두 부처의 수기를 내립니다. 〈법화경〉은 깨달음의 경전입니다.

Q. 불자들이 새해를 맞아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며 독송해야 할까요.

A. 〈법화경〉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원실성(久遠實成)’ 사문, 즉 오랜 옛날에 깨달으신 부처님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열반은 중생을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참된 깨달음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같은 구원실성의 법신불은 누구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여래장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법화경〉은 일깨워 줍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기에 깨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이죠. 새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며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볼 것을 권선드립니다.

Q. 2025년(불기 2569년)은 관음종 창종 60주년을 맞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기념사업 계획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태허 조사의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조사스님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사스님이 저술한 가사집 〈인생탈춤〉을 작품으로 만들어보려 합니다. 10월 중 중국, 일본, 베트남 불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립극장에 대관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 역시 각계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해를 맞는 국민과 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하나를 소개해주십시오.

A. 〈벽암록〉에는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 만물여아일체(萬物與我一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한 뿌리이며, 모든 존재는 나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경구입니다.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내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불자들은 겸손하고 검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야지혜와 자비심을 갖고 이웃과 함께 사는 보살의 삶, 대승불교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Q. 위정자들에게도 경책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합니다. 이는 모두 탐진치 삼독에 매몰돼 나타난 결과입니다. 권력이라는 늪에 빠져있다 보니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하지만, 결과를 보면 잘 의식을 안하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정치인들이 제행무상, 제법무아임을 알고 스스로를 좀 내려놨으면 합니다.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것을 권합니다.

Q. 현대불교신문 독자를 위한 짧은 법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이러한 인연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순고하고 고귀하게 받아들여서 더더욱 열심히 주어진 사찰이나 주어진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두 열심히 수행정진합시다. 성불하십시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미래를 여는 포교 세계를 이끄는 불교"

(사)대한불교총화종

불기2569(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축원하며 모든 불자님들과 사부대중들께서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하오며, (사)대한불교총화종은 현대불교, 생활불교 구현과 불교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대한불교총화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각 합장

(사)대한불교총화종 이사회·중앙종회·임원 일동

총본산(총무원)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전화 (043)745-4508 팩스 (043)745-4506 www.chonghwajong.org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총무원장 해불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사회부장 도일
규정부장 조영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혜인
교리연구원장 남륜
수선원장 응진
사정부원장 성우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묘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경북·대구 종무원장 지화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충남 종무원장 성현
충북 종무원장 정연
강원 종무원장 도광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부종정 법천 덕일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진 각

연수원장 법진 포교원장 법현 교육원장 진산 고시원장 진공
강원종무원장 영명 서울종무원장 감우 경기동부총무원장 진응
경기서부종무국장 보성 충청종무원장 진산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총무원장 진성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제봉 재무부장 공민 연화부장 정혜
호법부장 지안 규정부장 진성

총본산 : 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85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96번길 62-12 천지암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財)韓國佛教 如來宗

총무원장 명안(총본산 회주)

원로원장 석산 종회의장 일연

행정부원장 혜안 (성남 약사사 주지)
포교부원장 무극 (용인 구만사 주지)
교육부원장 혜광 (제천 도원사 주지)
호법부원장 도혜 (횡성 여래사 주지)

전국 인왕 문도회장 묘선 (영월 천운사사 주지)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 1길 28-1 전화 043-731-2261



(사)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총무원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3(상계동, 도선사) 전화 02)2091-0408

2025 신년 필진들

현대불교신문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강화했다. 불교문화유산·불교미학·미디어비평 등 대중성에 기반한 신규연재들을 새로 선보인다. 신년 신규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쓴 선명상 게송과 풀이를 현대불교신문 지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깊은 사유를 담고 있는 게송과 수려한 문체로 알기 쉽게 풀어쓴 풀이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울림을 가져다준다.

매주 1~2편 씩 수록될 선명상 게송을 화두로 한 주간 선명상을 수행해볼 것도 독자들에게 권한다.

또한, 연재에 수록하는 삽화는 진우 스님의 선명상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한 것으로, 앞으로 신문 제작에도 A.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선명상 대중화'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온 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그녀, 붓다를 만나다'에서는 나와 우리,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불교미술품을 발원하고 그 공덕을 회향했던 여성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한다. 시대가 정해 놓은 한계를 벗어나, 붓다의 딸로서 살고자 했던 옛 여성들의 의지와 간절한 마음을 찬연하게 빛나는 불교 미술품 속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승혜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큐레이터는 2024년에 동아시아 불교미술 속 여성의 자리를 재조명한 특별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기획자다.

이일야의 '시, 불교를 만나다'



시(詩)의 한자는 말씀·언어(言)과 사찰(寺)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를 풀이하면 시는 '사찰의 언어'가 되겠다. 함축된 시어 속에는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학과 사유 등이 오롯이 담겼다.

동화, 가요에서 불교적 의미를 찾았던 이일야 전북불교대학장이 이번에는 우리 문학, 그 중 시 속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조명한다. 인문학의 근본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의 시선에서 성찰한다.

이일야 학장은 전북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전북대, 전주교대에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등을 강의했다.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로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장보배의 '스물네 번의 계절'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춘분점을 시작으로 15°씩 점을 찍어나가면, 우리가 사는 지구별은 연중 24번의 새로운 계절과 만난다. 자연의 모습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세상의 이치를 전하는 24절기의 신비로움.

'스물네 번의 계절'은 보름마다 찾아오는 새로운 절기를 따라, 방방곡곡 발길 닿는 곳의 풍경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한다.

장보배 작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템플스테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한국의 불교 문화유산과 사찰음식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산사 풍경을 발견하고 기록한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걷기 자체가 각광 받는 오늘, '동국대 통' 서정원 박사가 교정을 걸으며 시선이 멈추는 곳들을 소개한다. 불교를 탄압한 이조의 궁궐을 뜯어다 지은 정각원, 왜색불교를 거부한 만해 비석, 불교 이름으로 독재를 타도하고자 한 4·19동우탑 등 120년 세월 불교의 다양한 면을 품어온 동국대. 동국대에 남아 있는 불교란, 불교가 힘겹게 지나온 세월의 돌발적 흔적에 가깝다는 서정원 박사. 불교 수장고인 동국대 교정을 한 바퀴 산책하며 필자와 독자 사이 진주목걸이를 일 년 동안 꿰어본다. 서 박사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법화경〉의 미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와 한림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임종섭 약사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건강정보 홍수의 시대. 대중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기 일쑤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약 정보를 솔직 담백하게 전달받는 방법은 없을까?

20여 년간 약사로 활동해 온 임종섭 약사가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칼럼리스트로 나섰다. 다양한 약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투약법, 효능과 효과, 주의할 점 등 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섭 약사는 울산 희망약국 대표약사이자 울산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참약사 울산지부장을 맡고 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K드라마는 K팝과 함께 한류 대표 콘텐츠다. 다채로운 소재로 맛깔나는 서사를 펼치는 드라마를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한 불교적 미디어 비평 연구를 해왔다. 관련 논문으로는 '불교영화의 불교 가치 구현을 위한 비판적 고찰(2013)' 등이 있다. 최 연구원은 올 한해 K드라마 속 불교를 살핀다. "맥락없이 전개되는 드라마를 막장이라고 한다. 적어도 불교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최 연구원은 자비, 연민, 이타 등 키워드로 드라마를 살필 예정이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삼계교는 중국의 수·당 시기에 말법시대라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신행(信行, 540~594년)에 의해서 창시된 새로운 종파불교를 말한다. 삼계교는 실로 중국불교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민중을 위한 혁신불교였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에 끼친 영향력도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삼계교의 소의경전이 〈지장십륜경〉이다.

동국대 WISE캠퍼스 선학과 겸임교수와 조계종 교육아사리를 역임한 경주 송림사 주지 법공 스님은 오랫동안 삼계교 연구에 천착해 온 학승이다. 법공 스님은 〈지장십륜경〉의 내용과 전파 과정을 불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현대불교신문에서 〈깨달음의 미학〉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불화 속 스토리텔링〉 등 불교미술 관련 연재를 해왔던 불교미술사학자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수행칼럼을 연재한다. 부처님께서 설한 수행법을 이론과 실참을 통해 소개한다. 또한, 수행 체험 '이미지(도상)'를 생성형 A.I를 통해 함께 게재 예정이다.

강 교수는 문화유산학 전공학자로, 사마타와 위빠사나도 15년간 수련했다. 수행하며 만난 깨달음의 세계가 불교경전과 미술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체득했다. 불교 진리가 무엇인지, '이론과 미술'을 겸비한 명쾌한 해설로 강단에 서고 있다.

신규 오피니언 필진



허남결 명예교수



김응철 교수

2025년 신규 오피니언 필진으로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와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는 윤리학자로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주창했던 공리주의에 대해 오랜 기간 천착했다. 불교학부로 자리를 옮기 뒤에는 불교와 공리주의의 접점을 모색했으며, 불교윤리학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저서 및 역서로 〈불교윤리학 입문〉 〈윤리적 삶의 이해〉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밀의 공리주의: 덕과 공리성의 만남〉 등이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30여 년간 포교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포교 전문가다. 최근에는 문화와 수행을 결합한 문화치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BTN불교TV에서 〈부처님 직제자들의 포교이야기〉를 화상으로 강의하고, 불교라디오 BBS에서 〈무명을 밝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부처님 직제자들의 수행과 포교 이야기〉 〈둥근 깨달음 천수경〉 〈재가불자가 되는 길〉 등이 있다.

현대불교신문 신규 연재

현대불교신문은 2025년 새해를 맞아 기자들의 전문 연재도 강화합니다.

가장 먼저, 불자들의 생생한 수행담과 미담을 전했던 인터뷰였던 '여기는 화엄만다라'가 다시 부활합니다. 불교 수행과 예술, 사회실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불자들을 지면을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자치를 실현중입니다. 새롭게 연재되는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를 통해서는 전국 교구에서 이뤄지는 포교, 복지, 사회 등의 사업들 생생히 조명하려 합니다.

광복8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은 '조선물산공진회와 성보문화유산'을 연재합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자신들의 5년 간의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자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를 개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광복 80주년과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110년을 맞아 이번 연재를 통해 성보문화유산의 유출 역사를 되짚고, 환수의 당위성을 살피려 합니다.

전국에 산재된 불교계 복지관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연재 '자비 24-불교복지 현장'은 불교계 산하 전국의 복지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려 합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 사회복지법인 修德
-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직 지 사 문 장 황산 혜창
직 지 사 회 주 신산 법성
직지사승려복지 회장 웅산 법등
직지사승가운영위원장 종화 도진
직지사천불선원장 의성
직 지 사 주 지 장명

사부대중일동



주소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전화 054)429-1700~3, 429-1713~15 팩스 054)436-3174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ALGONG CHONGLIM DONGHWASA

방 장 임담 의현
주 지 혜 정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금산 도영
회 주 취산 도법
주 지 지문 화평
부주지 덕림

기 획 응묵
교 무 해안
사 회 도헌
재 무 여찬

포 교 효진
호 법 우림
문화과장 법자
신도회장 한광수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 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반야스터디 카페
  - 갤러리 리유 – 담마 북까페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조실 · 원로의원 **삼이 우경**
회 주 **탄해 혜민**
주 지 **무소 허운**
교구 · 본사 신도회장 **백련화**(김문자)
화주단 도화주 **관음행**(양정임)

제23교구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
☎ (064)724-6830 Fax (064)756-2202 www.jejugwaneumsa.or.kr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예비 군승 요원 모집 안내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 · 해 · 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 포교에 진력할 남 · 여 예비 군승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조계종 승적을 소지한 스님 (예비 승적 포함)
  –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 당해 연도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특별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특별교구 교육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02-797-7266 (군종특별교구 종무실/교육팀장)

"군종특별교구에서는 역량을 갖춘 군승 요원을 국방부에 파송하기 위해 예비 군승 요원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습니다."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 산**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謹賀新年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 모든 만물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대중일동**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교육원장 일 초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다문화 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화엄종약사사장학회 이사장 화 응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봉
종정예하 예경실장 정해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효

원로원장 월서　원로원부원장 일각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사정원장 혜광　문화원장 혜일
호법원장 관호　고시원장 혜신
수선원장 해륜　복지원장 법영
보건원장 정일　비구니원장 법신
비구니원 상임고문 지연　비구니원 수석고문 해안
비구니부원장 능현

중앙 종회의 장 법화　중앙 종회사무총장 현우

[각 지역 교구원장]
서울특별시 교구원장 정심(서원암)
부산광역시 교구원장 해안(법정사)
대전광역시 교구원장 법신(내원암)
대구광역시 교구원장 정일(광원사)
울산광역시 교구원장 능현(옥련암)
창원시 교구원장 하연(만월정사)
당진시 교구원장 법성(유향사)
경기북부 교구원장 현수(여래사)
충청남도 교구원장 혜진(천본사)
충청북도 교구원장 자오(덕성암)
경상남도 교구원장 관호(관호사)
경상북도 교구원장 정암(정암사)
전라북도 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라남도 교구원장 혜신(남해사)

(사)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 안내문

◇ 구비서류:법복(가사+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수행이력서 1통, 소정의 입종비
◇ 교부서류: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사찰 등록증,승려증,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신도 년말정산 기부증서

총무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일성사) 전화 (042)935-2279 fax (042)935-2279
HP 010-3550-5153(총무원장 직통), 010-7547-2149(총무원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종　정 경보 혜만　총무원장 대풍 범각

원로원장 법우
원로회의의장 성도
승정원장 도신
사정원장 도경
중앙종의회의장 도정
비구니회장 대연
비구니회부회장 송하
비구니회부회장 수현
비구니회사무부장 지아

중앙교육원장 도현
중앙포교원장 법안
국제포교원장 도청
불교문화원장 덕운
불교예술원장 월수
중앙염불원장 해진
염불교육원장 정문
중앙연수원장 원각
정수원장 덕우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덕광
사회부장 덕법
호법부장 도형
포교부장 청명
상임감찰 무현, 향원
총무국장 향법
사무국장 김성한
중앙정책위원장 마병진
법률자문위원장 김광준



중앙총무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대표전화 : 055)352-3104
부산총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417호 대표전화 : 051)892-5000/Fax : 051)462-6652

청년불교, 재중불교, 한글불교

재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　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법인　종정사서부실장 정오, 송담

원로위원 : 금광 금강 덕산 공덕 보리 청담 승공 담원 혜철

원로원장 : 법공　종회의장 : 도원　총무원장 : 대호
사정원장 : 혜담　포교원장 : 정오　유천도원장 : 지완
교육원장 : 대륜　비구니회장 : 보원　불무도원장 : 보각
법사단장 : 대공　학술원장 : 운곡　사무총장 : 자륜

총무부장 : 송담　총무국장 : 지명　교무부장 : 동진　교무국장 : 덕일
재무부장 : 도경　재무국장 : 도현　교육부장 : 인봉　교육국장 : 도운
기획부장 : 청봉　기획국장 : 법봉　사회부장 : 송인　사회국장 : 혜안
규정부장 : 해원　규정국장 : 중광　포교부장 : 보광　포교국장 : 용성
홍보부장 : 송하　홍보국장 : 대향　문화부장 : 지홍　문화국장 : 서진
의전부장 : 은산　의전국장 : 선재　봉사부장 : 법수　봉사국장 : 명진

총무원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433번 가길 82-3(주례동 낙은사) 전화 051)322-5918, 312-3777
이메일 jalun2545@daum.net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네 불성이 본불이니 마음을 통하여 닿아 이를지니라

황매산법연사 055.932.8811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공원길 62-1

부산본원 연정사 051.868.773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50

서울1교구 무량사 02.3462.3337
서울2교구 미묘사 02.2619.7733
강원교구 덕수사 033.256.2480
경기교구 정수사 031.213.1935
충청교구 계룡사 042.486.9971

경북교구 대덕사 054.452.8166
대구교구 법황사 053.253.7733
부산2교구 법륜사 051.203.8833
경남교구 김해사 055.326.7050
호남교구 연성사 062.223.0351

대한불교법연종

새봄, 봄꽃 향기 더욱 그윽하리니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예하



영축산 아래 장밭들의 보리싹은 찬바람에도 푸르고, 보경호의 맑은 물에는 영축산의 모습이 드리웠도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쳐도 산천의 초목은 힘차게 솟아오를 봄소식을 준비하도다.

대중이 모여서 도량마다 삼동결제를 하고, 理事(이사)가 화합하며 정진하니 화두가 타파되고 출격장부가 배출되며 그 서늘한 기상은 火宅(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고,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감로를 베풀어 주도다.

自性淸淨心(자성청정심)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니 예토는 정토가 되고, 모두에게 본래 청정하고 구족한 한마음이 현전하니 여래의 지혜 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온갖 재앙은 저절로 소멸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모두가 한 몸임을 자각하게 되었도다.

삼동 찬바람에도 새봄을 준비하는 보리싹처럼 곳곳에서 찬란한 새봄을 준비하니 봄꽃 향기는 더욱 그윽하고 꽃잎은 더욱 선명할 것이로다.

激石灘聲如戰鼓(격석탄성여전고)하고
飜天浪色似銀山(번천낭색사은산)이로다.
灘驚浪打風兼雨(탄경랑타풍겸우)나
獨立亭亭意愈閑(독립정정의유한)이로다.

여울의 바위 치는 물소리는 전쟁터 북소리 같고
하늘을 뒤덮은 물보라 은산과 같네.
여울의 파도는 바람과 비를 함께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은 오히려 한가롭네.

마음 등불 밝혀 원력을 세워라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예하



언제 어느 곳이나 두루한
부처님의 설법을
가슴 깊이 느끼며
바른 진리 기쁘게 받아 지니어
금생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크나큰 원력을 세워야 하리라.

만중생의 행복과 국운의 융창을
일심으로 발원하니 가피가 함께 하여
원만 성취의 문이 열립니다.

욕망이 향하는 바는 모두 꿈이요
환이며, 물거품이니
그림자를 잡으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자루 촛불이
본래 없던 어둠을 몰아내듯

무명 번뇌 속에 한 조각 착한 마음
그 자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마의 궁전을 적멸의 도량으로 빛냅니다.

가야 할 길은 오직 해탈 성불이니
일심 청정 정진하는 가운데
공덕이 함께 하며
만사형통의 서기가 비치리라.

"만다라세상을 구현합시다"

덕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의 크고 붉은 태양은 만다라세상의 중심인 대일여래 비로자나불의 활동상인 양, 우리 사는 세상을 장엄하고 밝게 비춥니다.

종단이든 세속이든, 안락하고 진취적인 생활의 원동력은 화합입니다. 섬김은 하심이자 존중하는 자세이며,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소통은 상호존중하는 섬김의 선물이며, 화합은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산물입니다. 섬기고 소통하고 화합하면 모두가 꽃이 되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섬김은 부조하고 공양하고 예참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여 섬기면 상대가 이해하고 소통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예경의 세상이 열리고, 모순과 대립의 사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안락정토로 승화합니다. 새해에는 너와 내가 심인을 품은 여래로서 섬기기에 더욱 정진하고 서원합시다.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모든 가정이 원만하며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국제사회가 널리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새해에는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만다라세상의 구현을 서원합시다.

만다라세상은 법열로 넘칩니다. 다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금강무보살이 되어 섬김의 춤을 춥시다.

다함께 입에 입을 모아 금강가보살이 되어 소통의 노래를 부릅시다.

다함께 마음과 마음을 통해 금강화보살이 되어 화합의 꽃을 피웁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산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예하



사람들은 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지 과거사는 흘러갔고 미래사는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항상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치우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중도(中道)로 가라하신 말씀을 놓지 말고 멀리 관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정진하며 자기를 바로 봅시다. 믿는 것도 나(자신)요, 믿을 대상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입니다.

인적 없는 방에서 듣는 빗방울 소리(虛堂雨滴聲)
작가 선지식도 답하기 어렵구려.(作者難酬對)
알아차린 사람이라면(若謂曾入流)
그저 몰라야 하리라.(依前還不會)
모르는 줄도 모르니(曾不會)
남산 북산 갈수록 세찬 비가 쏟아지네.(南山北山轉滂霈)

"이 순간, 불자 본분을 다하라"

운경 대종사
태고종 종정예하



대한민국 국민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태고종도 여러분!

새로운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선포에 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법어를 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깊어져 나라와 민족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중략〉

우리 불자들은 첫째,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둘째,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화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자비심으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이상기후와 각종 분쟁 등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수행과 성찰(省察)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불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는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국도생 창종정신 필요합니다"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종령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한국전쟁을 겪으신 직후 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있어야 내가 생존하지 않는가. 한쪽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작은 굴레에 스스로 갇힌 소아에서 일체중생을 위해 자기 굴레를 넘어선 대아로 나아가는 것이 곧 대승의 길이다.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일에 봉사하기 위해 자기를 닦아가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현세를 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워야 한다." 이후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구국도생의 대비원으로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큰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해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자비의 법등을 밝혀 평안과 화합으로 정진하여 국론화합과 경제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하략〉

끝으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원력으로 불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종단	원로	종	우	원	장	덕	민
주	지	종	천	부주지		정	문
부주지		성	행	총	무	성	제
교	무	정	수	재	무	성	심
포	교	성	요	사	회	성	주
호	법	명	강	신도회장		이영숙	

▪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유치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어린이집
불국사템플스테이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746-1476

화쟁 통한 소통, 공동체 번영 지킨다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한 줄기 등불은 천년의 어둠을 한 순간에 없애고 지혜의 참다움은 만년의 어리석음을 찰나에 제거합니다. 을사년 신년 첫날에 떠오르는 밝은 해는 지난 날의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일시에 없애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는 남북 분단 속에서 동서 그리고 상하(上下)와 좌우, 신구(新舊)라는 분별심으로 인하여 그 갈등의 임계치는 극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하고 함께 가야 할 옳음(義)이라는 방향성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利)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중첩에 중첩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사분오열되는 원인 제공에는 설사 평범한 갑남을녀(甲男乙女)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안(案)은 소통이라는 통로의 확보입니다. 공생(共生)을 위한 통합의 길은 제3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서로서로 화쟁(和諍)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그 길을 가꾸어 나갈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통로는 백가(百家)의 이견(異見)을 일가(一家)의 동견(同見)으로 만들 수 있는 신묘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화쟁을 향한 소통의 길만이 오천 년 공동체의 터전과 번영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치를 필두로 사회적 전 영역에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평화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명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서 K-선명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불교박람회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진수와 세대 간에 화합의 방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축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고 세계인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역동성을 알리면서 지구공동체가 화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달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사바세계 방방곡곡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거듭 청(請)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툼은 그치고 어울림으로 함께 사는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사부대중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천공해(百川共海)요
만상일천(萬像一天)이로다
백천의 강물은 바다에서 함께 하고
만가지 모습은 하늘에서 하나가 되도다

'나' 내려놓고 본분 충실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지난 해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불·보살님의 동체대비심이 가득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중생이 온갖 욕망에 빠져 미혹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집착, 즉 '아상(我相)'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다'는 잘못된 생각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나'를 내려놓읍시다. 나를 내려놓으면 교만은 저절로 사라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은 맑고 향기롭게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참된 불자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가 수행에 매진해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착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상을 '허공과 같이 어떤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연못에서 피지만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 전 국민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두가 본분에 충실하면 내면의 평화가 씨앗이 되어 사회의 긴장과 불안, 갈등 과 대립은 저절로 해소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생과 통합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 평화가 깃들고 인류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을사년이 되길 다함께 축원합니다.

변화 실감하며 서원 정진

능원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을사년(乙巳年)입니다.
새해 새날을 새롭게 맞이합시다.
다시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길을 열어갑시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새날이 열리면서 대일(大日)의 밝은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니 온 누리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慈悲光明)으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면 매일 매일 희망이 샘솟는 새날처럼 살 수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시대 눈부신 기술의 변화와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의 생태계에서는 한치 앞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 자리,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면서 상생을 위한 인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변화를 실감하면서 서원하고 정진하여 다 같이 잘 사는 만다라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께서는 불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선량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곧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자성을 닦으며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은 안에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32대 집행부는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여는 정신으로 안팎을 두루 살피면서 마중물과 같은 종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재원을 확충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스템화하겠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심인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져 밀엄정토가 구현되고 온 인류에 복지(福智)가 구족(具足)되기를 서원합니다.

내려놓음으로 더 큰 희망 키워라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 속에서 후안무치(厚顔無恥)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후안무치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무는 겨울에 모든 잎을 내려놓습니다. 이는 다가올 봄을 위해 더 나은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고집과 탐욕, 분노와 대립의 잎사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5년은 내려놓음으로 시작해 더 큰 희망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 바르면 '정도' 솟아난다
〈正道〉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인류의 평화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한 시국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하기 보다는 대중의 지혜와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더욱 더 강해지는 불굴의 힘이 저 깊이 내재되어 있고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태고종에서도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과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은 민족의 불교로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불법(佛法)과 수행을 통해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태고종은 새로운 해를 맞아 '현대사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치유하고자 '불교명상지도사'들을 공인하는 민간자격발급과정을 등록, 운영하여 육성해서 배출하는 제도를 더욱 심화하고 튼튼하게 다져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중연소생(衆緣所生)의 이치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럿의 인연이 계합할 때 비로소 만물이 큰 힘을 얻고 군생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이 바르면 정도가 솟아나고 생각이 삿되면 그르침이 뒤따릅니다.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 건설은 바른 생각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른 뜻과 행동으로 일관하면 비록 비뚤어진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준동하더라도 올곧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 한 해는 사회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곧은 의지로 사회 부조리와 비리를 타개하고 밝고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가슴 새긴 원력 씨앗 꽃 피우는 한 해

록경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상주불변하는 법계에 해가 달라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만 이토록 시간을 구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어두웠던 지난 일들은 참회로서 마음을 맑히며, 성숙한 자세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날 상황이 여전히 안개 속처럼 불확실할지라도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명약관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고, 수행과 실천의 본보기가 되어 무명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일체중생의 입장과 바라는 바에 따라 방편도로써 일체지지(一切智智)를 설하시니, 간절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공덕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하오며, 모두의 가슴마다 새긴 원력의 씨앗이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주지 혜일 대화상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경천 법연지**

감 사 **대성 안도**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호 서호**
총 무 원 장 **법웅 정관**

원로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원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사회부장 **용화 해월**
교육부장 **법타**
총무국장 **무화 무경**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웅 정관

총무원 : 경남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최고원로의장 무량사(석홍섭)
원 로 회 장 약사암(석수오)
원 로 위 원 천흥사(석대몽)
총 무 원 장 석법경
총 무 국 장 천운사(석법성)
각교구 지원장

호 법 원 장 동국사(석원명)
승 정 원 장 수불사(석원명)
문 화 원 장 제화선원(석덕고)
감 찰 원 장 (석법진)

대원정사(석대원) 도림사(석혜통) 보문사(석무오)
광 엄 사(석법현) 청수암(석청암) 천흥사(석대몽)
여해선원(석여해) 심원사(석원목) 문수암(석성오)
원 정 사(석월안) 팔영암(석무착) 석불암(석길현)



종도일동 합장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감찰원장 **동암 원효**
문화원장 **덕일 금산**
고시원장 **도진 동영**
사회원장 **덕진 도광**

기획실장 **대비**
사서실장 **동판**
총무부장 **동봉 태공**
복지원장 **동법 혜조**
수선원장 **동성 혜각**

종 회 **의장**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 · 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 께 가 는 길 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 동 자 비 원 원 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 만 불 교 조 계 종 총무원장 **대명**
일 산 자 비 원 원 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흥해 연봉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지엄큰스님**
중앙연수원장 **도광큰스님**
원 로 의 원 **원영큰스님**
재주교구원장 **해법스님**
호 법 부 장 **무상스님**
문 화 부 장 **선광스님**
홍 보 국 장 **적광스님**
홍 보 부 장 **해안스님**

비 구 니 원 장 **도견스님**
비구니부원장 **혜명스님**
비 구 니 의 원 **지덕스님**
포 교 원 장 **묘정스님**
포 교 단 장 **연후스님**
포 교 국 장 **보리심**
포 교 원 장 **해암스님**
포교부단장 **해인스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40-17
전화 054)262-5060

이타정심의 기도를 세계로
〈利他定心〉

真如苑(신뇨엔) 원주 대승정 이또신소



을사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 불교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 질병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자연이 위기를 맞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뇨엔은 법요와 조석 예불에서 '진실·진여예찬'의 "정심(定心)의 송(誦)"을 봉송하며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영존 교도인의 가르침에 "일여(一如)의 선념(善念)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뜨게 하고, 지혜의 눈을 밝힌다"는 설법처럼 우리 모두 기도와 실천을 하나로 모아 번뇌를 넘어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으로 세계평화, 인류지복이라는 큰 이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화락(和樂)과 희망의 일여선념으로 이생애타(利生愛他)의 빛을 널리 비추어 가도록 합시다.

관용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미망을 깨우쳐 주고자 육신을 나투시어 미래의 영원한 생명체인 법신의 참모습을 보여 주셨고 생사의 해탈을 통해 대 자유인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밝은 연등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며 탐욕에서 베풂으로 다툼에서 관용으로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등불을 밝혀 을사년 새해에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가르침에 따라 삼독심에서 벗어나 고통과 소외받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나눕시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가 이웃과 세상에 전파되도록 노력합시다. 무명의 어둠을 거두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따릅시다. 모든 이와 화합을 이루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을 지니며 나아갑시다. 올해는 자신의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삼독심을 내려놓는 노력을 통해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는 을사년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맑은 생각으로 새 미래 열자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혜각 스님



적습성성 이고득락(積習成性 離苦得樂)이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을사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성품을 이루고, 좋은 성품이 쌓이면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깨달음을 성취하오니,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에 집착하지 마시고 밝고 맑은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밝고 맑은 생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갈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과 자비로운 실천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화합된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을사년 새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가 새로운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大福田 만들어 사회 꽃 피우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목탁 스님



어지럽고 혼탁한 한 해를 보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의지와 사상과 나라를 생각함이 없이 허수아비가 되어 부화뇌동하며 극단의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행자와 불자들은 부처님의 중도사상과 자애정신으로 돌아가 평정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人我山崩處 無爲道自成
凡有下心者 萬福自歸依
나다 너다 하는 상이 무너지면
위없는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며
무릇 하심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木不可雕也 美彫來自良木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다

大福田을 만들어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꽃이 됩시다.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 세상에 꼭 필요한 불제자가 됩시다.

공존과 상생 대화합 원년 되길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희망과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한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에는 지역, 세대, 집단의 이기심을 넘어 온 인류가 공존과 상생의 마음으로 대화합을 이루어가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야말로 불자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참된 인간상을 구현하고 모두가 꿈꾸는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는 자기 본분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하나로 합쳐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성찰하고,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세상, 고통 없이 안락한 삶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진정한 안락은 오직 서로를 위한 이해와 관용,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화합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부대중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 되어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보경 스님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 전염병, 빈곤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책임과 사명을 안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을 펼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 힘을 모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앞장섭시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따라 모두가 함께 조화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발원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연민과 관용으로 혼란을 평화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비와 실천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마다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희망과 다짐 가득찬 새해되길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과 다짐으로 가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는 공허한 말보다 실천과 진심이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심과 신심으로 함께 노력할 때, 불교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는 신심과 진정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펼쳐 나갑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관용, 지혜로 삶을 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꽃피워 갑시다.

사부대중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지구촌에 빛과 희망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시길 바라며 희망과 선행의 등불을 통해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굳게 뭉쳐 위기를 극복합시다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종정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재생과 유연함, 지혜 그리고 재물을 상징합니다. 또한, 푸른색은 평화와 안정, 희망을 의미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나라가 어수선하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모든 국민이 굳게 뭉쳐 위기를 극복합시다.

오늘날 이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탐·진·치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정쟁만 이어가고 있으니 국민들의 고통은 알지 못하니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이사장 겸 회장 : 화산 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 대장로 석정각 대종사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전)종정
· 대장로 석의천 대종사 : 대한불교선화종 종정
· 대장로 석해곡 대종사 : 대한불교열반종 종정

· 수석이사 부회장 : 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 기획이사 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 재무이사 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 상임이사 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불교근본해동종
· 호법이사 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 전법이사 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 섭외이사 부회장 : 보검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 종규이사 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 호계이사 부회장 : 법홍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 유나이사 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 국외이사 부회장 : 월단 명 사 용화세계미륵종

· 차석이사 부회장 : 보안 명 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 법규이사 부회장 : 정림 대종사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 외호이사 부회장 : 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 외호이사 부회장 : 고석 대종사 한국불교법보조계종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이사 : 일응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 이사 : 옥당 명사 국제불교상좌부조계종
·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왕종
·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 이사 : 동해 대종사 세계불교일붕종
· 이사 : 고산 대종사 세계불교법사조계종
· 이사 : 현도 스님 대한불교자비종
· 이사 : 선혜 스님 대한불교관법조계종

· 회장 사서실장 삼하 무착 · 사무총장 이붕 서병열 외 회원 일동
· 사 무 장 상광 배영회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45, 216호(비래동) 전화 : (042) 285 - 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팩스 : (02) 774-1487 ● 부.경사무처 :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 364-4747

분별 버리는 한해 되길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선악을 구분하려는 마음은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자리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갈등과 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과 다짐으로 가득한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불자들은 더욱더 차분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융 화합으로 미래를 열자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지난해 우리 사회 갈등이 커지고 사회 곳곳에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아만과 집착으로 인하여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새해를 열어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화해'와 '용서'에 입각해야 합니다. Ai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화합하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감을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융무애한 세상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정진합시다. 나무아미타불.

공업의 시대, 무연자비행을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법화경〉 제7장 「화성우품」에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고,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할 것입니다.

신년에는 불자들이 '상생과 화합, 베풂'이라는 불교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대한 봉사와 나눔을 위해 더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연자비'의 길을 따라 우리는 평등과 상호 이해, 자비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삶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보문종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이웃과 국민의 삶을 살피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물처럼 지나가리니

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지난해 어려움과 고통은 이미 지나간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지나간 일을 집착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날들에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無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키우십시오. 봄이 되면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움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선업을 쌓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다짐해 봅시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마음속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화엄세계 구현에 앞장섭시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및 화엄종도 여러분! 희망과 새로움으로 가득 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화엄의 가르침은 서로의 연기적 관계를 깨닫고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를 현대사회에 구현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노력합시다.

지혜와 변화의 삶을 꿈꾸자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용보다 작지만 매우 지혜로운 동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고 가람을 지키는 팔부신중의 하나가 되었고,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꿈꾸시길 축원합니다.

전 국민, 전 인류가 모두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혁신적인 변화의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비광명 사회 어둠 없애길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세계가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평화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의 아픔과 필요를 살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비와 지혜로 삶을 밝혀 나간다면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의 등불만이 우리 사회 곳곳 어두운 곳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중생제도 기치 올리세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대승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願力)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대승의 길을 따라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자비(慈悲)와 방편(方便), 그리고 공동체적 삶을 바탕으로 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이웃과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모든 이의 삶에 깃들어 밝은 미래를 열기를 축원합니다.

원력에 고통 소멸되는 새날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새로운 해, 희망의 빛이 우리 앞을 비추는 순간, 모든 중생들이 함께 밝아지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어 대자대비로 온 중생을 품으시고,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누릴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미륵의 가르침을 따라,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참된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謙遜), 인내(忍耐), 사랑(慈愛)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모든 중생이 함께 밝은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화합의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모두에게 많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생각을 돌이켜 분별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나아갑시다. 과거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법 구현 기치를 높입시다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우리가 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참된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이들이 비법을 멀리하고 정법에 안주하여,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올바른 수행의 길을 더욱 부단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날이 깊어가는 깨달음 속에서 나만이 아닌 모든 중생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진해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새로운 한 해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히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下心 만이 시대를 치유할 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이웃과 세상을 환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심(下心)과 화합의 실천으로 우리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과 공존의 길로 나아갑시다. 또한, 새해는 단순한 다짐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밝은 길을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대한불교법화종 ·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日日新 정신으로 大同化합시다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송천 스님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大同化 世界化 眞幸福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화합하면 세계 만민이 고루 행복하리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이하고 모두 화합하여 복덕을 두루 세계 만방에 베풀면 어찌 행복하지 않고 부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불화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화합합시다. 신년 푸른 뱀의 해가 되어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하는 을사년이 되어, 일일신(日日新)의 정신으로 대동화(大同化)합시다.

서로의 빛되는 새해 됩시다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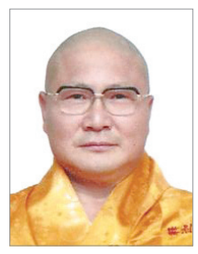


2025년은 해인종이 창종(創宗)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펼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고 행복에 이르도록 정진하며, 불교적 가치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불심(佛心)을 더욱 공고히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를 믿고 실천하며, 모두가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심의 공덕 주인공이 되라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愚心不學增橋慢
癡義無修長我人
空腹高心如餓虎
無知放逸似顚猿

미련해서 배우지 않으면 교만심만 늘어나고 어리석어서 닦지 않으면 잘난 척만 하게 된다. 속은 비고 마음만 높으면 굶주린 호랑이와 같고 아는 것 없어 놀기만 하면 넘어진 원숭이와 같다. 을사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으면도 지혜롭다고 말하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을사년에는 우리 모두가 불성으로 소원성취 바랍니다.

연기법 깨닫는 새아침 맞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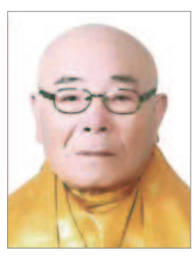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과 실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각자의 마음 속에 더욱 깊은 정진과 자비심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화합을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정성을 다하며, 마음 속의 부처님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보 하며 살아갑시다

금강조계종 종정 수암 스님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로 양보하며 또한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곳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행복으로 채웁시다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일상에서 깨달음을 찾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신 모든 분께 감사와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생활 속에서 불교의 정신을 더욱 깊이 실천하며 나아가길 서원합니다.

새해에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하고, 내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 세상을 행복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세월 따라 인연 따라 갈 것을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세월 따라 왔다가 세월 따라 갈 것이,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떨치도다.

비록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지만 봄이 오면 옛날을 의지해 초목이 스스로 일어 나도다. 구름이 간다가 구름이 올 것이 허공에는 오고감 자취도 없도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온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신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入海求寶 보물을 구하다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나라의 살림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하여 여당야당 구별말고 균등하게 평등심으로 한 국민의 대변자로써 서로 배려와 양보로 소통하는 것만이, 혼란 속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질투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질투심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질투의 불길은 파괴하고 약탈하려는 수단으로 쓰면 더욱 거세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와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더욱 약해집니다. 질투심을 끊어버리는 훌륭한 방법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 속 자비와 지혜 씨앗 심자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가 곧 외부의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고, 일상 속에서 이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되고, 각자의 자리가 깨달음의 도량이 되길 발원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부처님의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법은 이 순간 마음 속에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2025년 새해는 더욱 정진하고, 불교적 가치를 현대사회에 널리 구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특히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는 승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새해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은 정진과 자비의 실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발원합니다.

계율 청정의 한해로 삼자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계율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우리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율사조계종은 더욱 깊은 수행과 실천으로 불교적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고,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율과 수행을 통해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고,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불교 전통 전승 힘쏟아야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봉 스님



존경하는 불자님 여러분, 새해는 각자의 마음 속 부처님을 더 깊이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매 순간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계율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불자들의 원력이 중요할 때입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발원하며,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정성을 다하며, 마음 속의 부처님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여산 정여
주 지 산해 정오
신도회장 이윤희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선문회관 051-508-0102 불교대학 051-866-7277
템플스테이 051-508-5726







“만유일체 정신으로 더불어 살아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량한 복덕을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지난해의 누란지위(累卵之危)를 지혜로써 극복하고, 자비로 회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지구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 배고픔의 고통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부처님은 오탁악세(五濁惡世)로 정의하였습니다. 오탁악세란 다섯 가지가 오염되어 타락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현대는 시대가 불안한 틈을 타 유사한 정보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은 윤리도덕를 지키기 보다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고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대비(大悲)의 본원(本願)으로 오탁악세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선량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에 인간세상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유일체(萬有一體)의 정신으로 인재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지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국민 평안 위해 선명상 대중화 선도”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해는 참으로 값진 한해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중앙신도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많은 성원과 축하 속에 새 인연을 맺으며 전국의 신도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중앙신도회 창립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의 신도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또한 신도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키우고 흩어진 역량을 결집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신 신도회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성과는 적극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울 수 있는 한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불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평안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선명상 대중화를 선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 등 탈종교화시대에서 불교의 핵심가치를 전달하며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서로 성장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 되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은 지혜와 풍요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뱀은 지혜롭고 학식이 뛰어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을사년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장, 그리고 지혜로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해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각자가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항상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학생 불자 양성으로 ‘전법’ 실천”

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가족과 불자 여러분, 2025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길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동국대는 지난 한해를 매우 뜻깊게 보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TOP 10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학혁신사업 2차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불교계와 동문의 관심과 성원으로 200억원 이상을 모금하며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동국대는 2025년 내실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 고유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공계 중점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불자 양성으로 ‘전법’을 실천하겠습니다. 2024년에 출범한 동국대 4300명 규모의 불교학생연합은 동국의 미래입니다.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종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각층서 명상포교 활동 실천”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불기2569년을 맞아 전국의 5000여 포교사와 불자님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포교사 1기 배출로부터 43년, 포교사단 창단으로는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포교사단은 종교편향과 전통사찰 내에서 관광문화해설사의 불교문화 왜곡해설 현상 등을 바로잡고자 포교사를 대상으로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제도를 불기256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300명 불교문화해설사 인력을 양성했고, 금년에는 400명이 예정돼있습니다. 금년 배출되는 불교문화해설사들의 온전한 불교문화해설 활동력으로 시민들에게 한국문화유산이 바르게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증진를 위한 계층 포교활동과 종단의 선명상 종책에 대응하기 위해 포교사를 주체로 한 명상상담사 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는 많은 명상상담사를 양성해 사회 각 계층현장에서 명상포교 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법이 시민들 가슴마다 꽃으로 만개하길 기원합니다.

“화쟁사상 실천으로 화합·상생 이끌겠다”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불교리더스포럼은 6기 출범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활동과 함께 종단 종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종단의 외호기구로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유사 이래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和諍)사상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리를 알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불기2569년에는 우리 불자들도 그 어느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한발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한해”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을사년 새해 아침,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난 갑진년 한해는 전국여성불자회 회원들에게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신년하례음악회를 시작으로 뭇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쓰담순례를 화엄사, 봉선사, 수덕사에서 진행했으며, 5회에 걸친 푼다리카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회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국제선명상 대회 참여를 통해 조계종도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전국여성불자회 2기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초대 임원진들과 함께 더 많은 분이 함께 가실 수 있는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한발 더 나아가는 전국여성불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처님 씨앗을 싹틔울 수 있는 상서로운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행복 위해 정진”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온 세상 두루 밝게 비추는 을사년(乙巳年)의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꿈과 희망의 문을 열고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공불련은 지난해 기관별 조직을 재건하고 수계법회 및 해외 성지순례를 재개하였으며, 오송의료행정타운, 대전청사 및 과천청사에도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공불련은 올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조직을 재건하여 명실상부한 신행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혼란 속에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대자비를 실천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보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불자님들이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청년들이 품는 희망은 세상 밝히는 힘”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희망과 설렘 속에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며, 현대불교신문의 소중한 독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모든 생명체의 등불’이라는 가르침처럼, 우리 청년들이 품은 희망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입니다. 현대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불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희망의 씨앗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려갑시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덕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 당선 확정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비합3002 종회의원 선출 허가신청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종회의원 선출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회의원당선 확정공고

각 교구별 종회의원 당선 의석수

교 구	종도수		총 원	배정 의석수	당선 의석수
	2008년이전승적취득자	2009년이후승적취득자			
충북	7	4	11	2	1
전남, 전북, 광주	14	1	15	2	2
부산	13	4	17	2	1
충남, 대전	11	5	16	2	2
경북, 대구	21	7	28	4	3
서울, 경기, 강원	6	3	9	1	0
경남, 울산	13	8	21	3	2
제주	8	7	15	2	2
합계	93	39	132	18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비합3002 종회의원 정수 배정 2024.11.14확정)

2024년 12월 29일

대한불교원효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진광(김종호)** 임시종정 **원호(이종윤)** 임시총무원장 **일륜(김두환)**

(사)한국불교 선조계종

종 정 **호림당 혜원** (광불사)
명예종정 **법장** (성원사)
부 종 정 **정광** (신안사)

총무원장 **도원** (무심사)
장로의장 **법성** (성불사)
종회의장 **혜관** (정수암)
감사원장 **보덕** (보덕사)
교육원장 **법정** (법제사)
포교원장 **도웅** (광불사)
호법원장 **법성** (대덕사)
비구니원장 **무상** (용주사)
총무국장 **법원** (성불사 포교원)

총무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두북2길 15-18 (무심사)
054-373-1275 (팩스) 010-8343-8058

대한민국 국민중생 불보살님 상서로운 광명 충만하소서

(사) 현대불교조계종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총연합회

자문위원 (은덕사)종천 (성덕암)법신 (본각사)법무 (용화사)무불

총무원장	호산 성보	밀양종무원장	(수덕사)도연
호법원장	(구천사)상원	포천종무원장	(수미사)진석
경남종무원장	(구룡사)진성	울산종무원장	(감로암)동련
비구니원장	(묘음정사)덕운	대구종무원장	(무상사)일불
창녕종무원장	(성불사)무덕	감찰원장	(화엄사)무심
비구니부원장	(관불사)관조	문화원장	(문수암)승태
마산종무원장	(삼선암)정안	김천종무원장	(약수암)자운
경기종무원장	(반야사)지연	총무원중앙신도 원장	진영혜(보리심)

◉ 갑진년12월5일부로 나눔실천승가회 해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무연고자 장례 및 선천성어린이 심장병돕기 종단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총연합회)(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시 사암등록증·주지임명장·승려증 발행

창원시마산회원구 광려천북로208 총본산 불광사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 불·법·승 ◈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성주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종회의원 일동)
고시원장	혜룡	부 원 장		감찰원장	용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총무부장	지일	재무부장	도오	규정부장	선묵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교화부장	도능	문화국장	도문
사회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기획국장	청붕	규정국장	대련
사서국장	도율					사 무 장	신연화성

종도 일동

학 인 모 집

불교경전 의식(범패 · 어산 · 바라 · 작법무)
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 염불원

■ 삼보조계종총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팩스 055)333-1880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 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전화055)585-5300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Jungbupsa Temple

주지 우현 광우

- 사부대중 일동 -



• 비로선원 불사 중

포교
대자유치원 운영
1927년 설립 후 7,317명이 졸업했으며
188명의 원아가 재원 중입니다.

보현의 집(무료급식소)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과
도시락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 파라미타 경남지부

교육
영축불교대학
기초교리부터 깊이 있는 불교공부를 돕는
재가신도 교육기관입니다.

정법어린이문수회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2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문수선음어린이합창단
2023년 창단하여 매주 전문 지휘자와 함께
어울림의 소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행활동
정법사신도회, 영축다도회, 분다리카합창단,
정법불교거사림, 영축불교대학 총동문회 등의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심회, 보현부,
관음부, 지장부, 보름부, 여명회 등의 봉사단체가
봉사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46
www.jungbupsa.or.kr Tel. 055 - 246 - 8393

정법사 홈페이지 유튜브채널 정법사 TV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호국도량
신흥사

주 지 인경 스님

사부대중일동

1649년 조성 아미타부처님 봉안 사찰
(보물 제2149호 국가지정문화재)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80(대안동 739번지)
종무소 Tel 052)295-7522 www.sinheungsa.co.kr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주 원택스님
주 지 일학스님

겁외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 지 진각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 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회주 눌암 지정
주 지 향원 남수

사부대중 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T.052)234-1188

불교가 알아야 할 2025트렌드

프롤로그 · #아보하

요새 '힙하다'는 불교 트렌드에 앞서가려면

프롤로그– 불교, 트렌드에 주목하라

트렌드(Trend)는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생각, 표현 방식, 제품 등이 그 사회에 침투 또는 확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회 각 분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징후이자 현실 동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는 50년 이상 지속되는 메가트렌드부터 5~10년 정도의 작은 트렌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회사나 단체들은 트렌드 분석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트렌드는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기획·개발할 때 고려할 중요한 변수이면서 주요 산업의 시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서점가에는 트렌드 관련된 서적들이 쏟아집니다. 대표적인 책이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 트렌드 전문가들이 공저한 〈트렌드 코리아 2025〉입니다. '별거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어떤 트렌드가 나올지를 궁금해 하면 책장을 들춰보게 됩니다.

이 같은 트렌드 분석은 개신교에서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만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2025 Z세대 트렌드와 한국교회〉 〈한국교회 3040세대 트렌드〉 등 분석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이들 보고서들은 빅데이터와 축적된 통계 등을 활용해 현재 개신교 교회의 상황을 분석하고 세대와 계층 등에서 나타나는 트렌드와 대처 방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리해설서, 명상 번역서 위주의 불교계 출판지형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종단도 불교출판계도 반면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이래로 가장 트렌디한 종교였습니다. 제자들은 시대 언어로 부처님 법을 전하며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불교 경전 내용을 담고 있는 불화나 변상도는 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는 시도였고, 땅설법으로 남아있는 강창도 대중에게 노래와 춤, 연극으로 부처님을 법을 전하는 방편이었습니다.

2024년은 '힙한 불교' 열풍이었습니다. 2024년 4월에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입소문을 타고 인산인해를 이뤘고, 사찰 소개팅이라는 컨셉의 '나는 절로'는 모집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힙한 불교' 열풍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교 문화를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메가 트렌드로 이어내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을 키우는 것도 불교계가 할 일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한 불교의 자세입니다.

보통의 하루 만드는 법 선명상 통해 찾아보세요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보하

'행복해야 한다' 강박 벗어나
무탈하고 안온한 삶들을 추구
감정의 진폭 줄여내는 선명상
'아보하' 꿈꾸는 사람에 적격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알고리즘엔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요?'

보이밴드 데이식스의 '해피(Happy)' 가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어쩌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걱정 없이 마냥 웃을 수 있는 하루를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 좀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무난하고 무탈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어렵기에 트렌드 전문가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를 2025년의 트렌드로 꼽았다.

실제 코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무탈·평범·보통'의 온라인 언급량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동된 단어는 남편, 아이, 가족 등 일상에 밀접한 것들이었다.

취미영역도 보여주기가 아닌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최근 2030세대에서는 뜨개질을 취미생활로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을 반영해 뜨개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뜨개 전문점'과 뜨개를 하면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뜨개 카페' 이용 건수가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한다.

도서시장에서는 필사책이 유행이다. 이는 기존의 캘러그래피 열풍과는 다르다. 예쁜 글씨를 써서 SNS에 올려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라 혼자서 그저 묵묵히 필사를 하는 것이다. 필사책의 용도도 좋은 문장을 써 어휘력을 높은 것부터 좋은 명언을 옮겨 적는 책까지 다양하다. 실제 기독교의 경우 성경필사로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부터 목적별 성경 구절을 엄선해 묶은 필사노트, 어린이용 필사노트 등 다양하다.

이 같은 '아보하'라는 트렌드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지금보다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젊은 세대의 좌절을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울로 점철된 한국사회의 치유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난도 교수 등은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고자 유혹하는 시장, 경쟁과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보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부자가 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듯이 불만 없는 사람은 굳이 돈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행복 역시 불행도 행복도 바라지 않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아보하'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탐구하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는 불교가 가지는 지향점과도 맞닿는다.

결국 문제는 '감정'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현상에 끄달리게 된다. 이에 분별이 생기고 업이 발생한다. 이 업은 생사를 일으켜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게 만든다. 이런 감정의 파동과 진폭을 잠재우는 탁월한 방법이 '선명상'이다.

고통에서 벗어난 마음, 완전한 행복에 이른 마음은 어떨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도심(中道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심은 즐거움에도 괴로움에도 그 어떠한 감정에도 끄달리지 않는 청정한 마음 상태다. 계속 반복되는 감정의 인과가 끊겨 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선명상아카데미 5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잦아드는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평온한 중도의 상태에 이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깨끗해지는 신구의 삼업청정(身口意 三業淸淨)이 저절로 이뤄진다. 일체가 청정해지면 업이 청정해지고 일체중생을 돕는 대승보살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락(苦樂)이라는 감정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무애자재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 길에 '아주 보통의 하루'가 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초암 덕문

신도회 & 사부대중 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불교가 알아야 할 2025트렌드

#기후감수성 · #무해력

기후위기시대 도래…불교, 다시 환경이다

#기후감수성

2024년 지구 역사상 뜨거운 해
날씨예보 등 기후비즈니스 각광
공공분야 기후복지 필요성 확대
불교계도 기후위기 실천 나서야

2024년 7월 22일. 이날은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됐다. 실제 2024년은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이기도 했다. 앞선 2023년 7월 UN은 지구온난화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 같이 알렸다.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가 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UN이 '끓는 시대'의 서막을 선언한 것은 허언이 아니다.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6도 증가했다.

문제는 단순히 지구의 온도 상승에만 그치지 않는다. 급격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환경의 모습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기후 재난에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 감수성'이 필요하다.

〈트렌드코리아 2025〉에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후감수성은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잡은 제로웨이스트와 비거니즘은 불교와도 맞닿는다. 불교는 과도한 소유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며, 승가 공동체도 생태순환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분소의나 발우공양 등의 전통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불교계는 2000년대 개발자본에 맞서서 환경운동에 나섰던 저력이 있다.

과거의 불교환경운동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거대자본과의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대중이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의식을 높일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 종단 차원의 최우선과제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까지 교단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승려연수교육과 각 사찰 불교대학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담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이 연수교육과정에서 환경이나 기후위기 관련 강좌는 전무하다.

간혹 사찰전문경영인 과정에서 특강이 마련되지만,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승가결사체를 통해 한마음선원이 'EM지구사랑 작은실천' 결성해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재가불자들을 교육하는 사찰불교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 대부분은 부처님 생애와 불교의 이해, 경전 교리 등에 치우쳐 있다. 시대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적 실천론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기후위기시대,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10여 년 전 만들었던 불교환경의제 21을 리뉴얼해 모든 불자들을 불교적 환경운동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수계법회에서 삼귀의, 오계와 더불어 환경오계를 함께 수지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유행하는 플로깅(plogging·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접목해 산의 쓰레기를 치우는 템플스테이나 법회를 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불교는 다시 한번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무해력' 있는 종교가 돼야 합니다

#무해력

작고 귀여운 것에 열광 '무해력'
무해한 존재에 사람들은 따라
호감도 높은 불교, '무해력'도 ↑
사회참여 확대 등 무해력 강화를

최근 MZ세대들의 가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키링'이다. 귀엽고 앙증맞은 인형으로 구성된 '키링'은 MZ세대의 가방을 점령했다.

키링 뿐만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되는 팝업스토어나 굿즈,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보면 예쁘고 앙증맞은 것이 가득하다.

왜 사람들은 작고 앙증맞은 키링이나 굿즈들에 열광할까. 〈트렌드코리아 2025〉는 이를 '무해력(無害力)'에서 찾는다. "무해한 존재들의 공통점은 해로움이 없고, 그래서 나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무해력'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능력이다. 갈등과 경쟁이 많아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무해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역시 '무해력'이라는 트렌드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중적인 호감도와 이미지가 해당 종교의 포교와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히 불교는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종교인식조사'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가 5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진 호감도는 가톨릭(48.6)과 개신교(35.6), 원불교(28.0), 이슬람교(16.3) 순이었다. 불교 호감도는 개신교 호감도와 15.7점의 차이를 보였고, 5대 종교 중 유일하게 보통(50점)을 넘었다.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권하지 않고, 갈등하지는 않는 불교는 현재 대중들에게 대표적인 '무해한' 종교로 여겨진다. 여기에 사회적 실천 등 대중과 함께 하는 보살행이 더해진다면, 불교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무해력'이 높은 종교로 거듭날 것이 분명하다.

기실 '무해력'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내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보듬어줄 존재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운동이나 템플스테이 등은 대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무해한 콘텐츠이기도 하다. 어지러운 세상 '무해함의 전성시대'에 무해력은 생존 전략이 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 장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 문화원장 성일
기획국장 향성 / 종책실장 덕산
교무국장 용안 / 문화국장 혜복
재무국장 성우 /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탄학 / 호법국장 현묵
전법국장 혜교 /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문화특보 혜공 /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전법특보 묘수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식당

부처님 법 전법시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리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055)862-6500, 6115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해남사에서는 금강경독송기도를 통해 원을 성취하고 무량수 부처님을 친견하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드는 환희로운 경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독송 정진기도 매월 첫째주 월, 화, 수요일
장소 : 보광당 19시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로길13,
052)211-3340 / 10-7450-3340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재단법인 정토마을

- 정토마을 간월사
- 마하보디교육원
- 정토마을 청주 수행센터
- 정토마을 **자재병원**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
- 한국티베트문화학술연구원(KTCARI)
-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문의 : 052-255-8588 / 010-2926-8500 종무소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40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참선 수행 도량

가지산 **석남사**

주 지 **천 조**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전화 052)264-8900 팩스 052)264-8908 E-mail : seoknamsa@hanmail.net

단청이 아름다운

화개산 **반야사**

주 지 **종오 혜명**

사부대중 일동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타암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 불 도 량 **상륜덕화사**

주 지 **묘혜일** 스님

법화원도회
법화경독송회



재)대각문화원

밀양 영산정사

주 지 **영봉 법웅**

신 도 회 장 **송한기**
관 음 회 장 **전옥이**
지 장 회 장 **신순덕**
신도회총무 **조혜진**
사 무 장 **능인행**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 · 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 실 **정암 세연**
회 주 **학농 장윤** 주 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등불 전등사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대한불교조계종

남한산성 성불사

주 지 **선 광**

사부대중 일동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기도와 나눔이 함께하는 화계사

화계사 불교대학

화계사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대학으로서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5년 신입생 모집 입학식
불교대학 • 대학원 • 경전반
2025년 3월 8일 토요일
02-997-646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117(수유동)
문의:02)902-2663 홈페이지: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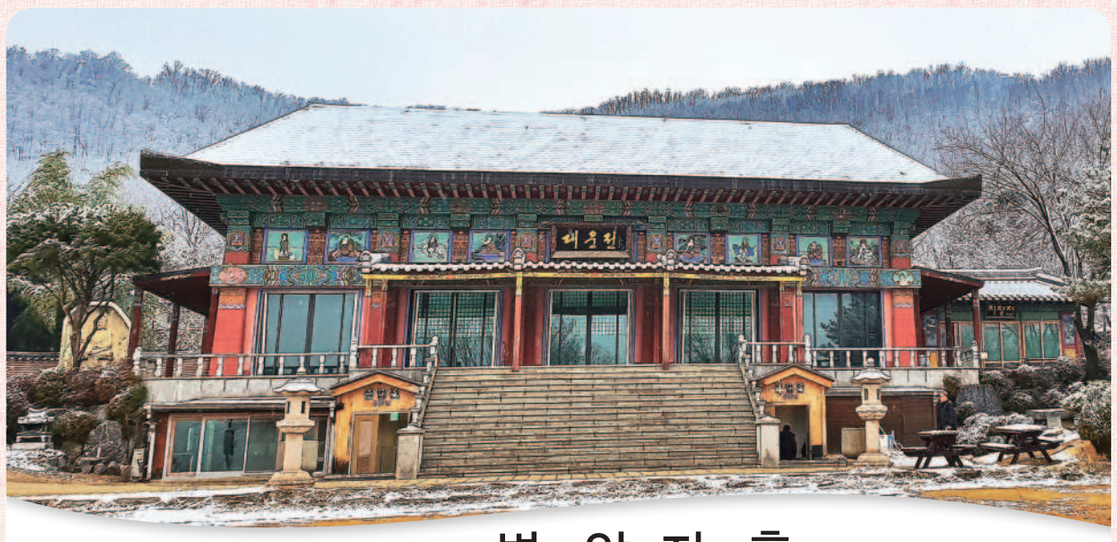
달마사

회 주 진 화
주 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50-26(흑석동)
02)813-7425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 지 진경

사부대중 일동



벽암지홍

신도회장 환희지 이난희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새해 각 가정의 평안과 건강,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회 주 선묵 혜자

사부대중 일동



주소 서울시 덕릉로129길 전화 02)936-5936

마하반야바라밀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주 지 동 명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5 Tel.413-6060 www.bulkwangsa.org



동국대WISE캠 '역대급 장학금' 쾌척

문무관서 미래불자장학금 수여
717명에 총 7억1700만원 전달
학교 장학금 수여 중 최대 규모
돈관 스님 "미래불교 주인되길"


학교법인 동국대가 지난해 12월 13일 동국대 WISE캠퍼스 문무관(체육관)에서 '제91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가 지난해 12월 13일 동국대 WISE캠퍼스 문무관(체육관)에서 '제91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717명으로, 지난 동국대 청년불자 축제 영캠프에서 수계를 받고 동국대 불교동아리에서 신행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재학생들이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 불교종립대학 소속의 청년불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장학증서 수여는 717명의 동국대 학생에게 각 100만원, 총 7억1700만원을 전달해 동국대 장학증서 수여식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는 미래불자 양성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수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정각원장 철우 스님, 박기련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학생 대표 및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수혜 학생 등 사부대중 900여명이 동참했다.

수여식은 개회사와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 불교동아리 소개 영상 시청, 장학증서 수여식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여식 이후 학생들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을 축하하며 꽃다발과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여러분이 동국대의 주인공이자 한국불교의 주인공"이라며 "주인공의 덕목은 대학생으로서 수계를 받고,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와 법회를 통해 부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초연함을 덕목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을 이해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어느 곳에 있든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길 바란다. 여러분들은 동국의 주인공이자 미래 불교의 주인공"이라고 힘줘 말했다.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불제자로 성장해 연꽃 속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건학위원회는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광사 '법화경' 석경 점안…"세계평화 발원"

12월 18일 대보탑서 회향법회
장엄불벽 석경 개분불사 진행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십삼존불 팔면 구층 대보탑 앞 특설무대와 지관전에서 '법화경' 석경 점안식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십삼존불 팔면 구층 대보탑 앞 특설무대와 지관전에서 '법화경' 석경 점안식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법화경 석경은 1997년 대웅보전 옆 오십삼존불 팔면 구층 대보탑 벽 상단에 새겨 둔 장엄 불벽이다. 삼광사는 석경에 붉은색 안료인 경면주사(鏡面朱砂)가 벗겨져 새롭게 보수하는 석경 개분 불사를 통해 세계평화와 불국토를 발원하며 세운 대보탑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다. 대보탑에는 미얀마에서 온 불사리 7과와 달라이라마가 보낸 불사리 3과, 스리랑카 대통령이 전달한 불사리 1과 등 총 11과의 불사리가 봉안돼 있다.

점안식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회향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표창패·감사패 수여 △회향 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은 원로원장 정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불법의 융성으로 나라가 태평하길 염원하며 조성된 대보탑의 석경이 삼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다시 그 장엄하게 나투었다"며 "세세생생 바른 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원력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며 성불을 길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길 바란다"고 법문을 전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신라의 황룡사 구층목탑과 고려의 팔만대장경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불사였듯이 삼광사 대보탑은 세계평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으로 담았다"며 "대보탑 후면 불벽에는 '법화경' 중 여섯품이 새겨져 있다. 불사 회향 공덕으로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광사 대보탑은 기단 폭 14.55m, 전체 높이 30m이다. 진신사리 11과가 봉안된 동양 최대 석탑으로 세계평화 및 통일, 불국토 건설의 발원을 담아 봉안됐다. 탑 후면 장엄불벽은 높이 8m, 폭 50m로 상·하단 각각 14면의 구조며 전북 익산군 화강석으로 조성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제포교사회 싱잉볼 소리 명상 워크숍

12월 14~15일 부산 홍법사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스님)가 싱잉볼 소리 명상을 통해 전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홍법사 싱잉볼치유의소리 명상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워크숍은 국제포교사에게 싱잉볼 소리명상을 소개하고, 'K-명상'의 활성화에 발맞춰 전법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회장 정혜 스님을 비롯해 예비국제포교사와 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으며, 이틀 간 싱잉볼에 대한 이해와 호흡명상, 팅샤 연습, 바디스캔 명상 등 다채로운 강의에 참여했다. 단원들은 마지막 회향의 자리에서 소감을 나누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리 명상을 체험하고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회장 정혜 스님은 "마치 천상에 올라간 듯 깨어있음의 시간이었고 나를 깨우는 큰 울림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7회 실상문학상 대상에 배기환·이소정

12월 14일 홍법사서 시상식



제27회 실상문학상 대상에 배기환 시인과 이소정 시인이 공동 수상했다.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이사장 심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14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27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상자는 대상에 배기환 시인과 이소정 시인이 공동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노정숙, 배동순, 정명희 시인이 수상했다. 작품상은 김만옥 시인이 시조 부문은 한시용 작가, 배주석 수필가가 수상했으며, 신인상에는 하소남 수필가, 장효영 시인이 수상했다. 이 외 김성화 시인과 왕선자 시조인은 봉사상, 고순옥 시인과 엄순남 시인은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수상한 모든 분들 축하드리며 불법 안에서 좋은 작품을 써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이산탑사·복성산업개발, 백미나눔

부산 정관지구 공사현장서



마이산탑사(주지 진성 스님)와 ㈜복성산업개발(회장 박금태)이 지난해 12월 19일 부산 기장 정관읍에 위치한 정관지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사랑의 백미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마이산탑사와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정관읍 관내 주민들에게 백미 10kg 300포, 총 3000kg을 송영종 정관읍장에게 전달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라북도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을 비롯해 박금태 회장, 홍성구 부사장, 송영종 정관읍장, 정관읍 관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전달식과 영산대재를 통해 복성산업개발은 물론 정관읍 주민들 모두 무탈하고 번영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계 호
주 지 법 해

사부대중 일동



부설 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한문화체험관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삼각산 도선사 대중은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실 청담대종사
문 장 불휴당 법화
선 덕 석곡
주 지 금산 태원

신도회장 해산 김학규

현성정사 | 동도선사 | 사회복지법인 혜명 | 학교법인 청담학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시 강북구 도선사길278 (우 01002) 전화 02-993-3161~3 www.doseo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자 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묘 장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3길 56(회기동 109-1)
☎ (02)962-6186



대한불교조계종

장 안 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나길 21-2 ☎ (02)832-7165



대한불교조계종

관악산 관음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 (남현동)
☎ (02)582-8609



“혜암당 성관 대종사, 유훈 새기겠습니다”

해인사, 혜암당 성관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내 대적광전 및 비림서 봉행
육성법문 청취, 가르침 되새겨
석가모니불 정근하며 탑돌이


합천 해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내 대적광전과 비림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를 열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 다례재가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동참대중들은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대종사의 뜻을 기렸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내 대적광전과 비림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를 열었다.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대원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전계사 무관 스님, 원로의원 원각 스님, 세민 스님, 혜암 문도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신도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재는 거불, 방장스님 헌향 및 헌다, 종사영반, 추모 입정, 육성 법어, 대중헌화, 행장 소개, 문도대표 인사, 회향게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스님들은 혜암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어를 청취하며 그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대표 성법 스님은 “백번 싸워 백번 이겨도 한번 참는 것보다 못하고, 만번이나 구구절절 바른 말을 해도 한번 침묵한 것보다 못하다”는 혜암 대종사의 게송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동참대중은 해인사 비림에서 혜암 대종사의 부도전을 참배했다. 헌향, 헌다, 죽비 삼배,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했다.

한편,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음력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출가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하고, ‘성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자운·우봉·보문·도우·법전·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2001년 12월 31일, 음력 11월 17일 오전,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공부 잘하라’고 당부한 후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세수는 82세이며 법랍은 56년이다.

서산 보원사, 무차수륙대재 학술대회

대웅전서…수륙재 현대적 해석


설행위원회 정경 스님, 서산불교연합회 회장 혜산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과 수덕사 강원, 율원, 염불원 스님 및 보원사 신도가 동참했다.

보원사수륙대재설행위원회(위원장 정경 스님)와 서산불교연합회(회장 혜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13일 보원사 대웅전에서 ‘제4차 보원사 무차평등수륙대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전통과 현대 의례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내포가야산성역화추진위원장 정범 스님, 보원사수륙대재

유재상 충청지사장

마산 정법사, 수계법회 봉행


를 수지하고 참 불자로 거듭났다. 대자유치원 원생과 영유아 18명, 문수선음합창단, 정법어린이문수회의 어린이와 가족 99명도 함께 계를 받았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지난해 12월 14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삼귀의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을 전계 아사리,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이 증명 아사리, 통도사 율원 교수사 현정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참여했다.

수계법회는 영축불교대학 학인과 재가불자 312명이 삼귀의계와 오계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 조계종 순례길로 개발돼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지난해 12월 16일 “20번째 순례길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산들바람솔숲길)’를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산들바람솔숲길)’는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약 1.2km에 달하는 ‘무풍한송로’를 걷는 코스다.

수령 100~200년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자리한 무풍한송로는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흙길이다. 이 길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 제15교구본사 통도사를 걷다 보면 유서 깊은 전각과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금강계단을 만나볼 수 있다. 전체 코스는 약 2km이며, 왕복 2시간이 소요된다.

포교원이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 설법-문서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해,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과 함께 사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무문관 개설 선지식 정영 스님을 기리다

12월 15일 17주기 추모다례
문도들 “열심히 정진” 다짐


계룡산 갑사 산내암자 대자암은 지난해 12월 15일 경내 대웅전에서 영파당 정영 스님의 입적 17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한국 최초로 무문관을 개설한 영파당 정영 스님의 다례재가 봉행됐다.

계룡산 갑사 산내암자 대자암(주지 구전 스님)은 지난해 12월 15일 경내 대웅전에서 영파당 정영 스님의 입적 17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갑사 조실 능엄 스님, 신원사 화강 스님, 금용암 두타 스님, 대각사 주지 보성 스님, 동혈사 종성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자리해 분향과 헌다를 올렸다.

이어 정영 스님 행장 소개가 이어졌다. 영파당 정영 스님은 1923년 12월 25일 경상 창원에서 출생, 1940년 만공 스님을 은사로 1942년 해인사 법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7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4년 정화 운동 당시 동산, 효봉, 청담 스님과 함께 불교 정화에 앞장섰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등 종단 내 소임을 맡았고 천축사, 봉은사, 망월사, 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4년 서울 도봉산 천축사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무문관을 개설하여 6년 결사를 했다. 1993년 계룡산 대자암의 제2의 무문관인 삼매당을 열고 2007년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 대자암에서 세수 84세, 법랍 66세로 입적했다. 대각사 주지 보성 스님은 “큰스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되지 않는다. 스님 볼 면목이 없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여러분들도 큰스님처럼 되길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정영 스님의 손상좌 구전 스님은 “눈이 내리는 날, 큰스님의 기일에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송광사 신도회, ‘행복 바라미 순천 문화제’


개지만, 많은 것을 나누면 모든 이가 행복해진다.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나눔과 나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신도회(회장 이경연)가 지난해 12월 14일 순천 대승사 경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바라미 순천지역 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문화제는 지역주민과 함께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상생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열렸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나눔 메시지를 통해 “행복을 위한 길은 여러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소원정사, 백미 3000kg 나눔

지역학교 통해 위기가정 지원



주지 도계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 선생님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의 나눔사찰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가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자비신행회에서 ‘도계 스님의 아름다운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해 백미 3000kg을 나눴다.〈사진〉

백미는 광주지역 30여 개 초·중학교를 통해 지역 위기가정에 전해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정대행)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총무부장 선행
교육부장 법천
포교부장 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명 성

주 지 은 광

운문사 사부대중 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사리암 054-372-8811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오대산 상원사

주 지 해 량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동탄 용화사

회 주 성 직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 실 **설악 무산**

기 도 **관성 본수 선우 법정**
주 지 **일념**
부 주 지 **향성 무문**
기 획 **설호**
원 주 **설원**
홍련암 기도 **원주 송일 도안 월견**
신도회장 **방양호**
바리밀회장 **박상혁**
합창단장 **안복녀**
불교대학회장 **윤여경**
총 무 **본일**
호 법 **각일**
포교·연수원장 **선일**
템플스테이연수국장 **지월 법명**
관음회장 **반순덕**
문수회장 **양은숙**
의상회장 **이순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

천년고찰 경허대선사 수행도량

구절산
구절암 **구룡사**

주 지 **진 명**

사부대중 일동

매년10월 구절초축제

구절초진액, 구절초 조청 판매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봉입동로 846-40
전화 : 041)841-8838 www.rury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

주 지 **정 경**

신도 일동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 119-29
전화 041)668-6624

대한불교조계종

무암사

주 지 **현 문**

사부대중 일동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39길 285
043)652-0897

대한불교조계종

성불사

고려시대 마애석가삼존
16나한 기도성취도량

회 주 **취성 원경**
주 지 **법두**

사부대중 일동



충남 천안시 성불사길 144(안서동) 041)565-4567

스리랑카사원 마하위하라

한국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사찰

MAHAVIHARA
(Korea SriLanka Mahavihara Buddhist Temple)
http://cafe.never.com/mahavihara

사부대중 일동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97 (음봉면 신정리 116-7)
전화 : 041-544-0106 / 010-8427-0106



대행 스님

여러분은 항상 평등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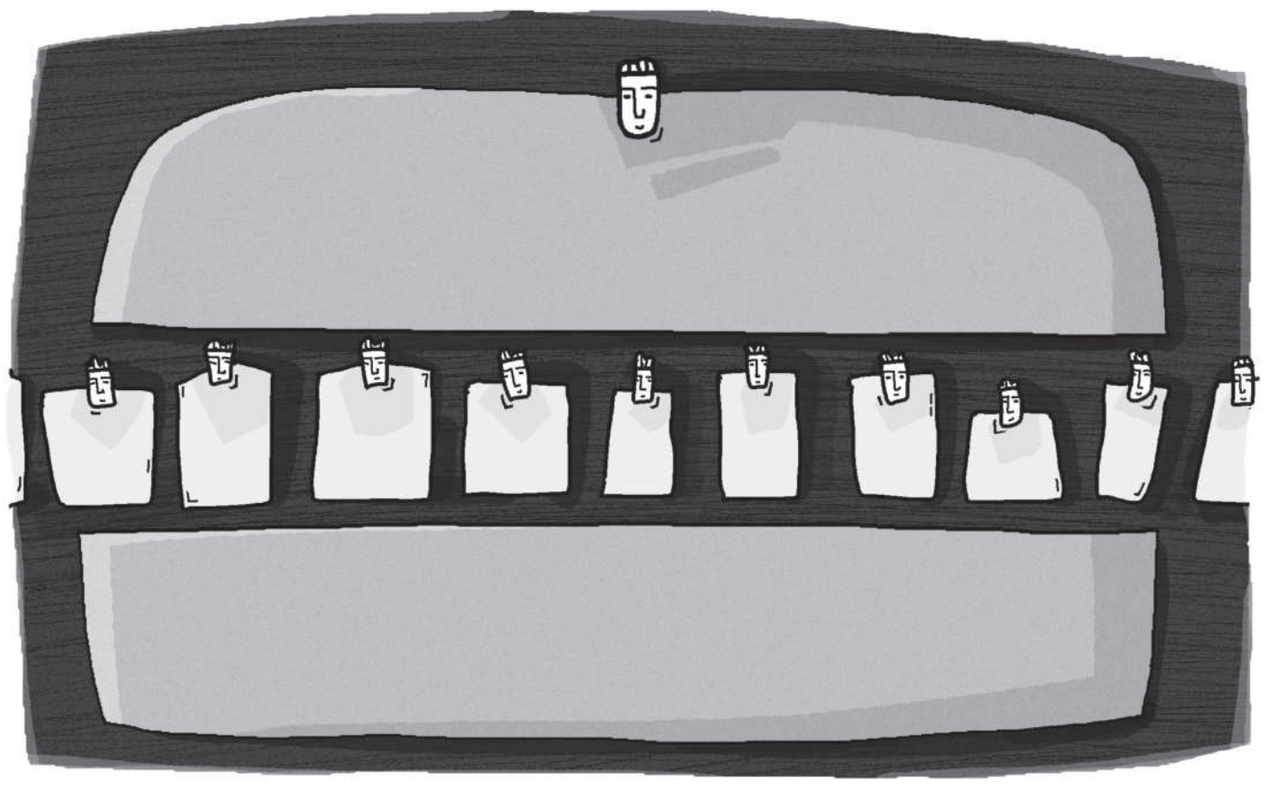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바로 행선입니다. 그런고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마는 '둘이 아닌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참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는 마음은 올바르게 말하는 마음이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 버리는 마음, 즉 말하자면 아집을 가진 마음을 놓으란 말이죠. 마음으로써 행이 나올 때는 항상 평등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는 전부 도반이고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다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로구나. 어마어마한 공부로구나.' 너무나 엄청나서 말도 할 수가 없으리만큼, 입이 딱 막히리만큼 그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절에 다니면서 '이만하면은 공부하는 거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요.

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천체물리학을 할 수 있고 과학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물건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고 공학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물질이 나왔습니까? 우린 자비의 칼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어서 그 악의 조건, 선의 조건을 다 우리 마음으로써 잘 보고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손아귀에 다 쥐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마는 잘 챙겨 들으시리라 믿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같이 밝고 밝은 세대에 연구를 해낸 물건들이 모두 서로 전쟁하는 데 쓰이고, 모두 죽이고 내가 차지하겠다는 마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굴뚝같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에 의해서 그런 연구를 제재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또 해 보지도 못하고 실험도 못 해 보고 맛도 모르고 이런다면은 그 하나마저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타개 못하고 조절 못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내가 벗어나서 내가 바른 데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거니와 사회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내 국가도 지킬 수 있고, 내 집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집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내 집만 지키고 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실험하고 체험해서 스스로 단단히 지키고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역사를 가져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안이하게,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그뿐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인 그 뜻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한테 운이라도 띄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대국에서는 연구들을 아주 열심히 해서 '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가서 큰 잠수함이나 비행기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을까. 어떡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조그맣게 새조떡 두어 개 한데 뭉친 것처럼 그렇게 작게 해 가지고도 그 크나큰 거를 다 흡수할 수 있을까. 또 요만한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덩어리를 아주 작게 해서 큰 덩어리를 반 쪼개 낼 수 있을까. 어떡하면은 음과 양을 한데 합친 탐지기나 망원경까지도 조절하고 모든 것을, 컴퓨터까지도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모든 거를 다 알고 보고 행해서 미리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나.' 이런 연구들을 서로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련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재빨리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좀 더 해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연구를 빨리해서 우리는 살고 상대는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좀 조절해서 안유하게 만들어 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주 필요합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쌍방이 똑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죽으니까요. 양쪽이 다 죽지 않고 한쪽만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눈을 까뒤집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모두 보고 듣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고, 이런 재료가 여러분한테 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보는 거 듣는 거를 우리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석이 끌어오는 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첨보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구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도 보이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죠? 물질로 볼 땐 "자석" 하지마는 우리들 마음공부에서는 "자력" 합니다. 안 그럴까요? 내가 표현이 틀렸을까요?

그렇다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 이끌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도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고도 또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도 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느니라. 삼천대천세계 우주 모두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생의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좁쌀 한 알갱이에 다 운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도 그릇이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공부란 얘깁니다. 이건 절에나 다니고 뭐, 음식이나 놓고 빌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났으면 그런 것을 끌고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만약에 자석이라고 합시다. 자석이 이만한 덩어리라면 요만한 덩어리로는 끌 수 없습니다. 거기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큰 바위에 계란 갖다가 붙이는 셈이죠. 그러니까 자석이 크다면,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자석이라면 모두 거기 가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태양에도, 달세계에도 모든 것이 그 분야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덩어리 바깥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

☞ A33면으로 계속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 리를 뛴다

☞ A32면에서 계속

문에. 물방울 같은 그런 아주 좁쌀 같은 거, 또 하다못해 콩 같은 고런 거, 그냥 물질이 아닌 물질, 물방울 같은 게 그 덩어리를 돌면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지원을 안 한다면 터져 버릴는지도 모르죠. 안에서는 안에대로 조절을 해서, 내면 내는 대로 복사체제로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이 들이고 내는 것을 완화되게 조절을 하죠. 통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던가요. 우리네 마음은 수시로 이게 찰나찰나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자동기입니다. 지금 어디 뭉쳐서 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을 자동기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여여한 자동기인데도, 자동적으로 마음 내는 대로 살게끔 고등 동물로, 즉 인간이라는 만물의 영장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과거의 습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마음이 자기를 옹쳐매 놓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 건데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 리를 뛰는데, 졸장부의 걸음걸이는 백 리를 뛰어도 한 걸음 뛴 것만 못하니라.

여러분은 육신으로써 벌어먹으려고 돈을 좇아서 그냥 막 뛰는데, 느긋하게 앉아서 끌어도 다 붙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걸음을 뛰어도 뛰는 거지, 몸뚱이로 그걸 좇아서, 요만한 걸 보고 좇아서 그냥 뛰면 몸뚱이 고달프죠, 병생기죠, 집안 가족 잘 못 지키죠, 신경질이 나니깐 또 화목하지 못하죠. 일일이 손해야, 일일이 손해.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있죠. 그래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날 위해서지.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또 둘이 아닌 까닭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 형제 아님이 어딨고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식 아님이 어딨습니까? 몸뚱이가 이 집 가서 한 철, 저 집 가서 한 철, 저기 가서 한 철,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게 내 부모라고 할까요? 어떤 게 또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부모는 그렇게 누구나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은데 어떤 게 내 부모라고 하고 어떤 게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 조상과 그 육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까? 그러게 "부모은중경"에서도 그랬죠. 이 몸을, 응신할 수 있는 이 몸을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배 속에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몸을 벗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모의 그 마음의 은혜! 모든 것을 한데 합치면 어떤 부모가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의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친어머니도 내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라고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까요.

어떤 때는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곤란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아니깐요. 사람은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하고 나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지킬 줄 아는 마음, 의리와 도의를 지키는 마음, 이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마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 자기 주인공을 믿는 마음은
> 올바르게 말하는 마음이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
>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 버리는 마음입니다.
> 즉 말하자면 아집을 가진 마음을 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지금, 새로이 지금 부처님이 써 놓으신 경서를 뒤집어 보면, 현재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과학적으로 가고, 지금 자동기로서 물질이 돼 있듯이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돼 있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혹성이 돌아가고, 별성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는 공부인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먹고 사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영령들, 그저 냄새나 맡고 사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사는 생명들이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사는 세계, 냄새 맡고 사는 세계, 먹고 사는 세계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냄새를 맡고 산다. 죽은 영령들도 냄새를 맡고 살기 때문에 시식을 지내 준다는 둥 천도를 해 준다는 둥 온통 이 야단이 나는 거지. 현실에서 자유자재하고 살면서 그 의식을 다 떠났을 때는 그건 죽어도 마음대로 자유자재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지, 냄새나 맡고 돌아다니면서 지지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지.

이렇게 곧바로 얘기해 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면은 보고 듣고 다 할 줄 알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통과야. 통과, 통과, 통과야. 그러니깐 표현하자면 주장자 하나 딱 들면, 똥그란 것이 하나 거기 얹혀 있는 셈이나 한가지니, 이거를 들면 그대로, 그대로 통과야, 다, 그냥. 아무 데고 다 통과라.

그런 데다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옛날에 어느 사람이 참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떻게나 욕심이 많은지 남의 것을 그냥 뺏어 먹으려고만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아휴,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주. 저기 어떤 사람 있어요. (대중 웃음) 남의 것도요, 돈을 꿔 줄 때에 삼십억짜리면 한 삼천만 원 꿔주고서요, 몇 해를 끌다가 나중엔 결국 제 걸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어떡하든지 소송을 걸어서까지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애쓰죠. 그렇게 남의 걸 뺏어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악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악종이냐 선종이냐, 이런 걸 놓고 볼 때 선(禪)에는 악종도 없고 선종도 없다 이러지마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계는 악종도 있고 선종도 있는데, 악종은 선종을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선종이 도리를 모르면은 무의식중에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서 악종에게 먹혀요.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끌려서 그 입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은 선종의 입을 벌리면 모든 악의 조건과 악종이 전부 선종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불바퀴에 굴러서 나오게 되면 그냥 천도가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안이하게 되고, 악 종류였었는데, 그 불씨로서 자비한 마음을 닮아서 체인지가 되어 가지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건질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악종으로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악 두목이 돼 버렸어요, 죽어서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모든 한 생각이 악이니까, 악 씨가 그냥 수만 개 헤아릴 수도 없이 나와서 어느 동네, 어느 나라를 덮쳤단 말입니다. 덮쳐 가지고는 그냥 막, 말하자면 그 영력의 피를 그냥 빠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쓰러져요. 모두 병들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타서 쓰러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 나라, 그럼 중국이라고 합시다. 그래 이웃 나라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막 그렇게 악종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종류를 보지를 못해. 왜, 반짝반짝하면서 돌아다니는 벌레 있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반딧불이, 반딧불이처럼 보이면서 사람 속에만 들어갔다 하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있는 거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과학적이 지금 이 현상 세계고 바로 우리 사는 이치니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이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큰 돌 속에다가 자그마한 돌을 넣어서 벌려 가지고 그 자력으로써 다 끌어들인 거죠. 안 그럴까요?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 속에다가 다 가둬 놨단 말입니다. 가둬서는 깊은 물속에다 탁 쳐넣어 버렸어. 그러니깐 왜, 꽃이 시들었다 물을 주면은 피어나듯이 그렇게 선종이 피어난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죠.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동네가 괴질로 인해서 다 타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는 동네에 들어갔는데도 수십만 명을 다 건졌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탁 닫아서는 천길만길 물속에다가 가둬 넣어 놓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아닌 반딧불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악의 씨죠. 그것을 전부 가두어 놓으니까 그 화초에 물을 줘서 살아나듯이 그 사람네들이 모두 생기를 되찾고 살아나거든요. 그러고는 그냥 타서 흠집이 났던 것도 자동적으로 꾸덕꾸덕해지고 낫고 말이야. 그분이 또 겉으로는 전부 약을 발라 주고 다니면서 다 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건 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십니다. 나도 그건 압니다. 그러나 도가 있기 이전에, 도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라 이거야. 앞에 닥치는 거를 마다하고 큰 거를 잡으려고 뛰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고 말죠, 도를 얻기 보다도.

그래서 도를 찾는다, 도를 이룬다 이러기 이전에 사람 노릇을 한다면,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하고, 길에 지나가다가 죽으러 가는 소 한 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소 하나도 '너의 육신이 소니까 사람한테 그 고기를 먹히고 너는 인간으로 환토를 해야지.' 하고서, 그 소 마음을 내 마음속에 탁 넣으면 소가 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전부 알아 버려요. 그러니깐 소가 이건 금방 사람이 돼 버려요. 금방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찰나에 사람이 됐어. 육신만 없다 뿐이지. 육신은 가, 지금. 의식을 빼 놓으면 소는 아프지도 않아. 큰 돌 같은 망치로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그건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이야. 의식을 빼니까, 마취한 거와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면서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모습만 각각이지 그 마음이야, 슬픈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고 끌려갈 때에 그 마음이나 소가 죽으러 가는 그 마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한데 넣었을 때 두드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의식이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을 다 알아 버리니까 그냥 내가 된 거죠. 내가 돼서 내가 또 좋은 데로 천도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깨나 하게끔 딱 천도를 해서 내놓으면 어디 가서 금방 태어나게 되죠. 임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큰 눈으로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둘이 아니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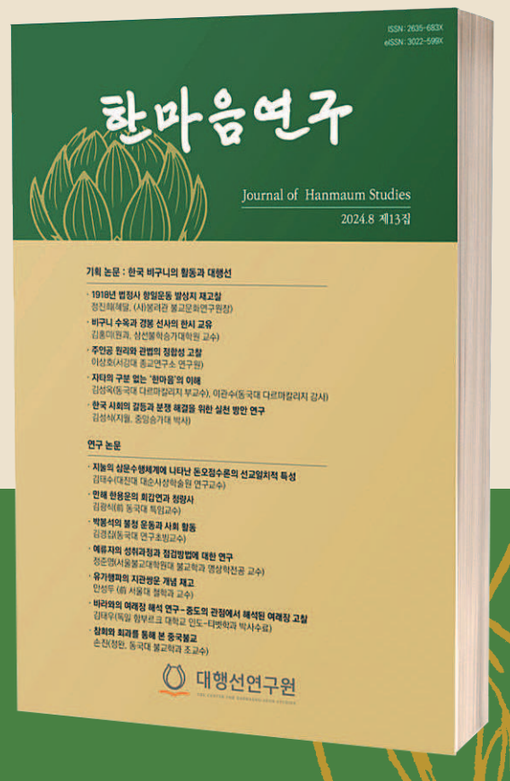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KCI 등재학술지 선정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양질의 논문을 투고해 주신 연구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앞으로도 〈대행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학 발전에 이바지하며,
많은 이들에 두루 이익이 되는 학술연구지가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논문투고안내

- 모집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행 예정 : 제14집, 2025년 2월 28일)
- 발행 주기 : 연 2회 (2월, 8월)
- 특 전 : 게재 논문에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사사표기료, 회원가입비, 심사비 없음)
- 홈페이지 : www.daehaeng.re.kr
- 문의 메일 : myogong@daehaeng.org (대표메일이 변경됩니다.)

「한마음연구」에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드립니다.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일동 합장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규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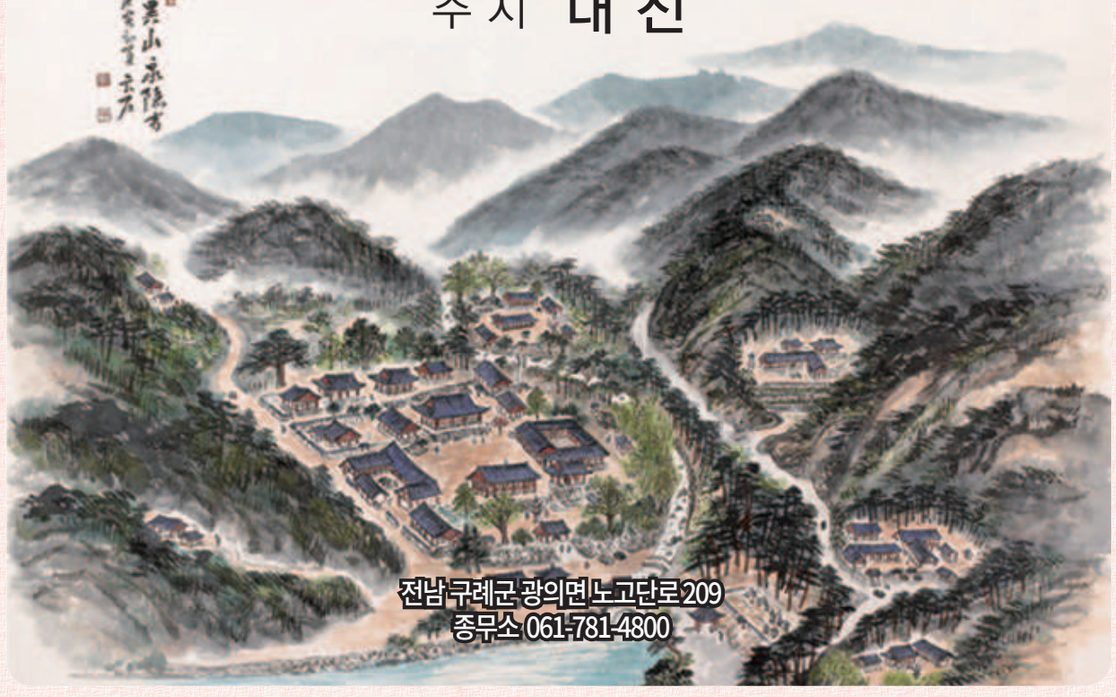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진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사부대중 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합장



광주 서구 운천로204번길 23-1 | 전화 062)373-8801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종무원

승정원

승정 금용암
승정 지남파
승정

중앙원로회의

의원 금명
의원 현호
의원 설봉

중앙종회의원

총무분과 위원장 원일
재경분과 위원장 지공
의원 연봉

지방원로회의

원로회 의장 금명

원로회부의장 금용
원로의원 도수
원로의원 서봉
원로의원 설봉
원로의원 남파
원로의원 현호
원로의원 도월

종무원

종무원장 월인
부원장
(중앙종회위원으로)
총무국장 심일
교무국장 초이
재무국장 명휴
문사국장 도진
사무장 자비심

지방종회

의장 도안
수석부의장 여허
차석부의장 우도
총무분과 위원장 지공
위원 법용
위원 승휘전법사
재무분과 위원장 법진
위원 도봉
위원 덕산
법사분과 위원장 연봉
위원 영휴
위원 대응
교무분과 위원장 원일
위원 도허
위원 성법
문사분과 위원장 보현
위원 혜양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 062-375-1820 FAX:062-381-0944

新年隨想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동명 스님
잠실 불광사 주지





그림 · 최주현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함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는 것이 자신을 알아차림이고 공함 알고 오온 내려놓음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 답을 제시해주셨지만,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질문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면, 어떤 불자는 "불법(佛法)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게 되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손해 보게 될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어느 날 나는 〈반야심경〉의 첫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타주의의 대명사 같은 관세음(관자재)보살님이 보살행을 펼치기 전에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위 문장에서 온갖 고통을 극복하는 주체는 바로 관세음보살, 애초에는 관세음보살도 자신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관세음보살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출발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게 되며, 결과적으로 온갖 고통에서 건너게 된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행'을 행하자 자연스레 오온이 공한 것을 알게 되었고, 오온이 공한 것을 알게 되자 오온에 대한 집착도 버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온갖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의도적으로 실천한 것은 '깊은 반야바라밀다행'일 뿐이니, 그의 자신을 위한 사랑법은 곧 '깊은 반야바라밀다행'이라 하겠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 한 문장으로만 하라고 하면, 나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답하고 싶다. '진정으로'라는 부사어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실은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기 십상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애착이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한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곧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다. 둘째, 자신을 알아차려야 한다. 곧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아야 한다. 셋째,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곧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아차리고 오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현대인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몸매를 돌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클럽에도 가며, 건강을 위해 영양제도 먹는다. 그러나 이런 자기 관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자아가 사회에 내보이고 싶은 자아인 에고와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 할 수 있는 셀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기 관리의 대부분이 셀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에고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산사에 있을 때, 젊은 청년의 49재를 지낸 적이 있다. 부부싸움이 잦은 집안의 젊은 아들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청년의 불만은 어머니가 할머니나 고모 등 본가 식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머니의 아들인 자신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긴 해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까 두려워 가족들의 아내에 대한 처우를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다.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청년과 어머니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죽기보다 싫었다.

나를 찾아온 청년의 아버지에게 나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자신 이전에 '알몸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들간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보시라고 제안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니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아내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아내와의 사이도 좋아졌고, 본가 가족들과 아내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전해왔다. 아내보다는 본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는 자아가 에고였음은 물론이다.

불교 교육을 받은 적 없는 한 신도가 어느 날 상담하러 왔다. 한 무당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당이 자식들이 단명할 운명이니 천도재를 해야 한다고 권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법구경〉 113송)라는 게송을 전하면서 전화기에서 무당 전화번호 지우고 불교기본교육을 받으라고 했다. 그 신도의 자녀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부처님 시대 빠따짜라는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다가 남편과 아이들을 잃었고, 지친 몸으로 친정에 갔더니 친정집마저 폭우에 휩쓸려간 이후였다. 반미치광이가 되어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게 되었고, 발을 씻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빠따짜라를 격려하면서 읊으신 게송이 〈법구경〉 113송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신'은 몸과 마음으로 나뉘는바, 여기서는 마음에 해당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실로 온갖 생각의 숲속에서 한시도 쉬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은 공원이나 숲길을 산책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일과 의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잘 돌보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면, 그는 '진정한 이기주의자'다. '어설픈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욕망을 챙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시킨다. 자신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이기주의자'다. 새해에는 나도 '어설픈 이기주의자'를 떠나 '진정한 이기주의자'로 살아볼 생각이다.

社說

'일취월장'하는 불자가 됩시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밝게 떠오르는 신년 일출을 그저 기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내 자신도 침잠돼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새해에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다짐이 필요하다.

현대불교신문은 2025년 신년특집으로 '몸 튼튼 마음 튼튼'과 '슬기로운 불교생활'을 내놨다. 두 특집의 대주제는 '정진'이다.

'몸 튼튼 마음 튼튼'은 마음을 담는 그릇인 '몸'을 주제로 한다. 몸이 병들고 아프면,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지듯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과신한 나머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년에는 한번쯤은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계획을 세운다. 물론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몸 튼튼 마음 튼튼'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있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수행과 기도를 잘 하기 위해 달리는 스님부터 꾸준히 복싱을 수련하는 불자 교수, 국궁의 매력에 흠뻑 빠진 대학생 불자까지 모두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매일을 정진 중이다.

'슬기로운 불교생활'은 불교를 처음 믿는 초심자를 위한 특집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교를 믿고 싶은데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묻는 글들이 제법 올라온다.

10여 년 전만 해도 사찰들이 대부분 도시보다는 산에 있기에 접근성이 낮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한 지금은 앞선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특집 '슬기로운 불교생활'에서는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의 친근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담아냈다.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이 왕초보 불자에게 전하는 어드바이스부터 불교 덕후임을 자부하는 선배들의 신행담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좇으면 불교 입문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선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죽을 각오로 한다. '이만하면 되겠지'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사들의 공부법이다.

〈무문관〉 제46칙에 이르기를, 석상 화상이 말했다. "백 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또 옛날 큰스님은 말했다. "백 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비록 어떤 경지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백 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서 반드시 한 걸음 나아가야, 시방세계가 자신의 전체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정진이고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것이다.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올해에는 물러섬이 없는 정진을 해보시길 바란다. 그것이 수행이든 운동든 공부든 목표를 세우고 정진해야 한다. 그리하며 '일취월장'하는 불자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총무원장 석 도 선 종단고문 석 암 도

승정원 대승정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장 석법령 위원 석일우 위원 석도명 위원 석청산 위원 석체법 위원 석일두 위원 석혜천 위원 석일현 위원 석진공 위원 석보각 위원 석해공 위원 석보현 위원 석법광

총무원
총무원장 석 도선 / 교육부원장 석 원융 / 비구니회장 석 보현
중희의장 석 일두 / 호법원장 석 종허 / 기획원장 석 담허
어 산 장 석 도암 / 감찰원장 석 원허 / 의전원장 석 법도
부 원 장 석 대공 / 총무부장 석 성덕 / 감찰부장 석 성보
조사부장 석 성도 / 수행부장 석 성현 / 사회부장 석 자광
사서부장 석 성우 / 조직부장 석 성각 / 종무부장 석 성안
문화부장 석 성타 / 포교부장 석 천지 / 연수부장 석 원희
총무국장 석 성민 / 지원국장 석 해인 / 봉사국장 석 성광
포교국장 석 혜진 / 포교국장 석 법정 / 포교국장 석 성원
의전국장 석 균중 / 수행국장 석 성조 / 종무국장 석 성진
문화국장 석 원종 / 의식국장 석 성탁 / 사서국장 석 성오

비구니회 회 장 석 보현 부회장 석 효성 부 장 석 지현 국 장 석 반야
위 원 석 성안 석 천지 석 성원 석 호준 석 현도 석 혜현 석 원조 석 현덕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 천 각 / 제주중앙종무원장 석 의 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 명 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 성 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 홍 재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 혜 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 원 해 / 대전중앙종무원장 석 선 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 체 법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 문 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 태 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 도 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 성 원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 함 월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 청 암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 일 지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동우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진허

종립미래로봉사회
희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 임원
울산원장 법 광 / 전남부장 혜 명 / 포교국장 청 운
종무원장 성 종 / 대구부장 혜 련 / 통영국장 덕 인
홍보원장 원 명 / 충북부장 상 학 / 화순국장 보 정
구미부장 혜 진 / 포교국장 덕 운 / 포교국장 혜 경
부산부장 혜 성 / 종무국장 도 연 / 칠곡국장 보 혜
경기부장 자 운 / 서울국장 명 덕 / 창원국장 혜 운

법인단체임원 대표이사 석 도선 등기이사 체법 일두 성만 학산 성우
운영이사 성덕 청암 의공 도명 성원 감 사 성조 성민

총본산 · 총무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謹賀新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FOUNDATION

동국발전 불교중흥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부처님 법 전하며 힘차게 정진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장 돈 관

WISE캠퍼스총장 류 완 하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채 석 래





WISE캠퍼스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 대학



서울캠퍼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기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DUICA / 만해마을수련원 / 일산장례식장

몸 튼튼 마음 튼튼



그림 · 김상규

2025년 우리의 '건강한' 다짐

"몸 다스려야 마음도 다스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대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만들어라."

웹툰 '미생'에 나오는 대사 중 일부입니다. 여러 동기부여 '밈'에서 활용될 정도로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대사입니다.

불교에서는 심신불이(心身不二)라고 해서 "몸을 다스려야 마음도 다스린다"며 몸과 마음의 수행 모두를 중요시했습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겠지요.

2600년 전, 부처님께서도 당신을 따라 마음공부 길에 본격적으로 나선 출가제자들의 낯빛 거동을 살피며 항시 '건강한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법구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도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건강할 때 복덕을 지어라"고 강조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2025년 신년특집 〈몸 튼튼 마음 튼튼〉에서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 사부대중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올 한 해 마음을 담는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년을 맞아 운동을 수행 삼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심 있는 불자를 찾아 인터뷰하고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불자 되기를 제안합니다.

또 그룹운동과 요가, 선무도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 사찰 문화센터를 소개합니다.

대행 선사께서도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몸을 기울이며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보는 것 어떨까요. 현대불교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2025년 새해에도 몸을 잘 움직이고 마음을 맑게 닦아나가며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붓다도 말씀하셨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몸 튼튼 마음 튼튼

붓다에게 배우는 몸 건강법



마을로 탁발을 나서는 남방불교의 스님들.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 처음한 일은 대중과 함께 맨발로 탁발을 나가는 것이었다. 사진출처=현대불교신문 DB

몸의 안부를 묻다

2600여년 전, 코살라국 말리까왕비가 부처님에게 안부를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불편하시거나 아픈 데는 없습니까? 몸은 가볍고 기력이 있고 편안하게 머물고 계십니까?"

아늑한 가정에서 안락하게 지내지 않고 집을 나와 집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부처님의 건강을 살뜰하게 챙기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몸은 가뿐하면서도 활력이 넘치고,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편안한 것이 '건강'의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 마음공부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선 출가제자들을 향해 부처님은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출가 생활이 견딜만한가? 잘 지냈는가? 탁발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가?"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제자들의 낯빛과 거동을 살피며 힘들거나 불편하지는 않은지 다정하게 묻는 스승의 이 질문은 한 마디로 '건강한가'입니다.

불교를 가리켜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녀석은 야생마와도 같아서 잘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니 부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몸입니다. 그러자니 길들지 않은 야생마 같고 부산하기 이를 데 없는 원숭이 같은 이 마음을 담고서 평생을 지내야 하는 이 몸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특히나 몸이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법구경〉에서는 "아름답게 꾸며진 이 몸을 보라. 상처투성이에 병들고,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며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이 몸은 낡아 가고, 질병의 둥지이고, 부서지기 쉽다. 썩은 몸은 흩어진다. 참으로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이라는 그릇이 이렇게 유약하기 이를 데 없으니 마음을 챙기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몸도 잘 챙겨야 합니다. 그토록 마음공부를 강조하는 부처님도 〈법구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몸이 더 중요한지, 마음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둘을 다 잘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련법 소마틱스 전문가인 보니 코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몸은 모래와 같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고 싶으면 모래를 보면 된다."

마음이 이리저리 흘러간 자취가 고스란히 몸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마음이 쓰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이 병들고,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서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무엇이 더 우선인가 하는 질문은 이제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건강을 해지는 붓다의 하루

석가모니 부처님은 건강을 챙기려고 딱히 운동했다거나 보양식을 챙겨 드셨다는 기록이 경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의 하루일과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①아침, 맨발 걷기= 부처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빈 발우 하나를 들고서 마을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오염되지 않은 흙바닥을 걷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단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싱(earthing)'이라 부르는 맨발 걷기를 부처님은 카필라성에서 출가한 이후 80세에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실천했습니다. 절이나 숲과 마을의 거리는 얼마쯤 될까요? 탁발을 마친 뒤에는 다시 걸어서 돌아왔으니 부처님이 하루에 1만 보 정도는 예사로 걷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②소식 · 천천히 먹기=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마을에서 다시 집집마다 다니며 한 끼의 식사를 청합니다. 정해놓은 메뉴도 없고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기거나 주문해둔 식단도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건 거친 음식이건 사람들이 발우에 담아주면,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앉아서 손가락으로 꼭꼭 뭉쳐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마음챙김을 잊지 않은 분이셨으니 급하게 음식을 드셨을 리 만무합니다. 씹고 또 씹으면서 음식이 침과 뒤섞이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음식이 내 몸속 어느 기관을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찰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하루 시작 맨발걷기
마을곳곳 맨발로 다니며 탁발
호흡 집중하며 몸 · 마음 이완
절제하는 삶, 육체 · 정신 도움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평생 이어 나갔고 그 이점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살면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몸이 가뿐하고 언제나 활력이 넘치며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

부처님 식사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식사하는 데에 분량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의 분량은 단순히 밥의 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밥을 먹는가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스러운 제자는 유희나 허영, 몸의 사치를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몸을 유지하고 목숨을 잇기 위해서, 이미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을 먹으면서 '나는 이전의 괴로움을 끊고 새로운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고 허물이 없으며 안락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량(몫)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한 끼의 소량의 식사로는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활동량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하루 한 끼 식사법이 무난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또한 술이나 약물 등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③낮 동안의 휴식= 부처님과 제자들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배출하는 세속의 삶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온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참선하고 사색하고 법문하고 한 끼 탁발하는 일 외에는 쉬었습니다. 하루 한 끼 탁발을 마친 뒤에는 마을 근처 숲이나 나무 아래에 가서 오후 내내 소화를 겸한 휴식과 명상을 취했습니다. 부처님의 하루일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종일 뛰어다녀야 하는 현대인이 볼 때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만 돌이켜 보면 현대인도 쉬어줄 시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일, 늘 사람들을 불러내고 찾아다니는 일, 운동을 할 때조차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일, 이런 일들을 조금만 줄이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보기를 권합니다. 일단 마음이 쉬게 되고 몸이 편해집니다. 굳이 참선이나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④호흡에 집중하기= 부처님은 하루 온종일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주의 깊게 호흡의 드나듦을 의식하면서 외부로 흩어져 있던 마음을 안으로 다잡아 들였지요.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기본 운동입니다. 호흡이 드나드는 것을 헤아리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을 지켜보게 됩니다. 내 몸 어느 곳이 긴장해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결과 무엇이 압박을 받는지를 알게 되지요.

몸이 긴장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은 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잡념을 불러옵니다. 그 긴장을 풀되 몸에 집착하지는 않는 일, 수식관을 이렇게 이어가다보면 뇌가 깨어나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른 운동과 연결시켜 보면 몸의 균형감각이 좋아지고 근육과 관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쌓이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깊은 호흡법을 통해서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허리둘레가 줄어들게 되니 꼭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⑤깊은 잠= 초저녁을 지나 밤이 찾아오면 부처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잠드는 일조차도 유념하고 주의합니다. 몸을 지치게 하지 않았으니 곯아떨어지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지도 담고 있지도 않으니 불면증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가지런히 몸을 누이고 곧 일어나겠다는 생각 하나에 마음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금강처럼 건강한 부처님 몸

이렇게 부처님의 하루일과를 좇다보면 그 몸과 마음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을 가리켜 유마거사는 "부처님 몸은 진리의 몸(法身)이라서 병 따위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은 고스란히 몸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미 생겨난 이 육신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을 일상에서 잘 살피고 보듬고 절제를 통해 단련하는 일은 마음의 해탈을 부르는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몸의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밝고 즐거운 마음을 담아야 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미령 경전이야기꾼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동래구불교연합회

회 장	자비암	자관스님			
전임회장	용문사	용하스님	고문	금어암	월강스님
부 회 장	진불사	정현스님	부회장	몽불사	법관스님
감 사	금용암	보현스님	총무국장	연화사	지운스님
재무국장	용화사	성화스님			
회원스님	효심사	효문스님		법륜사	각진스님
	무량사	법천스님		용수달마사	해운스님
	반야선원	유심스님		미타선원	무상스님
	영주암	지훈스님		무심사	도화스님
	지장본원사	정도스님		해동정사	정호스님
	약수정사	지만스님		천불암	혜민스님
	명신사	문수스님		무량사	진명스님
	일심정사	지안스님		해수관음사	보해스님
	보문사	보문스님		무량정사	법광법사
	안정사	윤하법사			



나는 세상에 하나뿐!
나의 원불도 하나뿐!

거제도 명당에 불교의 세계를 담은 세계건축
명장의 설계와 나만의 도자기 부처님으로
신개념 불교센터 사원을 건립합니다.

창건불사에 인연공덕 지으십시요!

원 불 108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오오!일사천리)

거제도 더 뷰;ㅁ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 재 생 신도회장
이 영 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smile!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비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 지 청 암 자 관
총 무 정 웅

신도일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 법 합 창 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6223-4375
거 사 합 창 단 단장 010-3860-4258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마라톤 수행…"몸·마음 균형 찾는 시간"

'마라톤 수행자' 지찬 스님

수행 위한 좋은 체력 위해 러닝 시작
하루 10km 기본으로 달리며 몸 단련
'러너스 하이' 경험…움직이는 삼매
내년 200km 울트라 마라톤 도전도

지찬 스님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을 확인하고 수행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시간이다. 지찬 스님이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는 의외로 단순하다. 기도 중 호흡이 가빠 집중하기 어려웠던 순간 스님은 자신의 체력이 수행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기도를 하려면 마음이 차분해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마음도 흔들리더군요. 처음 뛰기 시작했을 땐 단순히 체력을 키우려는 목적이었죠. 달리기를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됐고 그것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로 이어졌어요. 러닝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됐습니다."

기도와 명상이 정적인 수행이라면 달리기는 동적인 수행이었다. 스님은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균형을 찾았다.

"걸음 하나, 호흡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어요."

지찬 스님의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에는 명상과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고 오후에는 러닝으로 몸을 단련한다. 하루 평균 10km는 기본으로 달린다.



들숨과 날숨, 거친 호흡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려는 과정은 깊은 '삼매'와 닮아있다. 스님은 마라톤을 뛰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움직이는 삼매'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달릴수록 기분이 상쾌해지는 쾌감인 '러너스 하이'를 처음 경험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거친 호흡 속에서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다 보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순수한 평온함만 남습니다. 명상에서 느꼈던 삼매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달리기 중 호흡을 조절하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지찬 스님에게 매번 새로운 도전이자 수행이다. 고통과 평온이 공존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러닝을 시작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깊이 체감했다는 스님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찬 스님은 지난해에만 13개의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기록보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대회 중에는 주변 사람들 속도에 흔들리지 않으려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지만 스님은 자신의 리듬과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지찬 스님은 "몸 건강 없이는 마음 수행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몸을 돌보는 일이 단순히 신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스님은 "신체와 정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찬 스님은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욕심을 버리고 작고 천천히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천천히 걷고 호흡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속도를 내려고 애쓰기보다는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더 중요해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으로 달리기는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스님의 러닝 철학이 엿보이는 순간이다. 지찬 스님은 마라톤을 수행의 방편으로 권하기도 했다. 스님은 "긴 호흡을 유지하며 달리는 마라톤은 명상과 닮아있다"면서 "달리기를 통해 호흡을 바라보는 힘이 길러지고, 명상에서의 집중력과 연결된다. 운동으로 몸이 변할 때 마음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찬 스님은 2025년 200km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한다. 이후 537km 대한민국 종단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 아닐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수행의 길, 지찬 스님은 대회를 준비하고 완주하는 것을 넘어 달리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임은호 기자

몸과 마음 트는 여행

"맑은 육체에 맑은 정신 깃들죠"

'선무도 수행자' 김재연 사범

6세 선무도 입문…전업 사범이 꿈
짧은 들숨, 긴 날숨으로 평안 유지
한결같은 호흡으로 몸 · 마음 하나로
세계에 선무도 예술 알리는 게 목표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근심을 없애기 위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유일한 법을 여기에 가르쳐 주노라." 〈대념처경〉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의 비법은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수행이었다. 불교 수행은 정신뿐 아니라 몸 수행을 중시한다. 오래전 인도에서 전해진 정신과 몸의 불교 수행 전통이 오늘날 '선무도(禪武道)'로 이어지고 있다.

선무도는 불교전통수행법 중 하나다. 요가와 명상, 그리고 무예를 아우르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닦는 수행법이다. 전문가들은 선무도를 현대인들의 갖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불균형을 조화롭게 회복하는 운동법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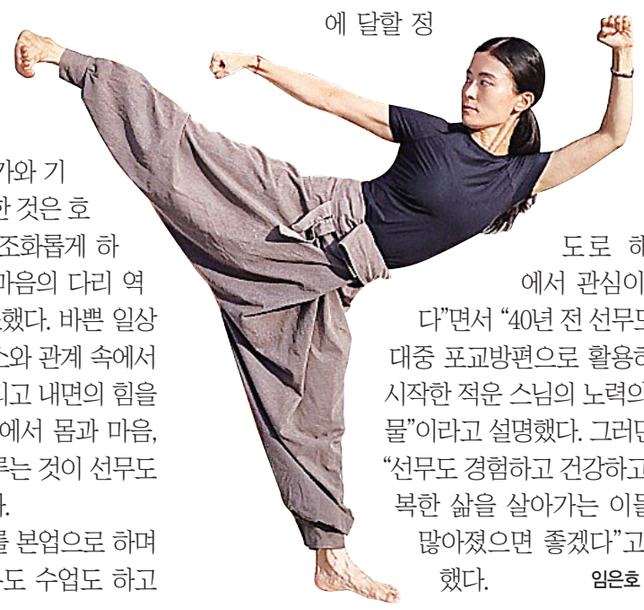
김재연(32, 법련) 선무도 사범도 처음에는 신체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선무도를 시작했다. 허약한 딸이 안쓰러웠던 아버지는 6살 딸의 손을 잡고 선무도 도장으로 향했고,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또래들은 태권도와 발레를 배울 때 김 사범은 선무도에 빠졌다. 때로는 연체동물처럼 부드럽게 다리를 움직이다가도 힘있게 허공을 가를 때 쾌감이 좋았다. 팔과 다리가 자유롭게 유영하지만, 호흡은 한결같다. 그때마다 맑은 육체에 맑은 정신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부에 집중하고자 선무도를 내려놨다. 공부와 일에 몰입해 정신없이 20대를 지내다 어느 날 몸이 아파왔다. 아픈 몸은 마음에도 영향을 줬다. 공허함과 후회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을 삶에서 떨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무도가 떠올랐다.

10여 년 만에 선무도를 다시 시작했다. 수련을 하면 할수록 좋았다. 불교공부에도 심취하며 닥치는대로 경전을 읽었다. 불교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임을 알게 됐다. 문득 이 수행법을 많은 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충주 명상센터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3년동안 수련과 강의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선무도 총본산인 경주 골굴사에서도 1년 반을 머물며 사범 생활을 이어갔다.

"선무도 자체가 신행생활이었어요. 골굴사에 머물며 수련과 강의, 다양한 울력을 하며 불교 공부를 깊게 하다보니 마음이 환희심으로 가득참을 느끼게 됐죠. 108배와 좌선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매일 매일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됐어요."



본격적인 선무도 동작 전, 선요가와 기공으로 기초를 다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김재연 사범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수련의 목표인데, 몸과 마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강조했다. 바쁜 일상에서 쌓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시간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 호흡의 건강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무도라는 것이 김재연 사범의 설명이다.

현재 김재연 사범은 요가 강사를 본업으로 하며 세종전통문화체험관 등에서 선무도 수업도 하고 있다. 차츰차츰 요가 수업을 줄이고 선무도 수업을 늘려 사범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염원한다. 얼마 전부터는 10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선무도 공연단을 만들어 세계에 선무도의 예술성을 알리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그는 "골굴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해보니 선무도 참가자의 80퍼센트가 외국인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 관심이 높다"면서 "40년 전 선무도를 대중 포교방편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적운 스님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무도 경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 org
TEL 02)3218-4800 FAX 02)544-2141



“건강 관리하고 봉사하며 심신도 키워요”

생명나눔 야구단

교사 · 불암사 신도 등 20명 사회인 구성
일면 스님 원력으로 출발, 신행 활동도
창단 첫해 4강…수 차례 우승 최강기량

새벽에 흩날린 눈으로 지면이 꽝꽝 얼어붙은 12월 중순의 주말,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남양주 한 야구장에 ‘야구인’들이 모여들었다. 야구를 좋아하는 스님과 불자들로 구성된 ‘생명나눔 야구단’ 단원들이다.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한 생명나눔 야구단은 연습경기에서 상대편과 열띤 경합을 펼쳤고 5:3으로 역전 우승했다. 얼어붙은 날씨에 피곤이 가시지 않은 주말 오전에도, 선수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다.

생명나눔 야구단은 야구를 좋아하는 스님과 불자들로 구성된 사회인 야구단이다. 2009년 10월 1일, 불암사 회주이자 야구팬 일면 대종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의 원력에서 출발한 ‘불암사 불일회 야구단’이 그 시작이다. 2011년부터는 사회인 야구리그인 남양주리그에 속해 본격적인 경기를 펼쳐왔다.

일면 대종사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재직 시절,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스포츠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스포츠 선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스포츠 포교 역시 포교의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창단 당시 ‘불암산 불일회 야구단’에는 프로야구 스타 출신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은 전 LG트윈스 감독, 최정기·배재고 야구부 코치 등이 대표적이다. ‘불암산 불일회 야구단’은 사회인 야구단 창단 첫해 4강전에 올랐고, 이후 여러 차례 통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강의 기량을 선보였다.

올해 초, 외연을 넓히기 위해 ‘생명나눔 야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불암사 신도와 광동학원 교직원을 주축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20~60대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MBC 청룡 투수 출신 야구해설위원 이광권 위원이 감독을 맡아 20여 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야구는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상당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는 스포츠인 만큼, 운동과 체력 관리가 필수다. 단원들은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 체력을 유지하며 건강관리에 힘쓴다. 경기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한다. 새해나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부족한 사찰 일손을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돕는다.



또 함께 전국 사찰로 성지순례를 떠나기도 하면서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열성 불자가 아니어도 어느새 사찰에 가는 일이 일상이 됐다.

단원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관리,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이렇게 불교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큰 강점으로 꼽았다. 이런 불교 활동은 팀원들 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단원들의 설명이다.

장일형 단원은 “경기 중에 땀 흘리며 집중하는 과정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불교포교, 친목도모, 신행활동 강화라는 생명나눔 야구단 창립 목적에 맞게 꾸준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권 감독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재미있는 야구를 하고 싶다”면서 “전국의 불자들이 함께하는 사회인 야구리그를 꿈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즐겁게 운동하면서 신행활동도 하고, 스님을 모시고 선행하면서 불교를 많이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목표”라면서 “조금더 욕심을 내자면 스포츠인만큼, 2025년에는 우승의 기쁨도 맛보고 싶다”고 말했다.

남양주=임은호 기자

화살에 담은 中道心 “안정돼야 성장해요”

김동건 궁사(弓師)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반한 國弓
처절한 첫 실패, 수행정진의 시작
결과 집착 버리고 찾은 中道 자세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건 당연히 메달권이지”라고 단언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양궁. 일정한 거리 밖의 과녁에 화살을 맞추는 경기인 양궁은 환경과 선수 개인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아 편차가 크다. 이런 스포츠 종목에서 한국인들이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뿌리를 ‘국궁(國弓)’에서 찾을 수 있다.

‘뿌-’하는 뱃고동 같은 알림 소리가 너른 대지를 채운다. 이것은 145m 거리의 과녁을 맞추면 들리는 소리. 국궁의 과녁은 점수판이 아닌 ‘목표’다. 정중앙과 외곽 중 어디를 맞추든 뱃고동을 울려 궁사에게 목표를 맞췄다고 알려준다. 경주 호림정에서 만난 22세 김동건 학생은 “오늘따라 화살이 과녁을 잘 찾아가네요”라며 웃어보였다.

김동건 학생은 동국대 WISE캠퍼스 중앙동아리 ‘동궁(東弓)’ 궁사다. 사극 〈선덕여왕〉에 등장한 활 쏘는 인물에 빠져든 동건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국궁 동아리에 가입, 궁사로서 삶을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불자인 그는 스포츠보다는 수행의 방편으로 활을 쏜 지 3년 차에 다다른다. 수많은 국궁 대회의 순위권을 차지하는 동안 그는 ‘중도(中道)’ 찾는 법을 터득했다고 말한다.

국궁 동아리에 가입하면 몇 주간 활의 시위를 거는 방법, 궁사로서 몸과 마음의 자세 등을 배운다. 화살 쏘는 법도 배우지만 처음부터 내 뜻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게 동건 학생의 설명. 겨우겨우 145m 밖의 과녁을 맞춰 ‘뿌-’ 소리를 들으면 해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밀려온다.

집중과 노력으로 첫 ‘몰기(국궁 궁사에게 주어지는 화살 다섯 발을 모두 과녁에 명중시키는 것)’를 성공하자 동건 학생은 전국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궁사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차올라 대회에 접수했다. 매 주말마다 궁장에서 훈련하고 집에서도 몸을 단련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대회 당일, 선수 자리에 서자마자 긴장감이 몰려왔다. 머릿속에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훈련을 도와준 선배랑 사부님께 부끄러울텐데’ 등 고민과 걱정이 밀려들어왔다. 결국 화살 단 한 발도 못 맞추고 떨어지고 말았다.

동건 학생은 당시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했다. 잘해야겠다는 욕심과 선배들에 대한 부러움, 떨어졌을 때 창피함…. 그는 “‘첫술에 만족할 수 없다’는 말과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精進)’의 중요성을 깨달아 ‘계속 정진하자’는 생각으로 대회 이후 더 열심히 훈련했다”고 말했다.

훈련을 거듭하며 동건 학생은 ‘내려놓음’을 배웠다. 그는 “‘과녁을 반드시 맞추겠다’ ‘순위권에 들겠다’는 생각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임하고자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연연하지 않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이후 대회부터는 순위권을 놓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되 본인을 믿어야 한다는 불교 교리에 감명 받았던 동건 학생은 국궁을 상과 상금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중도’를 찾는 수행 방편으로 삼았다. 이후 집중력이 향상되고 교우 관계까지 좋아졌다. 그는 “취미로 시작한 국궁을 통해 불자로서 인생의 자세를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계속 불자이자 궁사로서 삶을 다짐한 동건 학생은 과녁의 어디를 맞춰도 ‘너 잘했다’고 인정하는 국궁의 기준이 성과를 위한 편법보다 중심을 찾는 삶의 마음가짐을 가르쳐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중도라는 불교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국궁을 평생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경주=김가령 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대 중 효 성, 일 겸, 일 준
수 호, 수 담, 일 월, 일 산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관리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관리주임 황재훈(무영)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효 능
최종남, 류기석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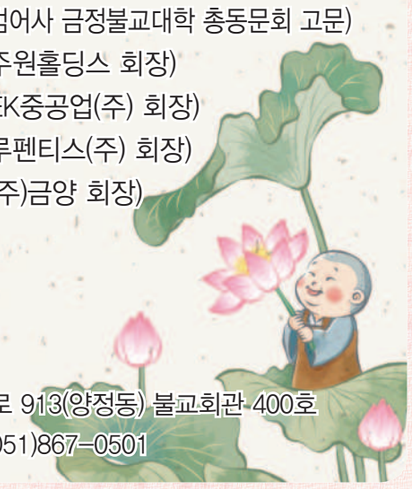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범어사 신도회장)
상근부회장 **박대성**(해운정사 신도회장)

부 회 장 **김수현**(BTN불교TV 부산지사장)
하정선(불교TV 염불공양회 회장)
김도연(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고문)
박정순(주원홀딩스 회장)
박종운(EK중공업(주) 회장)
김대명(루펜티스(주) 회장)
류광지((주)금양 회장)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00호
전화 051)867-0501

금정구사암연합회

고문	정오스님	범어사
	고담스님	천불정사 회주
	춘광스님	광명사
	계전스님	국청사
	월인스님	승가종 종정
	동원스님	연화종 종정
회장	동암스님	금용사
수석부회장	법일스님	법장사
상임부회장	홍일스님	법전사
사무총장	법경스님	천불정사
감사	운곡스님	관음사
호법국장	정수스님	지장암
기획국장	보산스님	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	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	구룡사
포교국장	현수스님	홍법사
재무국장	박분순	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	대흥사
복지국장	보명스님	승용사
	승공스님	칠보사
회원	진여스님	다보사
	지훈스님	해동정사

금정구 사암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201
금용사 內 | Tel 051)518-8507

부산진구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백설 인수
회 장 영제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대유 시광
부 회 장 무심 법지, 정목정사, 지명 지원
사무총장 해운 도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선혜
의 전 석만 도관, 월화 법봉
회 원 안국, 월륜 춘제, 경록 보원, 송현 대원, 승호 원종, 보각, 진여, 보혜, 지현,대화, 법진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 장 **대 둔**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 장 **묘 선**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수현**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大韓佛教 天台宗 光明寺

부산 금정산 **광 명 사**

주 지 **변춘광**

사부대중 일동

정 기 법 회 매월 2주 오전 11시
법 화 산 림 법 회 매월 1주·3주 일요일 밤 9시
생 활 명 상 법 회 매월 4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명사 법화합창단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1 전화 051)581-1331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현**

사부대중 합장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지금선명상센터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김수현
자문위원 정창교 최영호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효근
회 원 강석진 공영석 김선조 김기호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오식 이윤희 이정출 이학우 조보익 진남일 최대경 최태식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부산경찰청불자회

회 장 강용창
부회장 김현길
오주연
총무국장 신용필
포교국장 강미아
홍보국장 김정화

부산경찰청불교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경찰청 1층 법당
전화 051)852-1419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회 장 정분남
고 문 왕선자 류영남
자문위원 정찬스님 홍도스님 백명숙 이성희 장홍자 박영선
감 사

수석부회장 황곡자
부회장 한순점 정정자 김정연 이해숙 이동희 하승우 최성숙 김희경 곽해숙 유영임 차선혜 연화신

재 무 여소현 여미란
회 계 이원희
총 무 김미옥 성희강
봉 사 이명희
다도부장 박유순

부산여성불자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사)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 운영 이사장 심산스님

이 사 장 차정연
이 사 이석래, 박희선, 박진호, 윤기선
부 회 장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윤기선, 윤유점, 우아지, 이순선, 최선희, 보혜스님
감 사 차달숙, 박선옥
편집주간 양원식
편집국장 이소정(사무국장 겸직)
편집위원 윤기선, 염계자, 권명해, 홍종원
편집기자 최인숙
사무차장 이장옥, 임정서
재무국장 이형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원 장 인월 원순
이사장 김경조
상임이사 박희채
이 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감 사 황주환 강다은 강석진 이재동 이시영 신도회장 성재곤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부회장 이원옥 이상수 이욱태 심재민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황룡사

주 지 寶慧 보혜
원 주 慈悟 자오
회 장 김종구
사무총장 정봉규

対馬市 上対馬町泉 1460-1
대마도시 카미쓰시마마치 이즈미 1460-1
H.P : 010-3704-1681 E-mail : ghgo5991@daum.net



지장기도도량

광덕선원

주 지 법 진
총 무 금강심

사부대중 일동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4435-5660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강암

주 지 향 공

(사)부산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멈추면 안 돼요

운동으로 만난 三昧 "운동이 곧 수행이죠"

신순회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행정관

새해를 맞아 세우는 신년 목표 상위권에는 '운동' 혹은 '체력 증진'이 빠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초가 되면 헬스장, 필라테스·요가 센터 등에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들어찬다. 그러나 여기, 생활 속 운동 실천으로 6개월 만에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고 2년째에 마라톤 완주까지 해낸 사람이 있다. 조계종 산하기관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신순회 행정관이다.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운동을 취미로 삼아 불자의 삶을 이어오고 있다.

신순회 행정관의 운동 계기는 오로지 '건강 회복'이다. 2022년 코로나19를 온몸으로 겪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아침 기상이 힘들고 체중까지 불어나 체력이 급격히 낮아짐을 느꼈다. 신 행정관은 당시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고, 안색이 좋지 않아 기력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심각성을 깨달은 신 행정관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위한 운동
일상 운동, 식단 병행해 건강 회복
고무감 얻어 마라톤 대회 참가도
"운동을 수행 방편으로 삼겠다"

신 행정관은 건강 회복을 위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 중 집에서 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른 장소로 가는 것보단 집에서 해야 꾸준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홈 트레이닝을 찾던 신 행정관은 우연히 온라인 PT(Personal Training)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식단, 운동 방법만 제시해줘 모든걸 실행하기엔 '자신의 의지'가 필수였다. 그럼에도 내 몸에 적합한 운동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홈트를 시작했다.

신 행정관은 추천 식단과 운동을 엄격하게 지켰다. 간식과 회식 거부, 매일 오후 요가와 조깅, 사무실에서 스쿼트 하기 등으로 주변에서 "독하다"는 반응을 들었다. 그럴때마다 신 행정관은 건강해지는 몸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다.



신 행정관은 "식단과 집에서 하는 운동만 병행했는데도 아침 붓기가 줄어들고 체중이 감량되는 등 변화를 느껴 운동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점차 운동이 일상이 되자 달리기도 시작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가능하다보니 아침, 점심, 밤 상관없이 언제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제격이었다.

신 행정관은 올해 마라톤에 도전했다. 실제 그는 2024년 3월 꽃봄버킷레이스를 시작으로 서울평화마라톤 등 한해 동안 꾸준히 마라톤에 참여하며 메달을 휩쓸고 있다. 차츰 근육이 붙으면서 신 행정관은 바디프로필도 촬영했다. 2개월간 고강도 홈 트레이닝으로 몸을 다듬어 2024년 4월에 바디프로필을 찍을 수 있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시작한 그의 운동이 새로운 생활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온 가족이 불자인 신 행정관은 명상, 사경, 기도를 비롯한 불교 수행과도 익숙하다. 신 행정관은 운동을 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 청정해야 함'을 체감했다고 말한다.

운동 시작 전까지 가족과 자주 갈등을 겪었던 신 행정관은 운동을 시작하며 가족관계도 개선됐다. 그는 "몸이 가벼워져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가족관계와 업무 면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생겼다"며 "이때 몸이 청정해야 마음이 청정하다는 불교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행정관은 운동에 몰두하면서 '삼매(三昧)'를 경험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릴 때 호흡에만 집중하니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온전한 나만 남는 경험을 했다"고 놀라웠던 순간을 되새겼다. 명상을 하거나 사경할 때, 법문을 들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는 운동 역시 수행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운동을 수행의 방편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밝힌 신 행정관은 "일상에 녹아들어야 편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과 수행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 수행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면, 수행이란 일상에 녹아있듯 편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듯, 운동 역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고양된다고 강조했다.

신 행정관은 2025년 운동 목표로 '온가족 마라톤'을 꼽았다. 온 가족이 함께 운동해 체력을 키우고 다 같이 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한 그는 "앞으로도 생활에서 운동을 실천해 더욱 건강한 불자의 삶을 일궈나가겠다"며 수행하는 운동 불자의 삶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스트레스로 괴롭던 마음 복싱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금요일 오후 서울 충무로의 한 복싱체육관, 초로의 신사가 샌드백을 치기에 여념이 없다. 원투에 이어 바디 콤비네이션을 섞어 샌드백을 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다. 매섭게 샌드백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허 명예교수는 일주일에 3회, 체육관에서 복싱을 수련하고 있다.

허 명예교수가 복싱을 수련한 것은 2022년 2월부터다. 당시 허 명예교수는 총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엉망이었다. 이를 추스르고자 허 명예교수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년부터 본격적 복싱 수련
1주일 3회 체육관서 훈련 매진
정년퇴직 후 다시 대학원 입학
文武 겸비한 인생 2막 여는 중

"평소 헬스 트레이닝과 골프, 테니스 등은 해봤으니 좀 익사이팅한 운동을 해보고 싶었죠. 나이가 든 사람도 할 수 있고,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을 찾다보니 복싱만한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복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복싱을 시작한 지 2년 9개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은 운동한다"고 전한 허 명예교수의 운동 루틴은 젊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체육관에 도착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줄넘기를 3라운드(3분 운동, 1분 휴식)를 진행한 뒤, 섀도우 복싱과 샌드백 치기를 3라운드 수련한다. 다시 섀도우 복싱과 줄넘기를 3라운드하고 나서는 복싱에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이렇게 한 번 수련하면 2시간이 훌쩍 넘는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전문 코치에게 PT(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도 받는다.

무엇보다 2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에 세운 목표를 위해 단련했고, 그러다보니 나쁜 습관들도 줄어들었다.

"사실 총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하고 난 뒤,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스트레스도 심해서 매일 매일이 괴로웠습니다. 복싱 체육관에 나와서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두드리니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무엇보다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니 술 마시는 횟수도 줄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군요. 살도 9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허 명예교수는 복싱을 하며 알게 된 깨달음도 이야기해줬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샌드백 치는 것을 보았을 텐데, 힘이 잔뜩 들어가서 샌드백을 치면 손목이나 어깨가 상하기 십상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비슷해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감정에 휘둘리면 자신만 힘들어요. 그럴 땐 힘을 빼고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허 명예교수는 최근 '학자(學者)'에서 '학생(學生)'으로 돌아갔다. 일반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학교에 올라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다.

인터뷰 말미, 허 명예교수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스스로와의 약속 만들기'와 '일단 시작하기'를 제안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할 때 일주일에 2회 이상 체육관에 갈 것을 스스로와 약속했어요. 공부를 시작할 때도 목표를 세웠고요. 새해에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 시작하세요. 그것이 운동이든, 수행이든, 공부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신중일 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 지 진 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사찰 문화 강좌 PICK 3

“중심근육 바르면 마음의 중심도 세워져요”

한마음선원 문화강좌 ‘G.X’

화 · 목 열리는 그룹운동 강좌
신도 강사 초빙, 수강료 저렴해
신도, 지역주민에 입소문 ‘인기’
회원들 “운동하니 마음도 편안”



“지금 하시는 운동은 하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엉덩이 뒤로 그렇게 빼시면 안 돼요. 자세에 집중하시고 하나! 둘!”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불교문화회관에서는 매주 2차례, 헬스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우렁찬 구령이 들린다. 구령에 맞춰 회원들은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기 여념이 없다.

한마음선원은 산하시설인 불교문화회관을 통해 다양한 신도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30분에는 지하 1층에서 ‘G.X’강좌가 진행된다. G.X는 ‘Group eXercise’의 약자로 ‘그룹운동’을 의미한다. 1:1 강의를 듣는 퍼스널 트레이닝(PT)과는 달리 전문 강사에게 일정 규모의 회원들이 모여서 운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연대감과 재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한마음선원에서 ‘G.X’강좌를 시작한 것은 2022년 3분기부터. 운동 관련해 요가 강좌만 운영하던 것을 ‘G.X’강좌로 확대했다.

유민경 문화강좌 사무국장은 “회차를 거듭하며 입소문이 나서 신청 마감이 빠르게 이뤄질 정도로 인기가 좋다”면서 “40대~70대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강좌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기비결은 저렴한 수강료와 뛰어난 강사진에 있다. 실제 ‘G.X’강좌의 경우 수강료가 3개월에 6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또한 모든 강좌의 강사가 선원 신도 중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뤄지고 있어 강좌의 퀄리티도 높다.

‘G.X’강좌는 꼼꼼히 짜여진 하체와 코어 위주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소윤 전문 트레이너의 구령에 맞춰 힙힌지 스쿼드를 30회씩 3세트한 뒤 스틱밴드를 사용한 원 레그데드리프가 15회씩 좌우 반복으로 3세트가 이뤄졌다. 이후에는 워킹런지(3회 왕복), 스텝박스 프레스&플라이(20회씩 좌우 반복 2세트), 러시안 트위스트(15회씩 2세트), 사이드플랭크가 이뤄졌다.

“한번 더! 한번 더”라는 구령이 나올 때마다 회원들의 앓은 소리가 이어졌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뻘뻘 흘러도 포기하는 회원들은 없었다. 회원들은 박수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진지하게 운동을 반복했다.

모든 운동들은 연령대를 고려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다. 이 전문 트레이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하체, 좌우 밸런스(균형)과 체력 증진”이라며 “현재 강좌는 웨이트 기반하지만, 중요한 것은 밸런스와 체력을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보다 운동 강도도 센 편이지만, 전부 잘 따라오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선사께서는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운동을 하면서 이를 많이 느낀다.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X강좌’에 꾸준히 참여해온 회원들도 호평일색 찬사를 보냈다. 정연봉(69) 회원은 “근력이 붙으니 절할 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 편안하다”며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건강해졌다. 집중력이 좋아져 마음공부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신정인(52) 회원은 “올해 초 몸이 안 좋아서 근육이 전부 빠졌다. 회복한 뒤 매일 매일 빠지지 않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정말 많이 건강해졌다”면서 “몸이 편해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 직장생활도 신행생활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도심 속 몸과 마음의 여유, 내 몸 집중하며 ‘三昧’

조계사문화센터 ‘요가반’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하세요.”

사람들의 대화, 자동차의 배기음 소리가 가득한 도심 속 사찰 한 공간에서 들리는 목소리. 사찰이라면 경전 독송과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질 것만 같은데, 여기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불교대학 건물 3층에는 요가인들이 몰려든다.

조계사문화센터 요가반은 시작 전 〈축복경〉을 함께 독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두와 조화롭게 어우러지길 기도한다.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 몸을 늘였다 접었다 하는 요가인들의 모습은 전문가 그 자체. 70여 세에 이른 요가인도 힘든 기색없이 플랭크 자세(팔로 지지해 엎드린 상태로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해 놀라움을 보여준다.

요가반의 ‘모범학생’으로 2016년 처음 요가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온 유재연(40, 직장인) 씨는 직장생활에 지쳐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가 이곳을 찾았다. 유 씨는 “사찰이라는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와 내 몸에 집중하는 운동인 요가가 어우러진다는 게 잘 어울려 등록하게 됐다”라며 처음 시작했던 때를 떠올렸다.

요가반의 여러 학기를 거치며 몸과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낀 유 씨는 수업이 가진 불교적 요소가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유 씨는 “수업 전에 〈축복경〉을 독송하는 것은 불교 수행과 연결돼 일반적인 수업과는 다른 특별함으로 다가온다”며 “수업을 마친 후 사찰을 둘러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요가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수련”이라고 말한 조계사 요가반 지도강사 윤성희(63, 정인, 금빛요가명상센터 대표) 씨는 “요가는 불교 수행을 위한 최적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요가를 할 때 내가 하는 몸짓 하나하나와 호흡에 집중해야하는데, 이것이 내 현재 상태에 집중하는 불교의 삼매(三昧)와도 같다는 것이다. 그는 “요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다스려, 자연스럽게 몸에 활기가 돌고 건강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런 효과를 느낀 많은 분들이 등록을 이어가 코로나19가 지난 뒤부터 수강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 인기를 자랑하기도 했다.

김가령 기자

“몸·마음 정화 위한 종합선물세트”

봉은사 문화강좌 ‘선무도반’



매주 목요일 오전, 서울 강남 봉은사 교육관에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봉은사 봉은문화강좌 ‘선무도반’의 1년 이상 장기 수강생들.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의 일환으로 선무도를 실참하는 수강생들은 삶이 변화됐다고 말한다.

권상윤(60, 방편월) 씨는 경주 골굴사 선무도 공연을 보고 푹 빠져 봉은사 선무도반에 등록했다. 권 씨는 “동작에서 보이는 에너지가 강인해보였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갖추는 수행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며 실제 선무도 실참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사찰에서 열리는 선무도 강좌 덕분에 권 씨의 신행생활도 더욱 활발해졌다. 강좌 참여를 위해 매주 사찰을 방문하니 법회, 바자회, 나눔 행사 등 소식을 더욱 많이 접하는 것. 그는 “평소에는 몰랐던 사찰 행사 소식을 보고 ‘이건 참여해야지’ ‘저건 누구에게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해 사찰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선무도반 수강생들이 전한 사찰 운동 강좌 선무도반의 장점은 여럿이다. 한 수강생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무도반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사찰에서 제공하는 운동 강좌라 교·강사, 내용 구성 등에 신뢰를 갖고 6개월 이상 수강 중”이라며 사찰 강좌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다. 봉은사 선무도반이 수강생 개인의 몸과 마음의 평온뿐만 아니라 신행 활동 활성화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채희걸(52, 현덕, 선무도강남명상요가센터 대표) 봉은사 선무도반 지도법사는 “바쁜 일상으로 고착화 된 습관, 버릇들이 벤 현대인들은 특정 운동 루틴을 무조건 따르기 어렵지만 선무도는 개인의 몸에 맞게 수련할 수 있다”며 적응이 쉬운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매를 현전하는 과정을 통해 불교 가르침인 몸과 마음의 ‘조화’를 느낄 수 있음을 전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운동을 찾는 이들에게 선무도를 추천한 선무도인들은 “선무도는 명상, 요가, 무술 등 지루할 틈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며 적극 권유했다.

김가령 기자

매일 만나는 불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청정 염불수행도량 현지사

을사년 새해에는 탑돌이 영험도량 현지사에서

탑돌이하고 소원성취 하시옵소서!



종조 광명 만덕 큰스님
회주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감찰원장 범행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kr

• 춘천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B2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죠마치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한국불교태고종

태 학 사

보물 407호 삼태리마애여래입상

사부대중 일동



기후 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즐거운 불편운동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사용 최대한 줄이기
비닐 봉지 대신 방수망이나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하기



빈그릇 운동 실천하기
발우 공양식으로
음식물 덜어 먹고 남기지 않기

미소원에서는 일회용품 및 비닐 사용 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장바구니 꼭 들고 오세요.
드릴 것 없으면 "행복"을
뜸뿍 담아 드릴께요^^

사)미소원은 건강한 지구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실천을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각 원 사

각원사불교대학

조 실 경해 법인
주 지 지산 대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안서동 171-3)
전화 041)561-3545 팩스 556-1425



대한불교조계종

보 명 사

주 지 활 암

사부대중 일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보명사길 121
041)522-3362



대한불교조계종

도 광 사

사부대중 일동

천안시 서북구 백석6길11
041)555-8548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각 연

**충북불교대학(원)/용화문화교육원/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청주시립 율량어린이집, 청주시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오창롯데캐슬어린이집**

사부대중 일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5(사직동)
043)274-2159
www.yonghwasa.com



대한불교조계종

세종 영 평 사

조계종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 지 幻 惺

영평사 어린이회/영평사 불교대학/영평사 청년회

사부대중 일동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영평사길 124
044)857-1854



대한불교조계종

다라니수행정진도량
쌀바위전설

천태산 나한도량 동 혈 사

사부대중 일동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동혈사길77 전화 041)854-2855



De all Care
Deodorization care

"살균과 탈취를 한번에"
세균OUT 바이러스OUT 냄새OUT

디올케어2 De all Care 2

UV공기살균기



특허 받은 3중 케어솔루션으로 공기 살균과 탈취 까지
반영구적 사용 넓은 살균범위 저렴한 유지비

[주요납품처] 부산광역시 경찰청, 인천광역시소방본부(구급차내부), 금정구 보건소
사하보건소치매센터, 부산시설공단(남부사업소), 요양병원, 대학교, 고등학교 외 다수

구입문의 : 010-5684-9699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 원 사
주 지 **지태**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 인 사
주 지 **원행** 스님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 분관)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마산회원시니어클럽, (주)고을, 금강어린이집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 원 포 교 당 구룡사
주 지 **무성**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보문 지암**
사 무 장 **공덕행** 정토회장 **자현선**
관음회장 **보광명** 관음총무 **대명지**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 하 사
조실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울산 정지심인당
주 교 **정일정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83번길 33
052-271-5212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 원 사
주 지 **태여 덕원** 스님
신도회 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칠 불 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禪불교대학 | 시민 선방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관사 사거리)
TEL. 055)275-3222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우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제일선원 **내원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말사

행하면 되는 절

진주 **미륵암**

주지 **현산** 스님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쌍계사 말사

남해 제석산 **낙가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당넘로 82번길 14-16
전화 055)864-4298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 장 **이원환**
수석부단장 **안정임**
부 단 장 **김임자** **정선희**

감 사 **조형식** **최성환**
중부총괄팀장 **강호연** 서부총괄팀장 **조용호**
동부총괄팀장 **이선호** 북부총괄팀장 **정수갑**

경남지역단 임원외 포교사일동



한국불교태고종

보현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5-6448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만우**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불교대학 · 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 · 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 · 야간반, 1년 1경전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① 새 아침을 열며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선명상 대중화'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온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해 뜨고 짐은 '因果'…감정도 그대로 관찰하라

[오늘의 선명상]
날마다 지는 해는 새아침을 위함이고
가고 지는 이 해는 새해를 맞이함이네.
새로움을 위하여 사라짐을 아쉬워 말고
넘어가는 붉은 해는 그 노을이 아름답구나.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좋은 일은 빨리 지나감이 못내 아쉽고, 안 좋은 일은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그러나 인생사란 좋은 일이 있기에 안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니, 더 좋은 일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내일 또 다시 뜨기 위함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줄어들고, 사라지고, 늙어지고, 없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인연으로 탄생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 아쉬워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생긴 이래 수많은 이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윤회(輪廻)라는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가 지고 다시 떠오름에서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닳고 파괴되는 것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지고, 없어진 것은 반드시 생겨나는 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혹여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것은 다시 또 떠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란 다시 성공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니, 실패를 마음에 두지만 않는다면 이는 위대한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선명상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선명상은 매 순간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현재의 마음을 관찰하며 평안을 얻는 수행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순리를 바라보듯,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명상을 통해 우리는 지나간 실패를 붙잡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짐은 인과(因果)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떴으니 지는 것이고, 졌으니 다시 떠오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고 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 뜨고 지는 현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 더 좋고 나쁠 것이 무엇이며,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뜨는 해를 보고 시비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요, 지는 해를 보고 시비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일들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으니, 괜한 감정을 얹어 스스로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기도의 힘으로 모든 악업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청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선명상]
새벽 목탁소리에 어둠 밤 물러나고
범종소리 울리니 산천초목 잠에서 깨네.
청아한 염불소리 샛별 반짝 장단 맞추고
처마 끝 풍경소리 새벽 새 소리에 화답하네.

신심(信心)이란 부처님의 법을 한 치의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법, 즉 불법(佛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과(因果)의 이치를 밝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공(空)함을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인과의 이치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또 인연에 의해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나를 둘러싼 모든 현상들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할 뿐입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해 뜨는 모습에는 기뻐하고, 해 지는 모습에는 슬퍼하며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인과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잃음이 따릅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무엇을 잃었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모두 인과의 순리입니다.

>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보고
> 시비 하는 것은 우스운 일
> 감정 얹어 마음 복잡케 말고
> 선명상으로 지금에 충실하길"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일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맞이한 일은 해가 뜨는 모습과도 같고, 저 일이 지나가는 것은 해가 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잘되는 일이 있으면 낮의 햇빛처럼 밝은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밤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인과의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번뇌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마치 물 위에 기름을 띄운 것처럼, 불필요한 감정을 쌓아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空)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상도 공하고, 마음 또한 공합니다. 공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信心)입니다. 인과의 흐름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고 무심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심의 상태는 결국 마음을 공적(空寂)하게 만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불(成佛)의 경지이며, 적멸(寂滅)의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신심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정화하며,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명상은 그러한 신심을 바탕으로 청정한 마음 상태에 이르러, 마음 밖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나의 업(業)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분별심을 멸하고, 무심한 상태에서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곧 부처의 삶이요, 적멸의 편안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거든 새벽의 목탁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목탁소리가 어둠을 물리치듯, 기도와 신심이 우리의 번뇌를 걷어낼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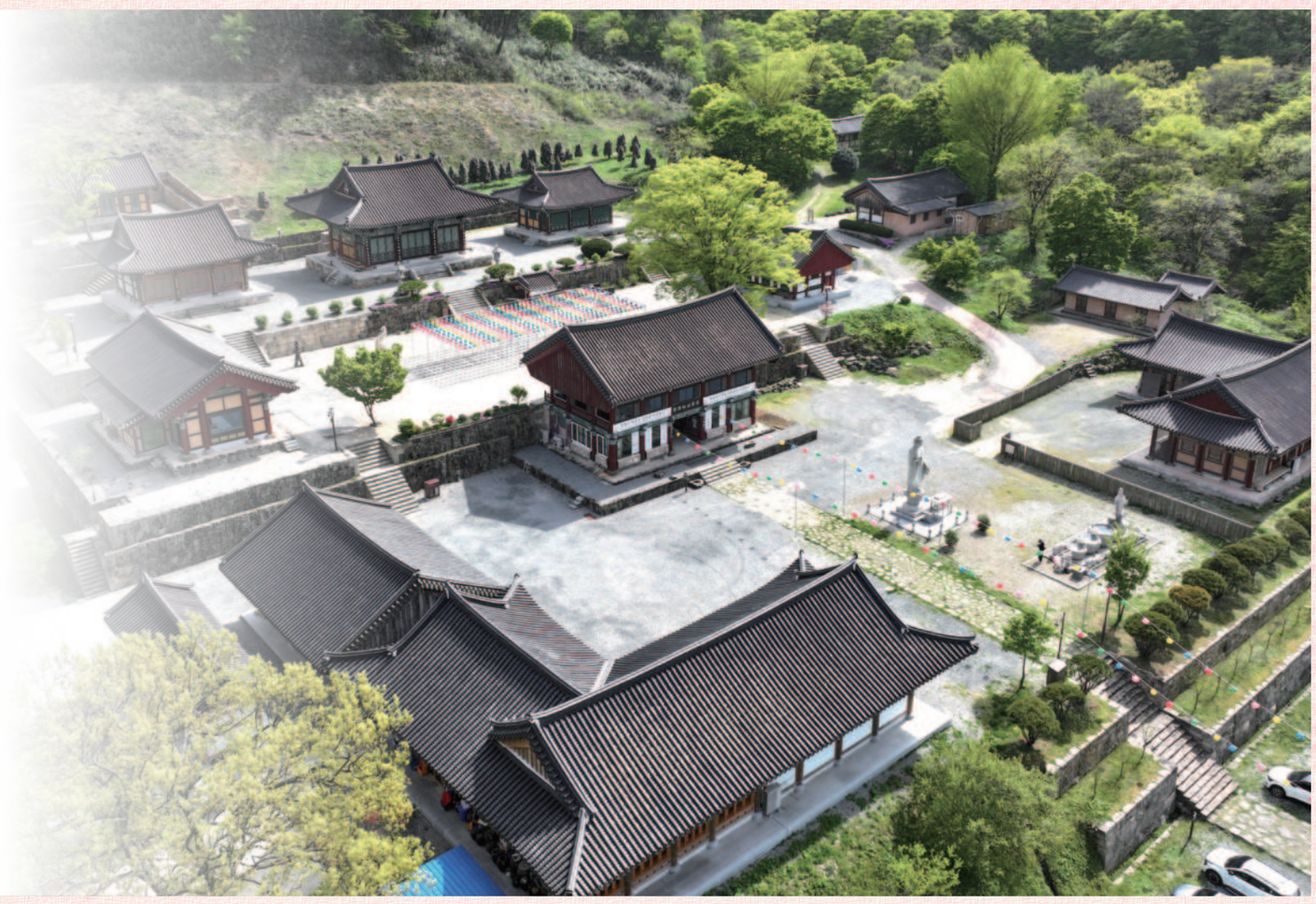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스님

사부대중 합장

모든 일을 한마음으로 다 결부시킨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처할 수 있다.
– 대행선사 법어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스님

사부대중 일동

마음 안으로 낱낱이 돌려놓으면
거기에서 참자기가 길잡이가 된다.
– 대행선사 법어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열려있는 불법마당

(사)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법화경독송회
진 불 선 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 봉 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 산 사

주 지 **동조**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국보 비로자나불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 련 암

사부대중 일동

보리수동산
정토만일봉사회
33관음성지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430-34
Tel 055)672-0078



虎巖(호암)지성(知醒)스님께서
조계종 최고 법계 大宗師(대종사)
품서를 받게 되었음을 기념

대한불교조계종

와불산 일출봉 약사여래도량

오도암 적 멸 보 궁

회 주 **호암 지성** 스님

신도회 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월곡리446
전화 055)673-1007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지현**(해경사)	재경국장	**지혜**(도성사)
원로의원	**월봉**(석봉암)	문사국장	**지선**(능포선원)
자문위원	**서산**(보광사)	경남교구 종회의장	**광해**(자비사)
자문위원	**세명**(관음정사)	경남교구 종회부의장	**자운**(여여암)
자문위원	**법안**(청량사)	중앙종회의원	**정광**(문수암)
자문위원	**법철**(세심사)	중앙종회의원	**혜우**(봉연암)
자문위원	**석봉**(백운사)	중앙종회의원	**자범**(옥골사)
자문위원	**진일**(대성암)	중앙종회의원	**광해**(자비사)
선관위원장	**만우**(법성사)	중앙종회의원	**환명**(약수암)
교육위원장	**환명**(약수암)	중부분원장	**혜우**(봉연암)
포교위원장	**도각**(선암사)	서부분원장	**자운**(여여암)
감사위원장	**법진**(거림사)	남부분원장	**근해**(무상사)
태고경남비구니회장	**수혜**(대승암)	밀양분원장	**지원**(부은사)
종무원장	**황봉**(관음사)	김해분원장	**법조**(보현사)
행정부원장	**성욱**(영진사)	중부분원총무	**자명**(석봉암)
재경부원장	**무진**(보현정사)	남부분원총무	**청현**(정각사)
교무국장	**법륜**(불정사)	밀양분원총무	**승현**(지혜사)
규정국장	**법성**(大장엄사)	김해분원총무	**무진**(보현정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93 전화 055-298-3634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5~12/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2	불교와 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 불교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7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3	선과 유식(대원불교학술총서22) 깨달음의 구조	다케무라 마키오	운주사	8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4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9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5	하타요가(개정판)	이태영 지음	여래	10	육자진언의수행체계	법장	운주사

책세상

1700년 한국비구니승단 역사 '한눈에'



역사 속 한국비구니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지음
전영숙 집필 / 민족사
3만5000원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5년 만에 출간
비구니승가 위상 · 역할 · 존재 등 밝혀
추상적 연구 아닌 역사적 문헌 바탕해
삼국 시대부터 문헌 속 비구니 존재에
대한 자료 찾고 촘촘히 조사 · 서술해



만공 스님과 비구니 제자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 비구니승단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서 특유의 역동성과 강한 생명력으로 비구승단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또 다른 한 축을 굳건히 지켜왔다. 이와 같은 한국비구니승단의 위상은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비구니승단의 위상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텍스트는 많지 않다. 몇몇 책들에서 한국비구니승단의 역사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것들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이다.

2019년 발족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사라고 생각하고 5년여의 작업을 통해 한국비구니승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속 한국비구니〉를 출간했다.

〈역사 속 한국비구니〉는 한국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존재와 역사를 밝힌 책으로, 추상적 고찰이나 연구가 아닌 역사적 문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비구니승단의 모든 자료를 찾아 반영했다. 지금까지 근현대 문중 중심의 책은 더러 있었지만, 〈역사 속 한국비구니〉처럼 이 땅에서 불교가 시작된 삼국시대부터 문헌 속 비구니스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고, 촘촘히 조사해 서술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다. 책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만들었다.

△제1장 '삼국시대'에서는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 스님의 모친 고도령의 불법에 대한 애정과 노력과 열정을 소개한다. 또한 일본의 첫 여성출가자들을 백제에서 교육시키고 계맥을 전해 준 여성 출가자들, 일본의 여성들이 출가의 마음을 내도록 이끌어 준 고구려의 비구니도 살펴본다.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야와 발해의 여성 불교에 대해서도 간략이 소개한다.

△제2장 '고려시대'에서는 불교가 국가불교가 된 후 정부 주도의 계단 사원과 승과제 운영으로 말미암아 비구니들이 교단 운영에서 입지가 약화된 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비구니 구도자의 진지함, 아낌없는 보시, 다양한 기술적 능력 등을 조명하고, 원나라에서 활약하며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 등을 도와 한국 선불교의 오늘이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해외 비구니의 활약도 살펴본다.

△제3장 '조선시대'에서는 억불숭유의 암흑기를 맞아 비구니와 여성 불자들이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살펴본다. 흔히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조선은 성격상 전기와 후기를 전혀 다른 사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조선시대의 시대 상황은 전후의 차이가 컸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 출신의 여성 출가자와 여성재가자들이 혼신의 힘으로 불교를 지켜내는 데 일조했으며, 후기에는 지방의 비구니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평범한 여성들과 상궁 출신의 여성들도 지극한 신심으로 불교를 지켜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제4장 '개항기에서 한국전쟁 이전'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불교를 지켜내고 목숨 바쳐 수행에 임한 여러 비구니스님들을 조명한다. 이 시기에 한양에서는 사승방을 중심으로 비구니스님들이 활약했는데, 특히 친일 권승 강대련에 끝까지 저항하며 절을 지켜낸 탑골 보문사의 은영스님을 소개한다. 이 외에 국채보상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비구니스님들, 금강산과 수덕사 견성암, 오대산 지장암, 윤필암 등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수행한 비구니선객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교학적 능력을 갖추고 활약한 금룡, 수옥, 혜옥 세 비구니 강백도 비중 있게 다룬다. 또한 수백 년 간 불교 명맥이 끊어졌던 제주도에서 불교를 다시 일으킨 봉려관 스님도 소개한다.

△제5장 '한국전쟁기부터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이전'에서는 바야흐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비구니승가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이 시기에는 조선 500년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폐사지 또는 폐사가 되다시피 한 황폐해진 절들로 나아가 온갖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사찰을 중건하거나 창건한 비구니스님들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으며, 재건한 사찰 곳곳에 비구니선원이 들어섰다. 비구니스님들이 정화운동에 참여하여 불교계에 만연한 성불평등 문제에 직면하면서 단합과 조직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제6장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비구니승가'에서는 우담바라회가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난 후 전국비구니회관이 건립된 과정을 조목조목 서술하고, 비구니회관 건립 후 비구니승가가 어떻게 또 한 번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었는지에 주목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비구니승단 내부의 민주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정혜도량'과 '열린비구니모임'의 활동도 살펴본다.

옛 선사가 전한 간화선 요지



서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찬 /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대혜 보각(大慧普覺) 스님의 〈서장(書狀)〉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번역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서장〉은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 보각 스님이 송나라 사대부인 참선 수행자들과 '마음 공부', 즉 참선 수행에 대해 주고받은 65통의 편지글을 엮은 책이다. 20년 동안 대혜 선사를 모시고 공부한 제자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제자 황문창(黃文昌)이 중편했다.

주된 내용은 '척사해 현정견(斥邪解現正見)'으로 삿된 견해를 배척하고 바른 견해를 드러내는 데 있다. 조동종(曹洞宗)의 묵조선(默照禪)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임제종의 간화선(看話禪)을 주장하며 화두참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내용이다.

대혜 선사의 이 가르침이 특히 돋보이는 것은 편지를 통해 선 공부법을 묻는 수행자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 그에 맞는 처방을 해준다는 점이다. 간화선은 여러 공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 그렇기에 바른 간화선의 길을 세세하게 짚어주는 대혜 선사의 편지글은 선을 공부하는 지금의 수행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특히 한글세대 학인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간화선의 바른 수행법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매끄럽게 새로 번역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사찰 승가대학에서 한문 원문으로 공부해 오던 〈서장〉을 현대에 맞게 번역했다는 점이다. 편지글의 특징을 살려 되도록 일상적인 문체를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대혜 선사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각 분야 집필위원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쳤다. 수백 년 전에 오간 편지글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주고받는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있는 이유다. 기존에 발행한 한문본도 꼼꼼하게 교정하여 나란히 실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한글 번역본 〈서장〉은 간화선의 교과서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친근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결실"이라며 "특히 사찰승가대학 스님들이 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원전의 깊은 뜻을 현대어로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글 번역본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들의 든든한 도반이 되고, 불법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간화선 전통을 이어가고 선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책은 앞날개에 QR코드를 넣어, 전자불전 사이트인 CBETA의 신수대장경 서장과 불광대장경 대혜보각선사어록(서장)을 디지털 책으로 볼 수 있게 했다.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은 "대혜 선사가 제자들에게 보낸 간절한 편지들이 이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피어나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됐다"면서 "이 번역서가 인연이 돼 간화선 전통이 더욱 빛나고 활구참선의 깊은 의미가 널리 전파돼, 학인스님들은 물론 한국과 세계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깨닫고 본래면목을 밝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경성 이상연

감 사 권정근(세경씨엔디 회장)
감 사 이장균(창원시청 불자회 부회장)
수석부회장 김선정(정법사 신도회장)
수석부회장 조보현(경남 예총회장)
부 회 장 김정기(원흥사 신도회장)
부 회 장 김종석(성주사 성포회장)
부 회 장 김명희(정인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이원섭(삼학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진효규(관음사 신도회장)
부 회 장 강성희(우곡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유진현(해장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이명은(불곡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우순기(정암사 신도회장)
부 회 장 김명련(반야사 관음회장)
부 회 장 김일태(통영 국제음악제 대표)
부 회 장 유병현(법무부 범죄예방 창원협의회 회장)
부 회 장 김태종(대신 엔지니어링 대표)
부 회 장 박금숙(경남도립미술관 관장)
부 회 장 설상석(창원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 철(경남경찰청 법우회 회장)
부 회 장 진정혜(금강자비회 이사장)
부 회 장 김환태(이충무공선양 군항축제위원회 회장)
부 회 장 박재근(이노비즈협회 회장)
부 회 장 최규식(두동도시개발 대표)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가야 불교의 성지

(사)가야불교 문화원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이사장(회장) **만제 혜수**

신도회 일동

경남 김해시 흥동로 179 전화 055)322-0088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연화사

주 지 **범일** 스님

신도회 일동

연화합창단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80번길23-1
전화 055)336-3046 / 팩스: 055-337-3047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관룡사

주 지 **정안스님**
불교대학 회장 **하행원**
부 회 장 **김다보행**
총 무 **이원각**
재 무 **황법연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전화 055-521-1747



대한불교 원효종

벽선암

주 지 **홍법혜진**

벽산암 신도회

사단법인 야단법석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36-6
HP) 010-5101-0093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스님**
신도회장 **경성 이상연**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불사

회 주 **만 상**

주 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울주 태화선원

주 지 **명본**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 1길 76
전화 052)254-0053

사)대한불교승가종

복천암

주 지 **삼화 무착**

벽산암 신도회

경남 양산시 동면 영천2길 21-19
전화 055)372-3555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원명스님**
총 무 **영공스님**
감 사 **정광스님**

신도회회장 **조용찬** 신도회총무 **신현숙**
신도회부회장 **박성하** 신도회차장 **김성곤**

신행단체

공무원불자회 회장 **지희선**
바웃다합창단 단장 **하미옥**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신흥사

조실 **영규** 스님

주지 **호법**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원동로 2282-111
대광전 보물 1120호 / 대광전 벽화 보물 1757호



대한불교조계종

신라천년고찰

밀양 무舞 봉鳳 사寺

주 지 **일관(一寬) 천주(天柱)**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용화사

신도회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도솔암

주 지 **덕인** 스님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77
전화 052-269-1755



대한불교원효종

울산 삼광사

지광 합장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569-20
전화 052-225-1815



한국불교태고종

사천 선암사

주 지 **도각**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사천시 홀곡1길74
전화 055-835-8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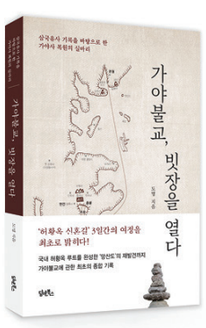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 지 **도 명**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부설 : 동림불교대학 · 동림불교문화원
은암 선문화 아카데미

주 지 **은암 신공**

사부대중 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대청동)
전화 055)325-4008 팩스 055)325-4009
www.dongrim.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천년고찰 전단산

우곡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459
전화 (055)291-3100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 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만덕공덕회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22
전화 062)363-661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중 현**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 주 **경 주**
주 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 지 **만 당**

사부대중 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주**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 주 **범 종**
주 지 **무 진**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 주 **수월 혜향**
주 지 **상범**
신도회장 **김보덕행**
합창단장 **조백련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치평동)
전화 062-375-7600



주 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대행 선사는 우주법계를 어떻게 보았을까

대행선연구원, 12월 14일 계절발표회 개최

'기세간', 유정 담긴 세상을 의미
대행 선사 보인 '기세간' 관점 조명
"대행 선사, 세상을 물질세계 아닌 정신과 연결된 유동적 세계 인식"
대행–에크하르트 비교 연구 발표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기세간(器世間)'은 '유정세간(有情世間)'과 함께 불교의 우주론·세계관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유정세간'이 생명을 가진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라면, '기세간'은 유정들이 담겨있는 환경과 국토를 포함한 모든 우주법계를 의미한다. 불자들이 알고 있는 '삼천대천세계' '불국토' 등이 기세간에 해당된다.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대중들에게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우주법계를 어떻게 보고 설했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지난해 12월 14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 대행의 기세간에 대한 관점 고찰'을 통해 대행 선사의 기세간 관련 관점을 조명했다.

기세간에 대한 설명은 소승·대승경전 곳곳에서 존재하는데, 초기 부파불교의 〈대루탄경〉 〈장아함경〉과 대승불교의 〈대방광불화엄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방대한 경전의 묘사를 살피면 "우주의 시작과 끝, 삼계의 중생 등 모든 존재가 광대하고 기나긴 시간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연이 다하면 스러지듯 기세간은 무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세간을 설한 이유는 이 세상이 '업에 의해 구성된 환경임을 깨달아 집착과 탐욕을 줄이고 지혜를 증진하는 수행을 이루길' 독려하기 위해서다. 대행 선사의 기세간 법문도 이 같은 연유로 이뤄졌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기세간 관련 법문에 있어 우주의 구성과 생성 등을 의인화 방식을 통해 알기 쉽게 설하고 있다. 실제, 대행 선사는 우주 생성에 있어서 불성이 낳은 우주를 '성주'라고 하고, 성주는 3아들에게 3우주를 맡긴다. 이후 첫째 아들은 7형제를, 둘째 아들은 3형제를, 마지막 아들은 5형제를 낳았는데, 그중 둘째 아들의 3형제는 다시 7형제를 낳는다.

여기서 '아들'은 불성의 기능을 상징하며 '3명'은 다양성과 함께 '삼신(三身)'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연구원은 "불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공의 도리로 수많은 모습으로 화현하게 되는데, 이는 '7형제, 3형제, 5형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불성을 '아버지와 아들'로 상징한 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인 불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툴 수 있지만,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불이(不二)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12월 14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 대행의 기세간에 대한 관점 고찰'을 발표하는 모습.

또한 대행 선사는 기세간의 근원을 마음(불성)이라고 정의내리며, 하나의 마음이 전체 세계를 포함하고 전체 세계가 마음으로 연결됐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기세간을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세계로 본다.

오 연구원은 "기세간과 관련해 이처럼 방대하게 설법하신 스님은 대행 선사가 유일하다"며 "선사의 법문에 따르면 기세간은 단순한 물질적 환경이 아니라 중생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깨달아 가는 수행의 장이자, 자신의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생은 부처와 다른 몸이 아니니 자신과 같이 기세간을 생각해보고 보존해야 함을 대행 선사는 역설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가 곧 부처이자 우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법계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실천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서용 부산대 한국민족연구소 연구교수는 '선사 대행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종교사상'를 통해 대행 선사와 중세 신비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3)의 종교사상을 비교 고찰했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포항지원장 혜문 스님이 포항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했다.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사업 예산 '100억' 편성

국가유산청 2025년 예산 확정
총 216억 증원돼 1조 3875억원
국가유산 가치 발굴 사업 반영

국가유산청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디지털 자료 목록(DB)화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내년부터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17일 "2025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1조 3659억원)보다 216억 증액된 1조 38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체계 정립 후 첫 예산 편성으로 국가유산 가치 발굴과 확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기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키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2440억원으로 올해(1조 2067억원)보다 373억원(3.1%) 증액됐다. 반면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435억원으로 올해(1592억원)에 비해 157억원(10.9%)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원 △국가유산 정책 2770억원 △문화유산 1332억원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원 △교육·연구·전시 1149억원 △궁능원 관리 1431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팔만대장경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올해 13억원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87억원이 증액돼 총 1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학술연구와 교육을 통해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사업은 팔만대장경 중 인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판을 인경한 뒤, 종합적인 디지털 자료를 목록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판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보존상태를 조사하는 기초조사와 인경·인경본 스캔을 거쳐 누가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로 제공될 계획이다. 서비스는 이르면 2027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126억이 증원돼 5299억원,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은 49억이 증액돼 251억원, 매장유산 유존유적 정보 고도화 사업은 30억 증원돼 6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김내영 기자

대행선연구원 〈한마음연구〉 KCI 등재

한국연구재단 등재 결과 발표
등재후보지 선정 2년만에 등재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제1집.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2022년 11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의 쾌거다.

〈한마음연구〉는 2018년 연 2회 발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제13집이 발간됐다. 이번 등재지 선정으로 2024년 2월과 8월에 발행한 〈한마음연구〉 제12집과 제13집에 실린 모든 연구성과는 등재지에 게재된 것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행선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마음연구〉가 등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행선 관련 연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뿐 아니라 대행선을 널리 선양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이번 등재지 선정은 〈한마음연구〉 창간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와 연구원 학술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의 노고 덕분이다. 〈한마음연구〉의 모든 관계자와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마음연구〉가 '대행선'을 무궁무진 뻗어나가게 하는 알찬 학술지가 되도록 가일층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의 매력, 60초 영상에 담아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2월 19일
'숏폼 공모전' 대상에 보선 스님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수여식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지난해 12월 1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회 사찰음식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제15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숏폼 영상 공모전은 대중에게 사찰음식을 홍보하고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출품작 59편 중 11편이 선정됐으며, 대상은 보선 스님(직할교구 수월암)의 '삼소식 캠페인 송', 최우수상은 TIME4Buddhism 팀의 '글로벌한 삼소식'과 신상미 씨의 '사찰음식 삼소식 다이어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자연식 팀의 '고독한 미식가 with 사찰음식'과 장다해 씨의 '사찰음식과 삼소식', 사찰 명상가 팀의 '자연의 맛을 담다: 삼소식 산채 비빔밥'이 받았다. 특히 대상을 받은 보선 스님의 '삼소식 캠페인송'은 AI를 활용한 노래 및 영상을 60초 분량으로 제작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님의 '삼소식 캠페인송'은 사찰음식 공식 SNS(인스타그램 @korean_templefood/유튜브 @KoreanTemplestayTempleFood)에 게재됐으며, 향후 다른 수상작도 올라갈 예정이다.

이날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72명이 응시했으며, 31명이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음식은 단지 한정된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며 "오늘 수여식과 시상식을 통해 사찰음식의 미래가 더욱 빛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활약으로 사찰음식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쥬세뻬 비탈레 개관 첫 축하전시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이사장 묵암 지선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62(태화복합문화공간 1층 전시실)
☎ 052-243-9500/052-243-9502
mand.teahwaculture@gmail.com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062)227-0173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시 공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7번길 27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인연을 찾는 이들에게 '친절한 사람' 되기를 당부했다.



각기 다른 기수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이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가 12월 14~15일 총동창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남자 15명, 여자 11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커플 총 5쌍이 탄생했다.



참가자들은 레크레이션 등 활동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마음에 둔 참가자에게 곧장 다가가 선물을 전했다.

'나는 절로' 동문 한자리…"진실된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조계사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총동창회' 현장

충남 공주=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나는 절로'는 일반적인 소개팅 프로그램처럼 가식적인 연출이나 따라야 하는 스토리가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나타내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폭적인 커플 성사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해줘 자신 있게 교류할 수 있었어요."

'사찰 소개팅'이라는 참신한 아이템으로 국내외적 이슈를 몰고 온 '나는 절로'가 총동창회를 끝으로 2024년 한해 활동을 회향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절로'가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14~15일 이틀간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나는 절로, 총동창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2024년 '나는 절로'가 한겨울 만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총동창회에는 강화 전등사,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양양 낙산사, 서울 화계사, 장성 백양사에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참가자 중 26명(여자 11명, 남자 15명)이 다시 모였다. 참가자들은 두 번째 '나는 절로' 참여 계기가 사찰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란(한국문화연수원)은 "법회에 참여한 뒤 사찰 주지스님과 차담에서 인생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경험이 많다"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고민과 생각에 사려 깊은 조언을 해주는 스님들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믿음을 갖고 찾아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수(한국문화연수원)는 "사찰에 오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편안함 때문에 예민하지 않고 온전한 내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실한 나를 보여줘서 수월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만남의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 사회에 사찰에서 적극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해줘 편안한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절로에서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공통점 하나로 모인 참가자들은 서로의 '출신'을 물으며 참여 계기와 지난 기수 커플 성사 여부를 물었다.

낙산사 편에 참여했던 직녀4호는 "프로그램 당시 느꼈던 긍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좋아서 총동창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작에 앞선 입재식에서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2024년 한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성공가도를 이어왔는데, 이번 '나는 절로' 총동창회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더 큰 소통의 장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총동창회에 함께 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따듯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오 스님도 "지난 6월에 이어 총동창회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면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연말에 좋은 추억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곡사를 가기 위해 손을 잡고 돌다리를 건너는 참가자 한 쌍의 모습.

커플 5쌍 탄생, '인연 맛집' 재확인
운동회, 선물전달 등 행사로 활기↑
묘장 스님 인생상담소, 고민 해결도
'결혼' 고찰 토론회… 문제 해결 연구
참가자들 "가식없는 만남의 장으로 진실된 나와 상대를 만날 기회였다"

총동창회 참가자들은 묘장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인연과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묘장 스님이 그에 대한 답을 남기는 '인생상담소'에서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질문을 남겼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이성에게 호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의 질문을 두고 묘장 스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묘장 스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알아보고 자신과 다르면 '이상하다'고 여긴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볼 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볼 때 모두 이것을 똑같이 느낀다"면서 "내가 먼저 반듯한 사람이 되면 내가 느끼기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인생상담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난 기수에서 참여했던 '나는 절로'표 레크레이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기도 했다. MC 심목민의 주도로 진행된 '야단법석 절로스피릿'에서 참가자들은 공 만들기, 줄넘기, 카드 뒤집기, 신발 멀리 던지기, 꼬리잡기 등 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하는 활동으로 더욱 친밀해졌다. 영화 장면 재현하기 코너에서 남자 참가자들이 여자 참가자를 대신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음날인 15일 아침, 참가자들은 눈 내린 길목을 지나 마곡사로 향했다. 연수원과 인접한 마곡사는 조선 왕실에서 꼽았던 명당으로 김구 선생이 잠시 주석했던 사찰이기도 하다.

마곡사 대웅전을 참배한 한 참가자는 "마곡사 대웅전 기둥을 쥐고 세 바퀴 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 삼배하고 기둥돌이를 했다"며 "처음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묘장 스님의 조언이 생각나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고 웃어보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이판사판 결혼이야기'라는 토론과 발표의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결혼'을 주제로 한 질문 다섯 개에 저마다 답변을 남기고 발표해야했다. △결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결혼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점 △결혼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 △새로운 결혼 형태 등 질문을 두고 조별 토론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결혼에 대해 고찰했다.

다섯 조의 조장들은 고민한 흔적이 남은 전지를 들고 앞으로 나가 발표했다. 특히 '가치관' 부분에서 열띤 토론을 펼친 참가자들은 종교, 자녀 유무, 경제관념, 가정환경, 식습관 등을 결혼 전에 대화 알아봐야 할 가치관 요소로 짚었다. 발표를 맡았던 선재(전등사)는 "우리가 가진 현재와 미래 가족을 위해 가치관에 대한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총동창회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1만원 이하의 선물 준비를 요청했다. 프로그램 이틀을 거치며 마음에 둔 참가자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한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호명될 때마다 호감 있는 참가자에게 선물을 건넸다. 쌍방 선물교환으로 성사된 커플 총 4쌍과 더불어 비밀리에 복지재단 측에 서로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1쌍까지 총 5쌍이 총동창회에서 커플로 성사됐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 회향식에서 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이번 총동창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형성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기획됐다"며 "이 자리에 참여해 빛내 준 여러분에 감사하고, 만약 총동창회에서 인연을 찾지 못했더라도 부처님 가피 아래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의 '나는 절로'는 2024년 한해 3000여 명의 신청이 몰리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7월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10월에 있던 '아이가행복입니다 어워즈' 환경 조성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내년인 2025년에는 하동 쌍계사를 시작으로 김천 직지사, 남양주 봉선사 등 지역과 함께하는 '나는 절로'가 될 예정이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경북교구원장 천호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각 원장 및 부장의 공란은 이중승적으로 제적 되었음을 알립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주) 한국탑뉴스신문사

KTM 미디어 방송

기업 이벤트 사업. 유튜브라이브 방송 제작.
방송업. 광고업. 현재 130개의 업체에 보도자료송출.
사찰홈페이지 전문 제작 등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KTM 미디어 방송
방송 송출은 준비중에있으니
2월중에 송출가능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www.koreatopnews.net

사업처 서울 02-739-4780 부산 051-625-0776
진주 055-746-9778 남해 055-867-0024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약사여래 영험도량

광양 불 암 사

사부대중 합장

전남 광양시 다압면 백운3로 635-18
061-772-4748



자연과 조화로운 삶·세상과 함께하는 삶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해청(광주 원효사 주지)
공동대표 담준(광주 선덕사 주지)
법공(광주 문빈정사 주지)
동진(광주 광덕사 주지)

YouTube 나무숲TV

후원계좌 : 농협 301-0056-6893-11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월1만원 불교환경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450번길 1(나무숲센터)
전화 062)223-3623 010-8298-3623

녹 야 선 원

주지 아 도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각

주지 지장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심 향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도 림 사

주지 우 범



대한불교조계종

자 성 사

회주 명지

주지 일주

사부대중 일동



미래를 내다보는 정법포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단장 일면불 장경덕

포교사 일동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450번길1, 1층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 지 무 안

사부대중 일동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과 용산 국방부 원광사가 12월 14일 원광사 큰법당에서 '제1회 홍대선원 · 국방부 원광사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법회 후 촬영한 단체사진.

홍대선원 첫 수계법회…"참된 佛子로 살겠습니다"

저스트비 홍대선원 첫 수계현장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서울 국방부 원광사서 법회 봉행해
홍대선원 · 원광사서 100여 명 동참
교구장 법원 스님, '삼귀의계' 강조
청년, 군장병, 외국인 수계자 '눈길'

"저희 수계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나이다.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받은 저희들은 이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고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하게 하며 모든 중생을 교화해 영원한 자유를 구현하겠습니다."

홍대선원·원광사 신도들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삼보전에 서원했다.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과 용산 국방부 원광사(주지 원경 스님)가 12월 14일 원광사 큰법당에서 '제1회 홍대선원·국방부 원광사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홍대선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봉행된 수계법회라 의미를 더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수계법회는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홍대선원이 개원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부처님과 주변 여러 인연의 많은 도움으로 오늘에서야 여법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특히 호국도량 원광사에서 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국군장병과 홍대선원 청년들이 함께 수계를 하게 됐으니, 청년전법에 있어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삼귀의·반야심경 독송으로 시작한 수계법회는 불법승 삼보를 청하는 '청성', 계를 설하고 내려줄 계사스님을 청하는 '청사', 계사스님의 법문, 팔을 태우며 업장을 참회하는 '연비', 수계자 발원, 계첩 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법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국방부 원광사 주지 원경 스님,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보리선원 주지 무여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 선문 스님, 법여 스님, 법증 스님 등 스님들과 홍대선원·원광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불법승 삼보에 귀명할 것을 서원하는 '삼귀의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의 근본은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신명을 다해 귀의하겠다는 '삼귀의계'다"며 "다른 종교나 외도(外道)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향으로 팔을 태우는 연비를 하게 되면 과거의 탁한 업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과 몸이 맑고 깨끗해져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 오늘 수계법회에 마음을 잘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법문을 마친 법원 스님은 △산 생명을 죽이지 말고 죽을 목숨을 살리는 '불살생(不殺生)'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고 남을 위해 보시하는 '불투도(不偷盜)' △순결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지키는 '불사음(不邪淫)' △남을 속이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는 '불망어(不妄語)' △술에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는 '불음주(不飮酒)' 등 오계를 수계대중에게 설하고 이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청년, 군인, 외국인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강민경(35, 덕유) 씨는 "가족이 모두 불자인데, 오늘 부모님을 따라 수계를 받게 돼 기쁘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덕을 널리 퍼뜨리라는 '덕유'라는 법명을 받았다. 주변 인연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의미인 법명 '희견'을 받은 허예슬(30) 씨는 오늘 수계식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씨는 "법명처럼 행복한 삶을 여러 사람과 나누며 끝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대자유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선원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는 김수영(27, 해미) 씨는 "주지 준한 스님이 직접 지어주신 법명을 받게 되어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홍대선원 공양주로서 스님과 재가자분들에게 좀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공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대건(원광사 군종병, 해월) 상병은 "훈련소 때 이어 오늘 두 번째 수계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 잘못된 일들, 후회됐던 일들을 돌이켜 보고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 건축디자이너가 꿈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외국인에게도 특별했다. 홍대선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루카스(25, 덴마크, 휴암) 씨는 "평소 생각이 많아 괴로웠는데 불교를 만나 많이 좋아졌다. 수계식도 나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참했다"며 "오늘 수계식을 계기로 좀 더 '나'를 깨닫는 데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수계첩을 전달하는 준한 스님.



아원 스님이 연비를 하고 있다.



군장병에 연비하는 법진 스님.



덴마크 출신 루카스 씨도 이날 수계를 받았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 지 수 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061-473-5122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단 장 우 봉
– 임원 · 회원 일동 –

■ 연예인전법단이 하는 일 : 전국사찰노래자랑, 산사음악회, 포교사업, 불자연예인 발굴을 위한 예체능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봉사활동(사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병원), 어르신을 위한 잔치 등 불교대중화와 포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335호
☎ (02)725-0108 FAX (02)734-0770 / 010-3573-0108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사진=김민재 기자

"'Hip한 불교' 어디서 배울까?"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무교였다가 이제 불교신자로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은데 절이 교회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도와주세요."(알*******, 디에스알)

"마음 너무 힘든데 좋은 불교 영상이나 책 추천해 주세요. 근처에 불교대학 다니려고 봤는데 없더라고요?"(q******, 국방부)

"번뇌가 너무 많고,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불교 공부를 시작할까요?"(키*******, 새회사)

"불교 공부? 입문? 어떻게 시작하나요? 불교에 열렬한 신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근처에 절이 있으면 그냥 다니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즘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Blind)에서는 '불교' 관련 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불교에 관심이 늘고 있다는 뜻일 텐데, 문제는 시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불교가 너무 딱딱하고 멀게 느껴져 어떻게 입문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불교'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오히려 '힙'하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다. 사찰의 고요함과 스님들이 참선하는 모습은 왠지 '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의외의 재미와 '힙'한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불교는 2600여 년 전부터 힙스터(Hipster, 유행을 이끄는 사람을 일컫는 말)의 정석을 알려준 존재였다. 화려한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복잡한 철학을 강요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 방법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화날 땐 잠깐 멈추고 숨 쉬어 보세요." "남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쿨한 방식으로 말이다.

요즘에는 스님들도 유튜브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구독 버튼을 누르게 하고, 선명상은 집착·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와 마주하고 안락과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절에서 나는 맑은 목탁 소리는 이제 힐링 음악으로, 사찰음식은 웰빙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번잡한 일상을 떠나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쯤 되면 불교가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특집 '슬기로운 불교생활'에서는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의 친근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담아냈다.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는 과감히 내려놓고,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매력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불교 입문서와 관련 홈페이지 소개는 물론 생각지 못한 질문에 대한 스님의 유쾌한 답변, 불교 덕후들의 '찐' 신행생활, 입문자를 위한 스님의 친절한 가이드까지 준비했다.

불교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오히려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했다. 불교는 우리가 한숨을 돌릴 때, 잠시 눈을 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따뜻한 도반일지 모른다.

우리는 음식도 '힙'해야 먹고, 카페도 '힙'해야 간다. 옷장 속 패션도, 주말 나들이 장소도 '힙'함이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왕 힙한 세상을 사는 김에, 힙한 불교에도 한 걸음 가까워지길 바란다.

슬기로운 불교생활 불교입문서

"불교를 알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계종, 동국대, 불광, 운주사, 민족사, 담앤북스 등 불교계 주요 출판사가 선별한 '초심자 입문서'를 한자리에 모았다. 입문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려운 용어는 과감히 생략, 불교의 핵심 내용만을 골라 담아냈다. 어렵고 험난해 보이는 불교를 향한 첫걸음, 이 책들이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편집자 주〉



벼리는 불교가 궁금해

변택주 지음 / 권용득 그림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아하! 불교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2019년 출간돼 그해 올해의 불서로 선정된 '벼리는 불교가 궁금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이야기가 담겼다. 왜 사람들은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할까? 깨달음에 이르려는 수행자들의 뼈를 깎는 고행, 팔만 개가 넘는 경전들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 책은 쭉 뻗은 줄기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쉽게 간결하게 풀었다. 인간 붓다의 삶부터 붓다가 알려준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 사찰문화의 지혜 그리고 우리 일상에 붓다의 가르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생생하게 일러준다. 10대는 물론 불교를 모르는, 불교가 알고 싶은 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불교 입문서이자 인문교양서로서 제격이다.



〈처음 만나는 불교〉1~3

박이오 글
운주사 펴냄 / 2만9000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불교가 '바다'와 같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2600년의 기나긴 역사와 8만4000권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에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처음 만나는 불교〉는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방향을 일러줄 '지도'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책은 청년 싯다르타의 구도 여정을 담은 '청년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따르려는 출가수행자인 '스님',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절'을 주제로 삼았다. 책을 읽다 보면 '불교'라는 거대한 체계의 윤곽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다. 최대한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서술해 불교 초심자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으며,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각 주제마다 불교 정신과 역사성, 의미 등을 독자들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짜여졌다.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 이필원 글 / 배종훈 그림
민족사 펴냄 / 1만3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은 젊은 불교학자 이자랑·이필원 교수가 함께 글을 쓰고, 배종훈 불교 전문 카툰 작가가 도표를 그린 불교입문서다. 친숙하고 귀여운 그림으로 "불교는 어렵다"는 진입장벽을 허물고, 도표 옆에 상세한 설명을 달아 불교사전 없이도 불교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총 5개 장으로 나눠 편집, 불교에서 꼭 알아야 할 100여 개의 소제목 아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세종도서 교양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족사 측은 "불교학계에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자랑·이필원 교수가 공동 작업을 한 덕분에 불교 전반을 적절하게 서술했다"며 "부담없는 분량으로 구성돼 교재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스님 글
담앤북스 펴냄 / 1만9000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는 초심자를 위한 '그림책같이 재미있고 쉬운 불교책'이다. 불교 입문부터 문화, 신앙, 순례로 구성된 책은 진입장벽은 낮추고 기본은 빠뜨리지 않는 충실한 짜임새를 갖춘 '생초보 입문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불교 용어를 빼고 200여 장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더했다. 저자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한국불교학회장)은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이기도 하다. 불교는 물론 역사, 예술 분야까지 섭렵한 '찐' 전문가다.

자현 스님은 "불교책을 쓰게 되면 '최대한 쉽게' 쓸려고 하지만 결국 어렵게 된다"며 "이번 책은 최대한 어려운 용어는 배제하고 불교의 핵심 내용을 담은 '서머리(요약) 불교'라는 개념으로 담아냈다"고 밝혔다.

불교대학에서는?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2000원

조계종 포교원이 편찬한 〈불교입문〉은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불교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불교 입문서다. 초심자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은 불교의 종교적 특징, 부처님의 생애, 불자 예절, 수행 등 총 11장에 걸쳐 불교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다른 입문서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불교를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토론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불교입문〉은 말 그대로 불교 입문서계의 스테디셀러다. 1996년 9월 초판 발행 이후 수차례 증보됐고, 2017년에는 개정판이 나왔다. 현재에는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교재로도 사용 중이다.



불교학개론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원

조계종종립대학 동국대에서 불교개론 수업 '불교와 인간'은 교양 필수과목이다. 책 '불교학개론'은 동국대 신입생들이 불교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교입문서로 평가된다.

불교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이 책을 통해 불교의 기초 교리부터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철학의 핵심 사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중생 구제와 자비, 깨달음에 이르는 폭넓은 과정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책은 아함 교설과 초기 대승경전의 교설을 모아 근본교설로 서술하고 있고, 부파불교를 비롯한 인도, 중국의 중요한 불교사상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다만 기존 불교학개론은 40년 전 발간된 것으로, 시대에 맞는 보완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새롭게 발간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불교학개론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 경험하고 싶다면?

- 템플스테이 (https://www.templestay.com/)
- 한국문화연수원 (http://budcc.com/web/home.php?go=main)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http://www.jtchehum.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https://kbuddhism.com/)

#불교, 맛보고 싶다면?

- 봉녕사 · 동화사 사찰음식 강좌 (http://www.bongnyeongsatemplefood.co.kr/) (http://donghwasa.net/?c=3/245/246)
- 향적세계 사찰음식 강좌 (https://class.koreatemplefood.com/templeex/main/main.html?jijummid=templeworld)
-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 (http://balwoo.or.kr/)

#불교, 배우고 싶다면?

- 디지털불교대학 (http://www.edubuddha.net/)
-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BBS) (https://www.bbsi.co.kr/HOME/tv/tv_onair_detail.html?ProgramCode=1377)
- 정토불교대학 (정토회) (https://www.jungto.org/edu/)
- 불교사용설명서 (BTN) (https://www.btn.co.kr/btntv/contents.asp?ls_StSbCode=CATPR_05&PID=P1352)
- 조계종 사찰대학 리스트 (https://www.buddhism.or.kr/pogyo/sub4/sub4-1-t2.php)
- 천태종 사찰대학 리스트 (http://www.cheontae.org/edu/loader.php?hcode=gbuniv)
- 관음종 서울불교문화대학 (http://www.myogaksa.net/main_1.html)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 (032)933-8271~3 www.bomunsa.me



슬기로운 불교생활 왕초보 불교 QnA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불교'를 검색한 결과, 불교는 어떻게 믿는지, 부처님은 누군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중 불교를 향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문 일부를 선별, 백양사에서 교육을 맡은 교무국장 지담 스님에게 물었다. 이에 본지는 불교를 향한 '왕초보'들의 질문과 간결하지만 불교의 정수가 담긴 스님의 답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佛性 가진 우리, 모두 성불할 수 있어요



Q 불교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절이나 가면 되나요?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신행상담을 부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저도 처음 출가 할 때 절이 낯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교를 알고 싶은데 뭘 물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많은 사찰이 불교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불교대학을 수강해서 불교를 배워보길 추천 드립니다.

Q 불교는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아닌데 왜 기독교처럼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나요?

불교는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아니지만,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기리는 의미로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인간으로서, 그의 탄생은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이룰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방향을 찾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이는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고 불교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기독교와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초월적 숭배보다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과 깨달음에 중점을 둡니다.

Q 불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함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나요?

불교의 신행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상, 참선, 기도, 경전 독송 등을 통해 마음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함께하는 신행생활로는 사찰에서 예불, 법회, 불공(공양과 기도) 등에 참여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가르침을 배우는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 자비를 실천하며 공동체와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의 내면 성찰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통해 깨달음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Q 불교에서는 본인 행적에 따라 '윤회'한다고 하는데, 지구가 아예 없어지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다른 우주에서 태어나나요?

불교의 윤회 사상은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단순히 지구라는 특정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회는 물질적 장소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의 법칙으로 여겨지며 이는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윤회는 업의 법칙에 따라 다른 차원이나 세계에서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불교의 우주관과 업의 원리에 기반을 둔 설명입니다.

Q 불교는 출산을 어떻게 보나요? 삶은 고통이라는데 고통바다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불교에서는 출산을 생사의 순환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집착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고통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출산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집착과 어리석음을 물려주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물질적 욕망이나 삶의 투쟁적인 면을 넘기기보다,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출산은 새로운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Q 불교에서 스님이 육식 못 하는 건 아는데, 가죽 가방이나 의류는 입을 수 있나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육식을 피하는 이유는 자비와 생명 존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죽 제품 사용도 비슷한 원칙에 따라 논의됩니다. 이상적으로는 동물의 죽음에 연관된 가죽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전통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추위 등의 이유로 가죽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에는 인조 가죽 등의 대체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죽 사용 여부보다 자비와 절제를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Q 불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 못 하나요?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 다른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도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점은 상호 존중과 화합입니다.

Q 불교 경전 중에 어떤 경전이 제일 효력이 좋나요? (금강경 vs 천수경)

금강경은 고통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통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수경은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맹세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키우고 싶다면 금강경을 이해하는 공부를 추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살아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천수경 내용을 풀어서 이해하는 공부를 권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공부가 모자라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암호 화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경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Q 명상을 할 때면 잡념이 많아져요. 스님들은 명상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깊은 집중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의식의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그곳에 의식을 천천히 모아 집중의 밀도를 높여 점차 깊은 명상으로 의식을 이끌어갑니다. 이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들숨날숨(호흡)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명상에 들어갈 때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호흡 말고도 색깔, 모양 등 시각적인 것, 따뜻함, 부드러움 등의 촉감적인 것 등 머릿속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집중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명상을 시작합니다.

저는 양쪽 손바닥에 따뜻함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온기가 팔을 통해 온 몸으로 퍼지는 느낌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하고 있습니다.

Q 불교 믿으면 제사 지내야 하나요?

불교에서 제사는 필수적인 의무가 아니며, 주로 유교적 전통이나 문화적 관습에서 기인한 요소입니다. 불교는 조상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사보다 공덕 회향(선행과 수행의 공덕을 고인에게 돌리는 것)을 중시합니다. 제사는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며 불교적 방식으로는 49재나 천도재를 통해 고인을 기리거나 공덕을 쌓아 회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Q 불교도 '사이비'가 있나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은 비슷하나 속은 다르다'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형태를 차용한 사이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신앙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자율적 깨달음과 평화를 권유하지만 사이비는 이를 가장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금전을 착취합니다. 올바른 불교는 합리적 사고와 자비가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노골적인 금전요구를 하는 곳은 사이비일 확률이 높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Q 불교에서 묵주(?)는 왜 쓰나요?

수행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염주'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108염주가 있습니다. 염불을 외우거나 절을 하며 수를 셈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산만함을 줄여 집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를 세지 않더라도 염주를 손에 쥐고 구슬을 옮기는 반복적인 동작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염주는 염불과 기도를 돕는 수행 도구로 집중력 향상과 마음의 고요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Q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요? 신인가요?

관세음보살은 실존 인물이 아닌 자비와 도움을 상징하는 이상적 존재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고도 중생을 돕기 위해 중생 곁에 머무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돕는 존재로 관세음보살은 그 상징적 본보기입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러한 보살의 가르침을 본받아 자신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노력합니다.

도움=백양사 교무국장 지담 스님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희 가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개화산 약 사 사

주 지 범해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7길 261 약사사
(02)2662-2551, 7551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사부대중 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www.gounsa.net
대표전화 054)833-2324, 010-5163-2324
템플스테이 054)833-6933, 010-2653-0872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회 장 법안 (성주사 주지)
수석부회장 광우 (정법사 주지)
부 회 장 지암 (송림사 주지)
월서 (길상사 주지)
무성 (구룡사 주지)
진홍 (자비정사 주지)
감 사 해암 (용천사 주지)
무아 (진불선원 주지)
혜명 (반야사 주지)
사무총장 원문 (금룡사 주지)
총무부장 자경 (대광사 주지)
재무부장 선해 (미타사 주지)
포교부장 무성 (구룡사 주지)
문화부장 성욱 (영진사 주지)
복지부장 성우 (천웅사 주지)
증명법사 흥교 (성주사 조실)
상임고문 지태 (봉원사 주지)
원행 (정인사 주지)
도홍 (정인사 주지)
정인 (불지사 주지)
고 문 운남 (봉림사 회주)
월봉 (석봉암 회주)
호정 (세심사 주지)
석봉 (백운사 회주)
월도 (원흥사 주지)
성일 (수선정사 주지)
명종 (자비사 주지)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상가 14층
H.P 010-5246-2112

대한불교조계종

봉 정 사

회주 호 성
주 지 두 현

신도회 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 축 서 사

주 지 무 여

사부대중 일동

보궁기도 ·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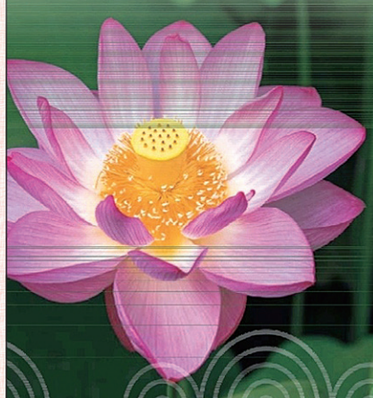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장 이영수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
(농민빌딩 4층)
T. 052)271-1310
F. 052)258-1370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사

주 지 도 륜

사부대중 일동

대원불교대학운영
어린이집운영
카페 무심코운영

경북 안동시 서문동로 141
전화~054.858.2630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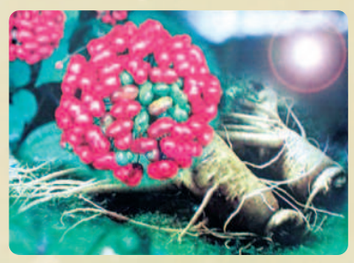
한 마 음 선 원
문 경 지 원

모든 일을 한마음으로 다 결부시킨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처할 수 있다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10
전화 054-555-8871

풍기정품인삼 #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성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섬김봉사단

사부대중 일동



호국불교 독립운동 중심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주지 현진 스님

사부대중 일동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운봉 법광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홍 은 표
교 법 사 문 수
교 법 사 원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전화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륜

회원사찰 일동



중생들의 평안과 다복을 기원하는

八公山 松谷寺

주지 만녕

사부대중 일동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쉽고 바른 불교교육을 실천하는 승가

법 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정은용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45-11
전화 02)732-1206

예공
Total Design 전문회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카다로그/브로슈어/리플렛/BI,CI제작
시각Design/인테리어/환경Design
실사, 현수막출력/옥외광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54-1
대표전화 _ 062·352·7474

(주)열린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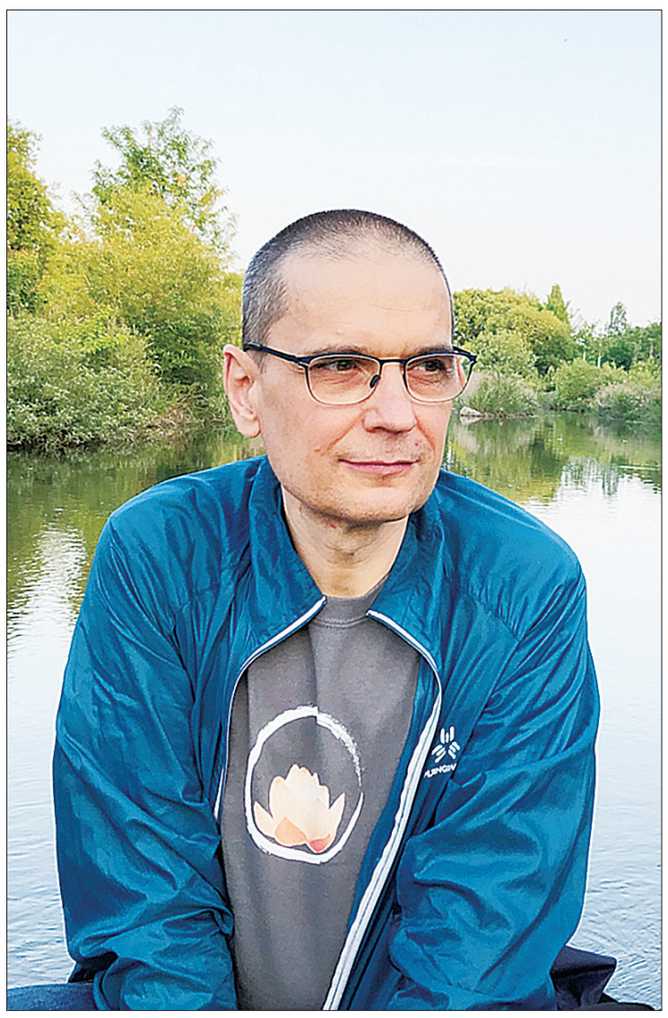
대표
정 성 훈

Stage System Design



슬기로운 불교생활

'찐 불자'의 신행생활



"매일 15분 정진, '나'를 바꿉니다"

안제이 스텟즈 법사

매일 좌선, 염불로 수행 정진
폴란드서 '숭산 스님'과 인연
불교서 발견한 인생의 '해답'
"쉽다·어렵다 대신 오직 할뿐"

"딱-딱-딱."

새벽 6시, 날카로운 죽비 3타가 동도 트지 않는 하늘을 깨운다.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눈은 45도 아래로, 손은 가지런히 모은다. 밤사이 들쭉날쭉했던 호흡을 정돈하고 내면으로 빠져든다. 30분간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지나면 굳었던 몸을 풀기 위한 108배가 이어진다. 외국인 법사 안제이 스텟즈(Andrzej Stec, 폴란드) 법사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깨어난 몸과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의 수행이 더 필요하다. 집 앞을 산책하며 염불하는 '만트라 워크(Mantra walk)'가 그것이다. 안제이 법사는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혹여나 마음속 남아 있는 번뇌를 걷는 걸음걸음마다 말끔히 털어낸다.

날이 저물면 '나'와 '너'에서 나아가 '우리'를 위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로 전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한다. 잠들기 전까지 염불도 멈추지 않는다. 순간순간에 깨어있다면 다음날, 더 나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걸림이 없다는 게 안제이 법사의 생각이다. 이렇듯 안제이 법사의 수행은 끝나는 법이 없다. 삶이 곧 수행이며 수행이 곧 인생이다.

안제이 스텟즈, 훤칠한 키에 푸른 눈을 한 이 폴란드 법사와 부처님 인연은 마음에 들끓던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등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들은 1981년 청년 안제이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방황은 한 한국인 스님을 만나 끝났다. 바로 해외포교의 선구자이자 선승(禪僧)이었던 숭산 스님이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찾으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감로수였다. 특히 숭산 스님의 저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를 읽은 후 그가 품어왔던 모든 의문은 자연스레 해결됐다. 이후 국제승가 '관음젠스쿨'의 법사로서 한국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책에는 숭산 스님이 편지로 제자들과 문답하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모든 것이 명확하고 명징했습니다. 특히 본성에 대한 가르침, '오직 모를 뿐' '나는 누구인가' 등은 제가 번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진리에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확신했습니다."

불법(佛法)을 삶의 방향으로 삼은 안제이 법사는 인생의 동반자 역시 불교에서 만났다. 참선하며 만난 한국인 일화 법사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부처님이 이르셨듯, 같이 수행하는 도반(道伴)이 있다면 깨달음을 이룬 것과 같다. 두 법사는 오늘도 부부이자 수행자로서 함께 정진하며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좌선에 든 안제이 스텟즈 법사.

꾸준한 수행으로 힘들었던 순간을 극복한 안제이 법사는 불교 초심자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물러섬 없는 정진을 계속할 것. 큰 바위가 쉼 없이 흐르는 물방울에 깨지듯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번뇌도 끝없는 수행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뜻이다.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하는 수행이 당신 전체를 바꿔 놓을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세요. 쉽다, 어렵다는 잠시 두고 '오직 할뿐'입니다."

김민재 기자

"부처님 말씀 한자 한자 쓰며 佛며 들었죠"

정재현 달마사 청년회장

365일 네버엔딩 사경 수행 정진
사경한 '법구'들, 삶에 스며들어
부단한 수행 정진의 비결, '법우'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길"


사경 중인 정재현 회장.

정재현 달마사 청년회장(24,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의 하루는 사경으로 시작하고 사경으로 끝난다. 피곤해도 예외는 없다. 또다시 책상을 펴고 붓펜을 든다. 20~30분.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다. 부처님 가르침이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한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쓴지도 자그마치 365일, 꼬박 1년이다. 그가 1년 사이 필사한 경전은 총 3권, 부처님 친설이 담긴 〈법구경〉, 부모님 은혜를 설한 〈부모은중경〉, 집착하는 마음을 잠재우는 〈우리말 금강경〉이 그것이다.

정 회장에게 힘과 의지처가 되어준 경전의 법구(法句)들은 그의 삶도 바꿔 놓았다. 〈부모은중경〉 사경 때가 그랬다. 지방에 살던 그는 원하는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 자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본가에 자주 연락했지만 점차 연락 횟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연락을 안했다.

그러나 〈부모은중경〉을 사경하면서 자연스레 부모님의 은혜를 곱씹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저절로 부모님 목소리를 찾게 됐다. 더 나아가 부모님에게 하는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도 한 번씩 더 살피게 됐다. 그때 그는 느꼈다. 부처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매일 사경하다 보니,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있더군요. 어느새 한 개 두 개씩,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더 이상 종이에 있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 삶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매일 사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를 지탱해 준 건 '법우'들이었다. 사경을 끝낼 때마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은 그에게 큰 위로이자 원동력이었다.

"저희 달마사 사경 공동체는 하루 사경을 회향할 때 그날의 소감이나 느꼈던 점을 남기기도 하고, 서로의 수행을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수행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제 수행의 전부를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경을 이어온 정 회장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불교적인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정 회장이 불교 초보들에게 건넨 조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 것"이었다. 불교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과 난해한 철학으로 되어있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시간을 쪼개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불교에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 그는 장담했다.

"일단 시작들 하셨죠?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멈추면 끝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에 서서히 수행이 익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삶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김민재 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JUST BE 홍대선원 x 대치 엠마제과

JustBe 홍대선원과 대치미도 엠마제과점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엠마보살님'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한 명은 출가하여 홍대선원 창립에 큰 공헌을 한 스님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JustBe의 대표가 되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5년동안 동네 주민들과 많은 단체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빵 하나하나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듯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사찰 대중공양, 선물세트, 단체주문, 택배 가능
대표상품: 만주 (팥, 완두, 흰), 찹쌀떡 (호두, 팥), 단팥빵 (호두, 팥)

EMMA 대치미도 엠마제과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02-562-9886
주소: 강남구 삼성로 150, 미도상가 1층

'천년관음성지 우리절 옥천암'
서울 옥천암
주지 원경
신도회, 거사회 일동



서울 서대문구 홍지문길 1-38 옥천암
02-395-4031

“이 시대 멋쟁이가 되고 싶나요? 그럼 불교로!”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

불교 문구 담긴 티셔츠 인기 폭발
불자 본분 다하려 출가학교 체험
늘 ‘알아차림’으로 상황 바르게 봐
불법 담긴 음악 해외서 알리고파

“사실 멋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외모, 옷, 자산 등 여러 면에서 멋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불교는 진정 이 시대 ‘멋진 인간의 길’을 안내하는 멋쟁이 중의 멋쟁이예요. 불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감정을 닦아내는 성찰을 일러주죠. 이보다 멋진 게 어디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면 삼일 밤을 새도 모자라다는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30)가 끝도 없는 불교의 매력을 자랑했다. 주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스님인 아버지 덕분에 불교는 그에게 특별한 가르침이라기보다 일상이었다. 그렇다고 불교 교리를 깊이 공부하거나, 엄격한 불교적 삶을 산 건 아니다.

그런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년여 전쯤, 아버지 곁에서 범어(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쓴 것)를 보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티셔츠에 범어를 새기는 것’이었다. 처음엔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불교를 알리는 나만의 재능은 이거다!’ 싶은 순간이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을 접목한 불교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었다. ‘깨닫다’ ‘중생아 사랑해’ ‘응~수행정진하면 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는 2024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MZ세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대란을 일으켰다. 불교에 대한 쉽고 유머러스한 접근이 MZ세대의 취향에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스스로 ‘불자’라는 긍지와 책임감이 생기자 그에 걸맞는 불자의 본분을 다하고 싶었다. 곧바로 월정사 출가학교를 찾아 3주간 한국불교 전통 승가생활을 경험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산내 암자를 참배하고, 예불을 올리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다. 출가학교가 끝난 후에도 도반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법담을 나누고, 1080배 절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도 실천한다. 항상 마음속으로 ‘알아차림’ 하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상황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연습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 대표는 최근 잠시 접어뒀던 사운드 디자이너의 꿈을 다시 불태우고 있다. 사운드 디자이너는 사물의 소리나 효과음을 조작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티셔츠를 만드는 일보다 주 대표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음악을 제작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불교의 멋’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기회로 바꿔 ‘찐’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주 대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교 입문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마음가짐과 진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불교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불법이 담긴 음악 제작이 목표라는 주여진 대표.

“저도 불교 입문자와 다름없어요. 교리나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불교에는 명상·템플스테이·집중수행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이미 불교에 마음을 열고, 그 길을 향해 발심했다는 점이에요. 그 자체로도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엄마는 관세음, 친구는 부처님…불교, 멀리 있지 않아요”

김효승 작가

모태불교서 시작된 부처님 인연
지금껏 100여 불화 · 불상 조성해
재료 · 마음속 ‘부처님’ 찾는 마음
“불화 보고 모두가 편안해지길”

김효승 작가(15, 조치원중)는 불모(佛母)다. 불화(佛畫), 불상(佛像)을 조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김 작가는 재료 속 부처님을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붓을 든다. 그는 올해로 만 15살. 화실보다는 피시방과 노래방이, 부처님보다 친구들이 어울릴 법한 나이다. 그러나 김효승 작가의 붓은 언제나 부처님을 향해 있다.

김효승 작가의 불연(佛緣)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다. ‘모태불자’인 셈이다. 어머니가 서울 도선사에서 종무원으로 일했던 것이 인연이 됐다. 세상에 나오고 나서도 김 작가의 놀이터는 사찰이었고 부처님과 스님은 그의 친구였다.



불화 조성에 열중하고 있는 김효승 작가.

가랑비에 옷 젖듯 불자가 된 그는 어릴적 불교방송을 많이 봤는데, 자꾸 부처님과 보살님을 가까이서 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스케치북과 지점토를 집어 들고 독학으로 부처님을 조성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 작가는 100여 점에 달하는 불화와 불상을 탄생시켰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소조석가모니불좌상’이다.

‘소조석가모니불좌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건 계룡 갑사를 찾았을 때였다. 장엄하게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다. 김 작가는 그 자리에서 불상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백방으로 불상 조성법을 알아봤다. 관련 책자는 탐독하는 것은 물론, 선배 불모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그는 1층 베란다에 자리를 잡고 부처님을 조성해 나갔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나, 개금불사까지 마친 여법한 부처님이 모습이 드러났다.

“불상을 만들 때, 누구든지 이 부처님을 뵙게 된다면 다친 마음이 치유되길 발원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모두가 편안해지길 바라는 자비심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다만 뭇 중생의 행복을 발원하기 이전에 그에 걸맞은 신심(信心)과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 작가 역시 온전한 부처님을 찾기 위해 신행생활에 열심이다. 집에 작은 불단을 설치한 그는 매일 참선수행과 〈금강경〉 독송으로 산란해진 마음을 가라앉힌다. 작품 조성에 진전이 없거나, 번민이 올라올 때는 집 근처 사찰을 방문해 스님들과의 차담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김 작가는 이 지난한 수행과 불모의 길 끝에는 ‘깨달음’이 있길 서원했다.

“부처님은 ‘모든 게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가 담긴 ‘불성(佛性)’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을 볼려면 수행이 필요하죠, 제가 부처님을 열심히 조성하는 이유도 그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끝으로 그는 새해 불교를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어렵고 난해해 보이지만, 어떤 종교보다도 삶과 맞닿아 있는 일상의 종교가 ‘불교’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불법(佛法)은 멀리 있지 않으니, 조금씩 알아가길 바랬다.

“불교는 일상에 있는 삶의 종교예요. 엄마가 ‘관세음보살’이고 친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보면 삶 곳곳에서 깨달음의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심 스님

-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여성 수석 부회장
- 안성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

소중한 불연…정진 통해 스스로 빛나라

〈佛緣〉

슬기로운 불교생활

초심자를 위한 스님의 당부



조계종이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2024 국제선명상대회 불교도대법회'에서 3만 5000여 불자를 대상으로 '국민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팔을 걷어 올려 수계 법사스님에게 연비를 받은 불자들은 자신의 마음 평안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국민오계를 잘 받들어 지킬 것을 다짐했다. 사진출처=현대불교신문 DB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는 아침. 새해맞이 새벽예불을 올리기 위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법당에 도착한다. 새해 아침을 거룩한 합장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스러운 승가에 예경을 올리고 발원을 올린다. 하얀 떡국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고 서대문구의 해돋이 명소인 '안산'을 향해 어둠을 뚫고 나아간다. 겨울 아침의 추위를 막을 두꺼운 옷을 입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등산스틱과 아이젠으로 무장하고 산에 오른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 아직은 깜깜한 어둠의 길이지만,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사람들이 반갑고 의지가 된다. 어두워 손전등을 비추며 걷다 산중턱에 오르니 땅이 얼어 더 조심조심 걷는다.

짙은 어둠이 없으면 새벽이 오지 않듯이 삶의 여정 속에 깊은 고민과 고통을 직면할 때 지혜의 빛은 여명처럼 서서히 드러난다. 하지만, 일상이 바쁘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는 현대인들은 고통속에 빠져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괴로운 삶, 상대에 대한 분노로 몸둘바를 모르는 모습들, 인과에 대한 알아차림 없이 남만 탓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서 인생은 혼돈 속에 갖혀 버리곤 한다. 이러한 혼돈의 원인을 명확히 알려주고 그 힘겨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친절하게 제시해주는 불교가 좋아 출가자의 길을 나는 걷고 있다. 새해에는 혼돈과 갈등속에서 시원하게 그 원인을 찾고 이해와 배려의 따뜻함으로 가슴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불교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들과 이야기 해보면 불교는 마음을 쉬게 해 주고 강요하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갈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불교를 처음 접하고 길을 묻는 이들에게 나는 여섯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먼저, 부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스님이나 지도자를 만나보면 좋겠다. 산에 올라 본 사람이라면 고생 덜하고 정상으로 올라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마음 수행을 깊게 해 본 사람은 거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 혹은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금방 편안해지고 관세음 혹은 아미타불이 되어 중생을 돌보고 싶은 자비심이 샘솟는다. 명호를 부르는 순간 밖으로 나갔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어머니를 만나듯 중생들이 행복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좋아하는 불보살님 명호를 염송하면 즐거운 설렘으로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로 자주 갈 수 있는 가까운 사찰을 찾아보면 좋겠다. 사찰에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통해 나쁜 업을 바꿀 수 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면 나쁜 습관으로 인해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수행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 일곱 부처님이 강조하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는 말씀은 귀히 여겨지고 모든 수행의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수행의 장소인 사찰에 자주 가서 부처님께 삼배의 예경을 올리고 명상, 염불, 108배, 사경, 봉사등을 꾸준히 하다보면 긍정의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1700년의 유구한 불교의 역사 속 수많은 선지식들의 혜안(慧眼)으로 제안된 수행의 지름길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재산인가? 그리고 사찰을 선택할 때는 이왕이면 불교입문 강좌나 일요법회를 통해 마음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사찰예절과

스님 · 도반들과 점검 과정 필요
수행 통해 좋은 습관 익히기도
명상 · 염불 · 사경 · 봉사 생활화
보시와 십선 실천해 마음 정화

의미, 사찰의 구조, 부처님의 일생, 사찰문화등 기초를 배운다면 사찰의 모든 것이 마음수행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새로운 안목이 열릴 것이다.

셋째로 일과 수행을 통해 좋은 습관을 익혀보면 좋겠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부담없는 실천가능한 수행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하기, 지혜의 말씀 한 페이지 읽기, 명상 5분하기, 칭찬하기, 염불 5분하기, 유튜브로 좋은 법문 5분 듣기 등등 명철한 지혜와 자비를 성장시킬수 있는 일과수행을 결정하고 3일, 7일, 21일, 49일, 100일 기간을 정해 놓고 해보는 것이다.

나의 수행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 해야하고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육근(눈, 귀, 코, 혀, 몸, 의식)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이 형성된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듯이 육근을 맑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나갈 때 마음의 힘이 생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생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수행이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지혜의 빛이 조금씩 드러남을 알게 된다.

넷째는 함께 수행하는 좋은 도반을 찾아보면 좋겠다. 혼자서 걷는 길은 종종 지루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걸으면 그 길은 즐거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 수행하며 수행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점검해 나가다 보면 수행이 즐겁고 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도반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다. 어떤 도반과 함께 길을 가느냐에 따라 지혜가 성장하기도 어리석음이 깊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서로 탁마하며 걸을 수 있는 도반을 만났다면 당신은 서로의 어둠을 비춰주는 등대를 만난 행운아임이 분명하다.

다섯째는, 보시의 습관을 길러보면 좋겠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는 보시만한 것이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을 욕심으로 본다.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욕심을 내려 놓는 수행이 바로 보시다. 보시를 하다보면 탐욕이 줄어들고 보시한 만큼의 자비가 생기고 자비는 환희심과 지혜의 빛을 열어준다. 보시에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가 있는데 재물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보시하는 것이고 법보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며 무외시는 타인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또한 재물 없이도 할 수있는 일곱가지 보시 즉 무재칠시(無財七施)가 있는데 환한 미소로 남을 대하는 화안시(和顔施)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언시(言施), 따뜻한 마음을 주는 심시(心施), 사랑을 담은 눈으로 베푸는 안시(眼施), 몸으로 도와주는 신시(身施), 자리를 양보하는 좌시(坐施),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서 도와주는 찰시(察施)가 있다. 평소 인연에 따라 할 수 있는 보시를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와 평화가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여섯째로는 수계를 받고 평소 십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불교입문과정을 수료하면 수계식을 통해 삶의 지침이 되는 법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오계(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지킬 것을 약속한다. 더 나아가 열가지 악한 행동인 십악으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십선인 방생, 보시, 청정행, 진실한 말, 바른 말, 화합의 말, 부드러운 말, 지혜 등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노력은 번뇌를 일으킬 거친 행동들을 미리 삼가도록 해 선정과 지혜가 자라게 될 밭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새해의 밝은 해를 만나기 위해 어둠 속 얼어붙은 땅을 조심조심 걷듯이 나의 삶을 어둡게 하는 행동들을 멈추고 따뜻한 옷으로 추위를 막듯 10가지 착한 행의 옷을 입을 때 수행은 완성되어 갈 것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때만 가능하다. 부정의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고 어둠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겠지만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본래부터 부처님 성품이라 일컫는 밝은 지혜와 자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에 올라 붉은 해를 보면 주변이 아름답게 물들고 아래로 세상이 환희 드러난다. 어둠을 없애는 수행 역시 주변에 온기를 주고 자신의 지혜를 밝혀준다. 천수경에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백천만겁의 긴 세월을 지나 겨우 만난 인연이라는 것이다. 불법을 만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꾸준한 정진으로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이 밝고 맑은 지혜의 빛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본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

회 주
의 정 대종사
선원장 각 산
외 대중일동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WORLD MEDITATION VILLAGE
◆ 1577-4327 / 010.6408.3280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송재린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감 사 이수임 하창균
부 단 장 서영우 이양희 임한규 주태돈
사무국장 강태산
총괄팀장 최정자 황용대 조봉례 김영신 천경덕
김진희 윤영준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pogyo3011@daum.net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성문,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배종권
운영이사 주석, 도명, 법경, 용암, 법경(천불정사), 용하, 대각, 성화 보련, 태산, 법관, 보원, 수산, 윤광, 현여, 이경순, 서미단, 박경례, 복춘희, 신혜숙, 김선옥, 정순자, 박경옥, 최영호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
(수정동,은정빌딩)
전화 051-853-0429 Fax 051-853-0439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정 오
상임이사 원 광
총무이사 석 산
이 사 범산, 명현, 심산, 성문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윤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강명자 김순이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부 회 장 윤미자 안상희
특별임원 임춘지
감 사 강행순 강지원
재 무 윤정희
총 무 송순애
팀 장 최말순 김금옥 박선자 김숙희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

회 주 선묵고담
주 지 법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범성)
총 무 수진법사
원 주 정정자
신도회회장 이상봉
신도회부회장 백현일
장문정
신도회총무 남현주
거사림회장 이경철
거사림총무 홍치표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고담·나누미총무 홍현주
청년회법향회장 이정민
청년회법향총무 이영주

사부대중 일동

누림주간보호센터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051)516-2333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

주 지 안 도
신도회장 정재원
수석부회장 이복덕
다 도 김미규
불무도 박성우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전화 051)701-8827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로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월천 혜총 대종사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박화자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위드아시아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어린이집
문현노인복지관
못골다함께돌봄센터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범내산 관음사

주지 천웅 도광

신도일동

매주 일요일 국수 무료급식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사

주지 무 아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현정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배종환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법당꽃보살 주원미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원순** 동명불원
부 회 장 **능후** 대연정사
감 사 **대 각** 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무국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 회장 **박화자**
수석부회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정 오**
부총재 **원 타**
도 림
사무총장 **해 공**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정경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 o/p 1206호
전화 051)513-4306 Fax 051)513-4307

청정기도도량(양정시장 꽃상가 5층)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범어사 방장)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 기도법회 –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관음재일법회
광명진언천일기도법회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18
양정상가5층 여여선원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산하시설 및 운영사업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공덕향재가복지센터
북구장애인복지관
북구아이돌봄지원사업

온정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 : 부산은행 255-01-000716-4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상가동 204호 (금곡동)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http://www.gongchang.or.kr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 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대학원
포교사반(1년), 입문자반(3개월)
대학원(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선원
경산 **삼성사**

주지 **평중 효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목요금강경독송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목요일 다라니108독 용맹기도 오후 7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8번길 12-2
전화 051)851-3355
경상북도 경산시 상대로 423
전화 053)856-1110

준제보살기도도량
연종학림
명상센터
바즈라야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5 3층
전화 051)404-5037

대한불교조계종
발원사

주지 **호 법**

신도회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오부상**
순례단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상사**

주지 **자 인**
신도회장 **용담 최금식**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지장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0408, 5224
FAX 051)973-3076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천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박영자**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 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34-5689

고려시대 석기왕자 출가사찰
만덕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만덕사 신도일동

사단법인 현대불교 금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① 불교학자가 드라마에 꽂힌 사연

불교의 눈으로 드라마를 본다면…

'불교 드라마'와 '불교의 눈으로 보는 드라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드라마에는 관심도 없고 경전만 들여다볼 것 같은 불교학자가 드라마에 '꽂힌 썰'을 먼저 푼다.

21세기의 20~30대를 'MZ세대'라고 부른다. 30년 전인 1990년대의 20~30대는 'X세대'라고 불렸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기성세대와 달리, '개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에 관심을 두는 세대라고 해서 '신인류'라고도 했다. 이들은 1980년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컬러TV를 보고 자라면서 이미 어린 나이에 영상매체의 화사함을 몸으로 체득했고, '마이마이'로 통용되던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에 '헤드폰'을 꽂아 음악을 들으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또 1990년대에 출시된 삐삐(무선호출기)와 PCS(개인휴대통신),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을 단숨에 부숴버린 것이었으니, X세대는 실제로도 대중매체와 기계문명이 넘쳐나는 뉴미디어시대를 누리기 시작한 신인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X세대의 불교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비해 서적과 잡지, 신문 매체가 늘어나고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외국 서적들이 번역되면서 기존의 집단적인 종교활동보다는 불교철학과 개인의 수행 쪽으로 관심이 쏠렸고, 불교방송(BBS, 1990)과 불교TV(BTN, 1995)가 생기면서부터는 미디어에 익숙한 X세대답게 대중매체에서 불교를 찾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침 상업광고에서도 스님들이 등장했다. 노스님과 함께 대나무 숲을 걷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한석규 배우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한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깊은 산속에서도 통신이 잘 된다는 SK텔레콤의 광고(1998)는 종교를 떠나 대단한 호평을 받았고, 몇 년 뒤에는 후속작도 나왔다. 이번엔 젊은 비구니스님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나무가 우거진 한적한 숲길을 걸어가는데, 저만치서 자전거를 탄 수녀님이 그 곁을 스쳐 지나가는가 싶더니 되돌아와서 함께 자전거



2001년 SK텔레콤 광고의 한 장면. 2023년 입적한 청안 대종사와 유명 배우 한석규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불교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지점도 있지만, 불교는 심산유곡에 있는 종교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도 했다.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교 철저히 '사람' 중심
드라마도 '사람 '중심…인물, 서사 불교적 조명 예정

를 타고 사라진다. 광고시장에 종교화합의 장을 열며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 준 SK텔레콤의 광고(2001)다.

그런데 TV를 틀 때마다 스님들을 만나는 반가움도 잠시, 곰곰 생각해보니 어색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화기를 잠시 꺼두어도 될 만큼 통신사의 기반시설이 좋다"는 첫 광고의 배경에는, 노스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SK텔레콤의 신기술이 없이는 통신도 되지 않는 심산유곡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불교가 그만큼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중의 심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살아남는 상업광고의 세계, 그 속에 당시의 일반인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 있다. 자전거로 대표되는 친세속적인 기독교와 21세기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도보'라는 원시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깊은 산속에 머물러 있는 불교가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디어에 스님들이 등장하고 사찰이 나온다고 해서 마냥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보다 조금 앞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미국 영화 '보디가드'(1992)였다. 테러 위협을 받는 유명 가수와 그 가수를 지키는 보디가드의 사랑 이야기가 기본 줄거리인데, 눈길을 끈 건 마지막 장면이었다. 영화의 본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비록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주인공 '보디가드'가 '신'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기독교 문화가 서양사회에서 얼마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면 저런 상업영화에서까지 버젓이 종교적 가치를 표방하는지 의아스러웠다.

그 후로 우리 사회를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국사책에 나오는 고려대장경이 지금 해인사에 있는 국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는 할까? 스님이 등장하고 사찰을 배경으로 하기에 '불교 영화' 또는 '불교 드라마'로 분류되는 작품들 중 대부분이 불교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답답했다.

자, 그렇다면 '불교의 눈으로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세한 이야기는 작품을 통해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철저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이었다. 비록 지금은 전생의 업을 안고 태어나 윤회 속에 갇혀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중생이지만, 누구나 공부하고 수행하면 깨달아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드라마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이지만, 드라마 안에는 우리 곁에 존재할 법한 주인공들이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겪는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펼쳐진다.

그러니 드라마 또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불교의 눈으로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불교적인 소양을 갖추었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교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21세기는 미디어의 시대다. 불교 또한 여러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매일 보는 드라마와 광고에 불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영화와 가요와 소설책 하나에도 불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교인지 몰랐는데 불교에 빠져들게 하는 최고의 전법이고 포교가 될 것이다.

우리 대중문화에서 힐링과 치유가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다. 30년 넘게 불교를 공부해온 학자이자 불자로서, 힐링과 치유에 부처님 가르침보다 좋은 명약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눈으로 드라마를 보는 이 자리는, '꼰대'로 불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철없는 X세대가 지금의 MZ세대에게, 드라마를 보며 조금이나마 평안함을 얻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라고 건네는 작은 위로의 손길이다.

최원섭 연구원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영상미디어의 불교주제구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철선사상연구원 전임연구원과 금강대 인문한국연구센터 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선사상 연구와 더불어 대중문화를 통해 불교를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생들 고락의 해법 전하는 경전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① 〈지장십륜경〉은 어떤 경전일까?

〈지장십륜경〉 이야기를 현대불교 신문 독자들과 같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인 〈지장십륜경〉은 중국 불교 종파 중 하나인 삼계교의 소의 경전으로 지장보살님의 십종공덕을 어떻게 실천하면 성불에 빨리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장'의 뜻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십륜'의 이해, 그리고 지장경의 종류와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장(地藏)'이란 말은 참으로 심오하고도 재미있는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地)'란 땅을 의미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거의 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그 자취를 거둡니다. 또한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사대(四大) 가운데, 그 첫 번째의 '지(地)'란, 곡식· 과일· 풀· 초목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 발육시키며, 그 생명을 거두는 대지(大地)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같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장(藏)'이란 감춘다와 저장한다는 뜻이 있어서,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을 지니고 있다는, 유식학적(唯識)인 의미로도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지장'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지장'이란 용어의 탄생은 석가불 이전의 바라문교의 신화 중 지천(地天) 내지 희랍신화 중 대지를 의인화하며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천의 사상이 불교에 흡수되며 이상화되고, 대승불교화 되어 하나의 사상체계화 된 것이 바로 〈지장십륜경〉입니다.

어쨌든 〈지장경〉 사상은, 우주천체의 심오한 경계를 논하고 있는 〈화엄경〉이나 삼세제불의 시공을 뛰어넘는 〈법화경〉의 도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즉 '바로 우리' '지금 현실생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현실인간의 공통사적 문제해결을 간결·명쾌하게 논하고 있는 점이 〈지장십륜경〉의 특색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타의 여느 경전보다도 민중의 애달픈 생활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서민의 편에 서서 현실적으로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불교를 믿는 일반대중들의 지배적인 인기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십륜'이란, 지장보살의 십종공덕을 설하며, 십종의 불륜(佛輪)과 삼승(三乘)의 십종의지륜(依止輪)에 의하여, 십악(十惡)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장경〉은 3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라시대에 들어온 경전으로는 〈점찰선악업보경〉으로 원광 법사가 중국에서 지니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지장경〉은 〈대승대집지장십륜경〉으로, 줄여서 〈지장십륜경〉혹은 〈십륜경〉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한국에서 제일 많이 독송되는 〈지장보살본원경〉입니다.

삼계교 소의경전으로 알려져
어떤 경전보다 민중 고락 다루며
현실적 해결책을 전해 인기 많아

이렇게 세 개의 지장경이 존재하는데 왜 유독 〈지장보살본원경〉만이 널리 유통되고 있을까요? 신라에서 고려로 오는 시대에는 〈점찰선악업보경〉이 많이 읽히며, 자신의 선악을 참회하는 참회법의 실천으로 응용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사찰들에서 유행했던 양무제시대의 '자비도량참법'보다 시기는 조금 뒤이지만, 점찰참회법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때가 있었으며, 역사적 실천도량이 바로 전라도 금산사, 충청도 법주사, 경상도 동화사가 바로 지장보살의 참회법으로 이룩된 참회도량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한국의 불교사상 중, 지장사상으로 인한 참회법의 역사가 괜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지장신앙의 유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법공 스님은
1979년 출가해 1983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4~1990년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을 참방했으며, 1992년 일본 하나조노대학에 입학해 학사, 석사를, 일본 불교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WISE캠퍼스 선학과 겸임교수와 조계종 교육아사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 송림사 주지로 활동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KOREAN BUDDHIST FOUNDATION FOR SOCIAL WELFARE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30주년**(since 1995~)

나눔의 꽃 피우겠습니다

하나의 나눔, 만 가지 행복

하나은행 271-910005-99704(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ARS **1877-0408** 문의 **02-723-5101**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　　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항조 동주 오심 만초 동진 수진행**

감　　사 : **영산 도광록 회계사**

사무국장 : **홍성표**

노천당 월하대종사 유영집 〈무영수〉
발행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77번지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용주사

주지 **성 남**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1800-44
전화 055-374-9110

대한불교법화종

통영 보광사

법화제일도량

주지 **연산**

사부대중 일동

경남 통영시 망일길71-20
전화 055)645-9292

한국불교태고종

함안 동광사

주지 **덕운**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내인 외동길13
전화 055-583-0130

대한불교조계종

한예산 영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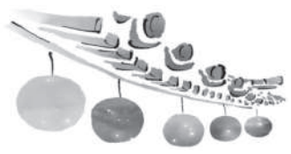
원, 밀, 선, 계, 정토종합수행도량

주지 **용수** 스님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구터길 2-12
전화 052-238-9982

락서암



주지 **수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동국한의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세요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선암

포근하고 넉넉한도량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전화 063)221-8486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진사

이사장 **전남정**

총　무 **김지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각국 승왕과의 공조 협약 의식 새롭게 봉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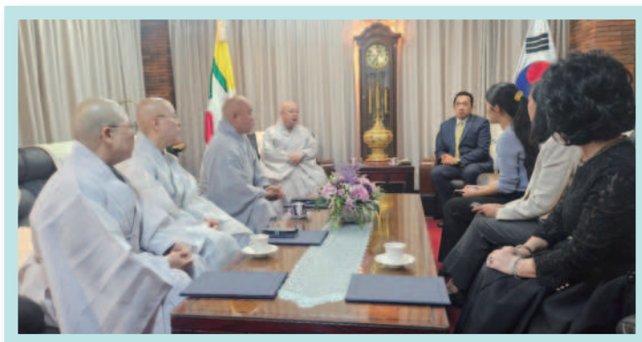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45여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해
국내외 지구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불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전세계 불교지도자들이 단합하였습니다. 국가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존엄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진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몸과 모습은 불제자(출가자 · 재가자 · 사부대중)이나 눈은 감고 있고, 입이 있으되 말을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들으려 하지 않는 정신적 불구자가 많은 현실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앞장서 이런 불구를 치유해 주는 석가여래불의 화신이 되어 중생들의 지팡이가 되고져 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들 망설이지 마시고 동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종정 사야도 취임 축하 친견)




미얀마연방정부 종교성 및 문화부장관 방문 (2024. 12. 11)


한국주재 미얀마대사 면담 극빈지역 복구지원금 전달장면


중앙정부 임원진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임원진


중앙정부 임원진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임원진


코리아기술종합대학 수업 장면


교육자재 컴퓨터 전달 및 기술교육 특강


양곤사사나승가대학 총장 한국어학당 방문

45년의 봉사활동을 뒷바라지 해주신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한분 한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크고 작은 봉사 땀흘려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두가 숨은 보현보살의 도움으로 봉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불자님의 관심과 사랑이 지구촌 어두운 곳의 촛불이 되실 겁니다

국내외 자비봉사단 | **육법공양단** | **불교 합창단**

불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 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보살님이 고통받는 중생들의 살아 숨쉬는 생명이요, 호흡이 되실 수 있습니다 **02-733-5665**

- 극빈마을 공동우물파주기 지원 |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극빈마을에 불자님의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불사에 지원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가정에 비용을지원합니다.
- 코리아종합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 흘나인따야에 코리아기술대학을 설립하여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외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 몽골정부로부터 5만평의 땅을 기증받아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봉사단 참여 | 불교의나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인도 네팔 태국등 여러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직할단체 국제붓다자비 평화 봉사단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농 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大韓民國나라사랑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도메인 세계 불교 법왕청.kr E-mail moktak1@naver.com

2025년 1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13호 | C14 | 전면광고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능가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60평
- 건평 : 15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20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면적 : 60평실평
- 5층건물에 4층
- 전철역 출구앞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30평
- 건물 : 3동
-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간, CCTV 4대
- 빈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합니다.
- 가액 : 6000만원

010-4416-02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3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격 알아서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포교원 하실 분

- 서울 강서구 소재 시장옆 2층
- 30평, 보증금 없음, 월 55만원
- 공양주 부전 할분 쓸분
- 결혼할분 결혼정보 있음
- 서울 명동결혼

주야 직통 010-5381-141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3억원

010-4585-680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종합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2, 각방 2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010-8599-9468
010-4746-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격절충

잘되는 사찰, 건강 사유로 올립니다

010-3596-0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자 미 두 수 (紫 微 斗 數)

로 평생 사주 봐 드립니다.

- 인생은 운이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 당신의 운은? 당신의 복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사주가 선천운이라 하면, 이름또한 후천운이라 하여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작명, 개명, 진로, 직장운, 사업운, 결혼운, 궁합 택일 등등

010-3102-3543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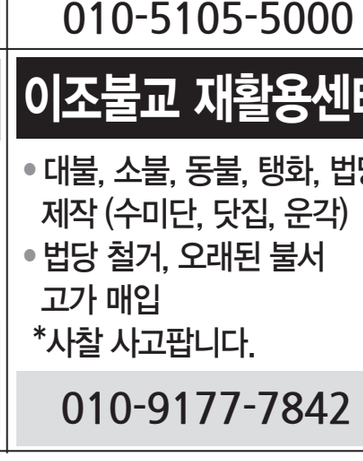
010-2168-2800

비구니 스님 구함

경남 고성
전통사찰 380평
주지로 직접 운영 하실분

010-5033-1422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20년 수제화 외길, 어싱슈즈로 건강 찾으세요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뇌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홍재화 대표

모바일 구매 QR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제조원 필맥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❶ 연재를 시작하며

▶ **이승혜 큐레이터**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대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큐레이터로서, 전시와 연구 그리고 강연을 통해 한국 불교미술과 불교의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는 동아시아 불교미술 속 여성의 자리를 재조명한 특별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기획했다.



장엄한 불교문화유산서 만나는 옛 여성들 이야기

원컨대 이 몸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남자로 변하여
부처님 도량에 들어 부처님을 뵈옵고
듣지 못한 법문을 듣고 보지 못한 진리를 보아
영원히 번뇌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상궁 최혜원 필 〈묘법연화경〉(2권 1책) 발원문(사진 왼쪽)과 본문(사진 오른쪽), 조선, 1626년,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 사진출처=국가유산청

원컨대 이 공덕으로

불교는 붓다를 이루는 것, 즉 성불(成佛)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종교이다.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 여성의 몸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여성은 과연 성불할 수 있는가? 불교는 무차무등(無差無等)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대답은 "가능하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리적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컸다. 남성 출가 수행자들의 주도로 전개된 불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대답은 부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여성에게는 다섯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오장설(五障設)'과 여성은 먼저 남성으로 변한 연후에야 성불할 수 있다는 '변성성불(變性成佛)' 등의 사상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비록 이 사상들이 석존이 남기신 가르침과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에 모순되긴 하지만,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출현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이 불교 교단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후에도, 여성 불자들은 '법을 담는 그릇'[法器]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좌절하고 고뇌하는 일이 빈번했다.

붓다를 만난 여성들

성불을 목표로 하는 종교 전통 안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불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당한다는 것. 이는 신앙의 주체이자 불교 공동체의 일원인 여성의 종교 경험에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연재의 주제는 아니다. '그녀, 붓다를 만나다'에서는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도대체 왜 불교에 맹렬히 귀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는 여성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여성은 불교를 위해 무엇을 실천했을까?

여성과 불교라는 테마로 기획 전시회를 준비하던 무렵, 큐레이터인 필자는 이에 관해 여러 석학들의 자문을 구했었다. 그때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불교미술 중에 여성이 발원하고 후원하지 않은 것이 있겠냐는 웃음기 어린 대답이었다. 오히려 여성이 관련되지 않은 것을 찾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다.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며 그 과정과 동참한 이들의 소망을 적은 기록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불교의 전래에 대해 기록한 공식적인 역사서나 불교 문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여성들이다. 어쩌면 불교 전통 속 여성의 자리를 되새겨보는 작업은 불교미술과 불교문화의 조명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겠다는 깨달음이 이때 필자에게 왔다.

예컨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3 '흥법(興法)'편에는 고구려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시기와 이를 전래한 이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이에 의하면, 소수림왕 즉위 2년(372)에 전진(前秦)의 왕 부견(符堅)이 고구려에 사신과 함께 순도(順道) 스님을 보내 불상과 불경을 전했다고 한다. 이어서 소수림왕 4년(374)에는 진(晉)에서 아도(阿道) 스님이 왔다. 국왕은 이듬해에 성문사(省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두 스님을 각각 살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 속에서 여성들의 존재와 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충주지역에서 발견된 높이 12.4cm의 광배(光背)에서는 6세기 고구려를 살아갔던 한 여성 불자의 염원과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광배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맑은 믿음을 실천하던 아엄(兒奄)이란 여성이 536년에 불상을 조성하며 남긴 기록이 남아 있다. 아엄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 듣기를 바라고, 일체중생이 이 고귀한 서원을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석가모니상을 정성껏 만들었다.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갔던 고구려 여성의 삶의 단면이 이 작은 광배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전통사회 속 여성 압제서 벗어나
평등 세계 가고팠던 절실한 마음
불교 가르침 실천하고 지탱하며
붓다의 딸로 살고자 했던 여성들

역사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인색하다. 대왕대비마마, 대비마마, 중전마마 등 극히 일부 여성들의 삶의 편린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조선의 제16대 임금인 인조(仁祖) 대를 살았던 상궁(尙宮) 최혜원(崔慧遠)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에 세상의 빛을 본 경기도 의정부 원효사의 〈법화경〉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알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상궁 최혜원은 〈법화경〉을 손수 한글로 필사한 재가 수행자이자, 궁궐에서 왕실 가족들을 위해 복무하던 전문 직업인이었다. 표지 내부에 끼워져 있던 낱장의 별지에는 마치 약력처럼 상궁이라는 자신의 지위, 최씨라는 성과 혜원이라는 법명, 그리고 을축생(1565년)이란 생년을 한문으로 적어두었다. 법명으로 당당히 자신을 밝힌 그녀는 〈법화경〉·〈참경(懺經)〉·〈약사경(藥師經)〉·〈장수경(長壽經)〉·〈지장경(地藏經)〉 등은 각 1건, 〈금강경(金剛經)〉은 3건을 봉헌할 정도로 깊은 불심을 지녔다.

단정한 필체로 흐트러짐 없이 〈법화경〉을 써 내려갔던 그녀가 품었던 마음, 그것은 바로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 붓다가 되는 것이었다. 여성의 몸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출현하고 천년도 넘게 흐른 시점이었지만, 최혜원은 이 같은 번뇌를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차등을 상징하는 '82년생 김지영' 전에 '1565년생 최혜원'이 있었던 것이다. 전통사회 속 '여성'이란 삶의 조건이 내포한 압제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평등한 세계로 가고자 했던 그 절실하고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상궁 최혜원이 자신이 지닌 재주와 정재(淨財)를 아낌없이 내어 불경을 꾸미는 동기가 되었으리라.

우리가 만난 불교여성

여성들의 깊은 신심은 불사(佛事)의 후원으로 이어졌다. 이 나라 방방곡곡, 하늘의 별처럼 많은 절들과 기러기 떼처럼 줄지은 탑들의 태반은 여성들의 신앙심이 낳은 것이다. 백제의 왕실 원찰에 사리를 공양한 창왕(昌王)의 누이와 미륵사를 창건한 무왕(武王)의 정비 사택왕후(沙宅王后)에서부터 신라 수도 금성에 분황사를 창건하고 자장 대사를 후원한 선덕여왕(善德女王)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끊임없이 불교를 외호하고 후원하여 불교가 이 땅에 자리 잡도록 도왔다. 고려시대에도 왕실 여성들은 불화와 불상, 향완 등을 시주한 대단월(大檀越)이었다. 귀족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전을 염송하고 사경을 발원했으며, 부처님 뱃속에 들어갈 복장(腹藏)을 같이 공양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여성들은 불교 공동체인 향도(香徒)를 결성해 함께 재를 올리고, 사찰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불교 공예품을 공양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왕실의 최고 웃어른인 대왕대비부터 천민 여성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그에 굴하지 않고 불교를 믿고 따랐던 여성들의 기록이 즐비하다.

'그녀, 붓다를 만나다'는 서원(誓願)과 회향(廻向)의 주체로서 살아갔던 옛 여성들의 이야기를 장엄한 불교미술품을 통해 풀어보려는 시도이다. 뛰어난 붓글씨 솜씨로 부처님께 지극한 공양을 올렸던 상궁 최혜원처럼, 불교를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탱했던 이 땅의 '불교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시대가 정해 놓은 한계를 벗어나 붓다의 딸로서 살고자 했던 옛 여성들을 지금 다시 만나보자.

〈리움미술관 큐레이터〉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종도를 모집합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5년 양력 3월 7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龜山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 지 **운 성**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 슬 산 **대 견 사**

주 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전화 053)746-0020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 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전화 054)873-2908 팩스 054)874-9137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사부대중 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주 지 **여여**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 연 사**

주 지 **능 도**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운영
법화경 독송 및 관음 염송 법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팩스 053)616-0408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

19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선 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 성 암**

주 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전화 02)988-1996, 9300
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회 주 **성 일**

주 지 **선 관**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전화 031)357-3916, 2695
팩스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 일동

남북평화통일기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15-35(북한동)
전화 02)353-4924 / 팩스 02)386-4198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 주 **포전 혜관**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주 지 **선 지**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전화 053)941-3503, 053)953-4481

한국불교태고종

팔공산 **관 암 사**

주지 **만 허**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0(능성동)
Tel (053) 982-6666, Fax (053) 243-2580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 조 암**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 지 **석 청 송**

전화 053)981-1199, Fax 053)982-0683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 成 鶴**

사부대중 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高靈瓦 Goryeong Rooftile TILE Collec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 장학재단

"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전화 053)710-3700, 053)523-2886
팩스 053)252-2886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 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진 규**

사부대중 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회 주 **지 산**
주 지 **징 암**

사부대중 일동

관운사 다음카페 : cafe.daum.net/guanunsa
YouTube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TV"

관운사 가야 복지센터 Tel (054)933-0808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전화 054)931-7777 팩스 054)931-30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견 유**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054)247-2729(FAX 겸용)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

붓다 알아본 뱀왕 무짤린다…온 몸으로 붓다 외호

불교와 뱀

2025년 새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다. 뱀은 십이지신의 여섯 번째 지신으로 남남동쪽을 지킨다. 남남동쪽 땅에서 시작하는 2025년, 우리는 한 해 동안 뱀의 외호를 받는다. 〈대방등대집경〉에 의하면 십이지신은 남섬부주의 사방 섬에 살고 있는 열두 동물을 말하며, 이들은 각각 보살의 화신으로 1년 열두 달에 걸쳐 서로 교대하면서 밤낮으로 인계(人界)와 천계(天界)를 살피며 교화하는 존재이다. 십이지신의 열두 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보살의 화신이다.

경전 속의 뱀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 후 다섯 번째 7일 날이었다. 부처님은 무짤린다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다. 그 때, 갑자기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무에 의지해 살던 무짤린다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짤린다는 코브라뱀이었다. 무짤린다는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의 온몸을 감싸고 부채처럼 넓게 펼친 자신의 머리로 부처님의 머리 위를 받쳤다. 선정에 든 부처님에게 비바람과 추위가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무짤린다는 선정에 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부처님을 지나가지 못했다. 또한 부처님을 살피는 무짤린다의 매서운 눈매에 온갖 짐승과 벌레들이 부처님 곁에 얼씬도 할 수 없었다. 7일 동안 몰아쳤던 폭풍우가 그치자 무짤린다는 부처님을 감쌌던 자신의 몸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무짤린다는 7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부처님을 지켰다.

선정에 든 부처님 7일 동안 외호
아파랄라 등 뱀왕 부처님께 귀의

여전히 염려와 경계의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는 무짤린다의 모습을 본 부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무짤린다에게 말했다. "법을 깨달아 마음이 기쁜 자는 홀로 있어도 행복하단다. 이 세상 어떤 생명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자는 행복하단다.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던져 버릴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부처님의 법을 받게 된 무짤린다 용왕은 부처님께 귀의한다.

부처님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부처님의 존재 의미는 모든 유·무정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었다. 그 위대함에 귀의한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섬기고 공덕을 지었던 것이다.

불경 속에는 무짤린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뱀왕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와트 지역의 뱀왕 아파랄라, 우루벨라의 찬다 등이 있다. 이 뱀왕들과 이를 숭배했던 토착신앙의 세력은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뱀왕들은 불법에 귀의할 생각이 없었다. 부처님은 금강역사를 시켜 동굴 속의 아파랄라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조복시켰다. 아파랄라는 과거부터 현생까지 폭우를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혔던 뱀이었다. 뱀의 몸을 받기 이전 생에서도 그는 비를 관장했던 바라문의 마법사였다. 뱀은 코끼리와 함께 인도에서 대표적인 물의 수호자로 불려왔다. 부처님을 폭풍우로부터 지켰던 무짤린다와 더불어 아파랄라도 물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물의 신으로 불렸던 뱀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새로운 소임을 받게 된다. 물은 생명의 번식을 포함해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공간'이다. 그 물 속은 뱀의 왕, 즉 용왕이 사는 곳이며, 불법을 간직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불법을 지키는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의 경전 속에서도 뱀의 용궁이 등장한다.

'독', 인간에게도 있어…긍정의 독으로

이렇듯 경전 속의 뱀은 일찍이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처님을 따랐던 선지식의 부류였다. 그렇다면 경전 밖에서의 뱀은 어떤 존재이며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십이지신 중 하나의 지신과 연결된다. 선택의 여지없이 부여받는 '띠'이다. 모두에 밝힌 것처럼, 그 각자의 '띠'는 다름 아닌 보살의 이름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보살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각자가 보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보살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선 후기 민간에 알려졌던 당사주책에서는 뱀띠는 '용모가 단정하고 학업과 예능에 능하며 문무를 겸비'한 존재로 적고 있다. 뱀의 해이다. 모두에 적었던 것처럼 '뱀'의 기운으로 살아볼 일이다.

〈숫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수행자가 고행을 통해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뱀이 허물을 벗는 것에 비유했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처럼 뱀은 기존의 습을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수행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리고 일체의 세계로 들어서는 수행자는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숫타니파타〉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다. "히말라야에 흐르는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이렇듯 뱀은 '독'을 품은 존재이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경률이상〉에서는 뱀이 자신의 독으로 은혜를 갚는다. 11권에 있는 이야기이다. 어느 보살이 큰 재판관이 되어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됐다. 부처님께 귀의한 그는 중생을 진심으로 대했다. 그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를 예언하고 배를 타고나간 그는 물에 떠내려가는 뱀과 여우와 사람을 구한다. 이후 보살은 구해준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자 뱀이 그 소식을 듣고 보살을 찾아가 약을 하나 건넨다. "내가 태자를 물어 독을 쓸 것이니, 이 약으로 태자를 구하고 보살의 목숨도 구하십시오." 뱀이 약속대로 태자를 물어 위태롭게 하자 왕은 태자를 구하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는 령을 내린다. 보살은 뱀으로부터 받은 약을 왕에게 보냈고, 태자는 감쪽같이 병이 나았다. 이후 보살의 누명이 밝혀지고 보살은 벌을 면하게 된다. 이후 왕은 보살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을 진심으로 대하고 가난한 중생을 돕는다. 감화된 백성은 왕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현실서는 '독' 품은 무서운 존재
경전, 독으로 은혜 갚은 뱀 있어

현실 속에서 뱀은 무서운 동물이다. 바로 '독' 때문이다. 하지만 경전 속에서는 그 독이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독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 그 '독'은 또 다른 독, 긍정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뱀의 해를 맞아 생각해 볼 일이다. 과연 독을 지니고 사는 것이 뱀뿐일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야말로 '독' 하나 씩 품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던진 말 한 마디, 미움을 품은 마음 하나가 뱀의 독보다 더 독한 독일지도 모른다. 다툼을 부르고, 살인을 부르고, 전쟁을 부르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시끄러운 시절이다. 지금까지 품고 살았던 각자의 독이 올 한 해에는 또 다른 긍정의 독, 세상을 바꾸는 독이 되기를 기원한다.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벗어놓고 새로워지기를 기원한다. 뱀도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처님께 귀의했다. 부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다. 꼭 해야 할 일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았다. 허물을 벗는 뱀은 경전 속에서 수행자가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림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십이지의 뱀.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장지산 용암사
주지 혜공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파주시 혜음로742-28 ☎ (031)942-0265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불기 2569년 새해 온누리에 자비와 희망이

재행선사법이 참 스스로 느낌고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받긴해야 이로 아는것이다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070-7554-1402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91169-556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